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이혼

데이비드 엥겔스마 지음
이성호 옮김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가?
크리스천은 이혼할 수 없는가?**

당신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혼할 사람이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 읽어야 할
혼인원리 선언서**

낮은울타리

가 장 성 경 적 인 것 이 가 장 현 실 적 인 것 이 다

이 하 노 기

데이비드 앵겔스마 지음
이성호 옮김

저자

데이비드 엔겔스마 David Engelsma

미국 개혁파 교회 중 보수주의 교단인 미국개신개혁교회(The 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목사이며 교수이다. 저자는 1963년에서 1988년까지 목회자로 봉사하였고 지금은 이 교단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을 가르친다. 본 저자가 쓴 다른 책에는 《더 나은 혼인: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성과 혼인》, 《극-칼빈주의와 복음의 부름》, 《개혁주의 교육》 등이 있다. 한편, 미국개신개혁교회는 1924년 일반은총에 대한 논쟁이 북미기독교개혁교회(The Christian Reformed Churches in North America)에서 일어났을 당시 여기에 반대하여 헤르만 호크스마(Herman Hoeksema)를 중심으로 분리된 교단이다.

역자

이성호 목사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M. Div,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칼빈신학교 석사과정 졸업

현재, 칼빈신학교 박사과정(역사신학 전공)

가 장 성 경 적 인 것 이 가 장 현 실 적 인 것 이 다

총 10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총 10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최초의 성공적인...



이 책을 출판하기 전, 실제 나는 이 책 내용을 주제로 설교한 바 있다. 이 책은 콜로라도(Colorado)주 러브랜드(Loveland)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성도들과 나누는 설교 내용 중 혼인에 관한 것만 모은 것이다.

혼인 생활 중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식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이 책의 탄생 배경은 교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론 목회 기간 동안 행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는 이미 혼인한 자들과 미혼인 청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제도를 존귀하게 생각했으면 해서 이 설교를 시작했다. 이 책 역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출판됐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세우신 혼인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백성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한다.

특히 내 아내에게 감사드린다. 그녀는 나에게 이 책을 출판하도록 자료를 준비했으며, 손수 타이핑을 해주었다. 이로써 아내는 나를 “돕는 자”임을 또 한번 증명했다.

데이비드 앵겔스마
사우스 홀랜드, 일리노이
1974년 7월



이 개정판은 혼인에 대한 교리 역사 부분을 새로 첨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개정판에 있는 제2부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드러난 언약의 끈”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유를 설명한다. 제2부 역사는 제1부에서 기술한 내용인 혼인의 복음, 혹은 교리를 통한 혼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첫째, 제1부 내용은 사도시대 이후 약 1천년 동안 이전 교회가 가르친 교리이다. 여기서 다른 혼인과 이혼, 재혼에 관한 교리는 소설이 아니라라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제2부는 이 책에 기술된 혼인 교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들의 오류를 지적한다.

셋째, 제2부는 개신교인들, 특히 복음주의자, 개혁파 교인, 그리고 장로교인들에게 평생 꿰어질 수 없는 혼인의 끈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새로운 혼인 교리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점은 제13장 “제멋대로인 현대교회”에 잘 나타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20세기 말, 자신이 속한 교회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화평할 수 없다. 이것은 스캔들이다. 이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재혼은 사람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쾌한 것이다. 이혼은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다. 설상가상으로, 교회와 신학자들은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스캔들을 인정한다.

이 개정판은 제1부에서 초판에 드러난 문법적, 문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교정했다.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이 책을 처음 출판했던 1975년 당시 있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책이 주는 교훈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 책은 한 개혁주의 설교가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영원하면서도 시기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고린도전서 7장 10~11절에서 아내가 떠나는 이유가 남편의 음행 때문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무흠자가 재혼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참으로, 본 책을 이해하는 일은 이 답을 도출하는데 결정적이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제8장에 바로 그 답이 기술돼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출판사는 새로운 개정판이 세상에 선보여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렇듯 산뜻한 디자인으로 출간되었다. 각 장 새로운 부제목들은 본인이 첨가한 것이다.

나는 성령님이 이 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혼인한 성도들을 강권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시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혼인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바란다.

데이비드 앵겔스마

그랜드빌, 미시간
1998년 9월

저자소개

데이비드 엔겔스마(David Engelsma)는 미국 개혁파 교회 중 보수주의 교단인 미국개신개혁교회(The 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목사이며 교수이다. 저자는 1963년에서 1988년까지 목회자로 봉사하였고 지금은 이 교단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친다. 본 저자가 쓴 다른 책에는 《더 나은 혼인: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성과 혼인》, 《극-칼빈주의와 복음의 부름》, 《개혁주의 교육》 등이 있다. 한편, 미국개신개혁교회는 1924년 일반은총에 대한 논쟁이 북미기독교개혁교회(The Christian Reformed Churches in North America)에서 일어났을 당시 여기에 반대하여 헤르만 호크스마(Herman Hoeksema)를 중심으로 분리된 교단이다.



개요 | 12

제1부 성경이 말하는 혼인

- 1장 혼인의 비밀 | 19
- 2장 혼인 제도 | 31
- 3장 남편으로서 기독교남성 | 44
- 4장 아내로서 기독교여성 | 61
- 5장 혼인 관계 안에 있는 성(性) | 77
- 6장 혼인, 그리고 자녀 | 92
- 7장 이혼을 금함 | 107
- 8장 신자와 불신자간의 혼인 | 122
- 9장 끊을 수 없는 혼인의 끈 | 143

제2부 역사별 각 교회가 본 혼인 교리

- 1장 헤르만 호크스마(Herman Hoeksema)가 바라본 혼인 | 161
- 2장 개혁주의 전통 | 173
- 3장 공교회의 합의 | 197
- 4장 제멋대로인 현대교회 | 221
- 요약 | 243
- 역자 후기 | 246
- 각주 | 251



개요

이 책은 총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혼인에 대해 언급한 중요 성경 본문을 다루는 설교로 이루어졌고, 제2부는 교회가 혼인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피력한다. 이 점에서 목회자와 신학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본다. 1부에서 저자의 깊은 통찰력은 가정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 보여준다.

이 책 제목이 보여주듯 저자는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보며, 혼인이 두 사람간에 맺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언약 관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님만이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음행이나, 이혼이나 그 어떤 것도 혼인을 나눌 수 없으며 오직 죽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토대를 근거로 처음 배우자가 살아 있을 동안 이뤄지는 재혼이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하려는 아내는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화합하라”는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바로 혼인의 본질에 있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 비밀이기 때문이다.

혼인에 대한 이 같은 견해는 구원을 바라보는 신자의 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혼은 회개 및 화해,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버린다.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가 저지른 음행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버리시기까지 하셨지만 다른 집단과 재혼하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신부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셨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혼인의 표상이

돼야 한다.

저자가 혼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거쳐 밝힌 견해는 지금은 비록 소수 입장이 됐지만, 무려 1000년 동안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밝힌 입장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개신교가 어떻게 이 공교회적 입장에서 이탈하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이 점 때문에 현대 복음주의, 개혁주의 장로교를 비판하는 저자의 태도는 신랄하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매우 신뢰할 수 있음도 입증하려 한다. 제2부는 이 책을 단지 개혁주의 교인들뿐 아니라, 복음주의, 장로교, 루터파, 카톨릭 교인까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다.

앞으로 한국에서 기독교적 혼인에 대해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책을 다 읽고 냈을 때, 한층 넓어진 혼인관으로 좀더 진지하게 혼인 문제를 대할 것이다. 게다가 혼인에 대해 쓴 성경 본문을 정확하고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역자소개

이성호 목사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M. Div, 대한예수교 장로회/교신)

칼빈신학교 석사과정 졸업

현재, 칼빈신학교 박사과정(역사신학 전공)

역사소개

이성호 목사

서훈 훈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기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1954년) (신학박사)

한일신학교 이사장 겸

총장, 광복신학교 이사장 (역사적 인물)

제1부



성경이 말하는
혼인

혼인의 비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 32절

우리 사회에 너무나 쉽게 이뤄지는 이혼과 재혼. 이는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스러운지 제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행한 혼인과 혼인 서약조차 가볍게 여기기까지 한다. 국가 또한 혼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법적 제약을 하나 둘 제거하는 실정이다. 이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된 우리들. 이제 이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되었다. 그렇지만 혼인 정신을 타락시키는 악은 당사자에게 분명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심지어 한 사회 분위기를 통째로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악은 우리 사회엔 부정(不貞)한 자들을 산산이 부수고, 술과 마약에 취하게 하며, 신경 쇠약에 걸려 자살케 만든다. 또 국가의 존재 여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국가의 토대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 가정의 뿌리는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다.

혼인을 타락시키는 악은 마침내 교회까지 오염시킨다. 우리에게 무조건 세상에 유행하는 정서나 습관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

것은 교회 영적 수준을 점점 떨어뜨려 혼인 정신을 더럽히는 악의 기준에 대해 교회가 허용하는 수준을 낮췄다. 이 때문에 혼인의 참 진리가 성도들에게 설교돼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맹렬한 유혹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결혼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고난은 늘 존재한다. “아무개 군과 아무개 양은 혼인한 사람이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고귀한 제도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로 시작하는 “교회에 맹세하는 혼인 인준을 위한 예식서(Form for the Confirmation of Marriage Before the Church)”¹⁾일부다. 이 구절이 다소 칙칙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좋은 예식서라 할 수 있다. 장밋빛 안경을 쓴 채 상대방을 보기 쉬운 결혼식장에서 이 예식서는 혼인의 참 모습을 일러준다. 불신자나 신자를 막론하고 결혼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게다가 혼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혼인은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도 긍정적이며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건한 혼인과 가정은 교회의 요새다. 이 요새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실한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인에 관한 그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전히 우리가 경험한 것에서 우리나라 지혜를 공유해선 안 된다. 오직 전파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 한 사

람이 말하는 혼인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 참으로, 성령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만 얘기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갖는 친밀함

하나님은 혼인을 가리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부른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2).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행위”를 규범 삼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가르친다. 우리는 혼인에 관한 이 아름다운 묘사가 3-12절에서 얘기하는 음행이나 탐욕 등 온갖 어둡고 더러운 사악함 바로 다음에 나옴을 발견할 수 있다. 앞 절에서는 혼인에 대해 왜곡하고 혼인 자체를 정죄한다. 반면 이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진리를 표현하며 혼인을 권면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아내와 남편 된 자들이 어떻게 혼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해 왔다는 점이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이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24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25절)”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범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관계를 잘 말해준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함을 본받아 혼인한 남자와 여자의 친밀함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 친밀함은 28절에 나와 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한 남자를 둔 아내의 남편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남자는 제 육체를 미워하는 것(29절)과 똑같다. 아내라는 존재는 자기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다음, 사도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표준을 따르는 경우라고 선언한다. 바울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이라 쓰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29절)라는 말을 덧붙인다. 주께서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양하시는 이유는 30절에 나와있다. “우리는 그의 몸과 육체와 뼈의 지체임이라”²⁾

간단히 말해, 우리는 그의 일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한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아담이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창 2:23)고 아담은 말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아담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 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 일어났던 일, 즉 혼인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석을 달게 하신 것이다. 이 해석이 창 2:24에 대한 적절한 덧붙임이라는 견해가 가능한 이유는 마 19:4-5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즉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

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에 의해 증명된다.

혼인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덧붙인 주석은 혼인이라는 유대가 얼마나 놀라운 정도로 친밀한 것인지 가르쳐 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곳에서 혼인 관계의 친밀함을 가르치는 창세기 2장 24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은 적절하다.

혼인의 친밀성은 혼인 유대가 부모와 자식과 관계에 우선한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사이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를 위하여 그 부모를 떠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지 집을 나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혼인의 유대는 부모와 자식간 관계보다 우선한다. 남자가 혼인할 때 그는 부모를 떠나야만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부모의 간섭에 의해 그가 부모를 떠날 수 없다면 혼인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속된 말로, 여전히 엄마 치마폭에 싸여있는 상태인 것이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에는 혼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간 관계보다 친밀성이 더 강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부모와 자식관계는 얼마나 강하고 가까운가? 자식은 부모의 피와 살인 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나님 자신께서 혼인의 유대가 얼마나 강한지 강조한 두 번째 근거는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 “연합하여”라고 번역한 단어를 사용하신 점이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풀칠하여져서 달라붙다”라는 뜻을 갖는다.³⁾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풀로

칠해져서 그녀에게 “달라붙는다.”

특히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선언은 혼인의 친밀성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잘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읽을 때 이 뜻을 알아차리고 우리도 자신처럼 보기 원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의미를 약간 바꾸었다. 창세기에는 “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⁴⁾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따라서 바울은 둘이 하나가 될 정도인 혼인의 친밀성을 강조한다. 혼인의 친밀성은 심지어 달라붙어 있는 두 사람간 은밀한 친밀성도 아니다. 왜냐하면 달라붙어 있어도 여전히 이것은 둘이기 때문이다. 혼인 상태에는 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구절을 성 관계로 인한 육체적인 하나됨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첫째, “한 육체”는 몸의 하나됨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둘째, 혼인에서 성 관계는 몸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영혼의 하나됨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몸과 영혼이 하나됨, 생각과 바람이 하나됨, 소망과 실망이 하나됨, 노고와 목표가 하나됨을 의미한다. 즉 지상에서 누리는 전 삶이 하나되며,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삶을 같이 한다.

이 모두를 말했다 하더라도 혼인의 친밀성에 대해 더욱 정확히 표현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혼인으로 인한 하나됨의 실재”는 이해할 수 없다.

혼인은 비밀이다. 우리가 아기 혹은 생명 잉태를 이해할 수 없듯, 둘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한 육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

로 영감에 가득 찬 한 작가는 경이로운 감탄을 연발하기도 한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잠 30:18, 19). 혼인이 이토록 신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혼인을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남자가 “스스로”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어떤 분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에게 “연합되는” 것이다. 그 어떤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혼인의 풀은 하나님의 풀이다. 왜냐하면 풀 붙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혼인의 유대를 끊을 수 있다.

혼인 예식은 엄숙한 예식이다. 이 엄숙함은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역사적 표현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강 차려입고 시끄러운 대중 음악에 맞추어 맨발로 결혼식을 치름으로써 혼인이 주는 엄숙함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제도에 대한 전쟁이다.

우리 주위에도 혼인이 놀랍도록 친밀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합하기 위해 원래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들이 겪는 비참한 삶에서 드러난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들 죄책감과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감한다. 또 하나 예는 아내나 남편의 죽음 때문에 홀로 사는 과부나 홀아비들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이다. 우리는 이들 고통을 그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다. 몸의 한 부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쪽은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고통을 그 누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혼인이 상징하는 것

바울은 혼인에 대해 얘기할 때, 특별히 혼인이 놀라운 친밀성을 갖

는다고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는 혼인을 비밀 중에도 큰 비밀이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막연한 어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좀더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이 “비밀”이란, 감춰져 있어 사람들이 찾지 못하거나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계획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계시하셔서 신자인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성경 용례를 통해 이 비밀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하며,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큰 비밀”은 매우 심각하거나 황당한 어떤 것이 아닌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뜻한다.

이 견해에 반대하는 혹자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맺은 혼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이는 단지 바울이 하는 얘기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여전히 사람들의 혼인을 염두에 둔다. 인간적인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 즉 하나님이 정하신 상징이라 믿기 때문이다. 혼인의 이면에 감추어진 혼인의 본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혼인이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 관계를 보여 주는데 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교회 사이에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본질상 너무 친밀해 이 둘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복음 안에서 알리신 놀라운 구원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에베소서 5장 앞 구절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다. 23절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 했다. 30절은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고 한다. 이것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가르쳐졌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면서 연합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였다. “내가 저희 안에”(23절).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선언한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구원의 실현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으로 너희 마음에 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 있다”(엡 3:19). 골로새서 1장 26-2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어졌던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 연합의 표징이 세례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연합을 믿음 안에서 경험한다.

구약 시대에는 이 큰 비밀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가 있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에 비유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남편이셨고 이스라엘은 그 분 아내였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정(不貞)은 간음행위였다(에스겔 16장).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완전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과 약혼, 혼인으로 묘사되었다(호세아 2장). 솔로몬의 노래는 혼인이 주는 환상적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

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편 45편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신 그리스도와 한 이방 여인과 혼인을 예언한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이라는 비밀을 미리 말하였고 그 연합을 혼인으로 묘사하였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간 맺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상징이다. 여자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지음을 받았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 존재한다. 처음부터 여자의 기원은 남자에게서 왔다. 이와 유사하게 교회의 기원도 그리스도께 둔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속죄의 피,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조하셨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혹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가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혼인의 놀라운 친밀성을 말하는 창 2:24는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21-23절은 여자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러므로”는 혼인의 친밀성이 여자의 준비에 기초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준비시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결국, 혼인은 친밀한 연합이다. 혼인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된다(창 1:27). 둘은 하나이다. 구원의 비밀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예수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둘은 하나이다.

혼인에 관한 고귀한 교리

우리는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간 나누는 비밀로 보기 때문에 혼인을 귀하게 여긴다. 나의 혼인, 너의 혼인, 심지어 신자의 혼인이 아닌 혼인 제도도 귀하게 본다. 혼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이라는 이 관점을 결여한 다른 어떤 혼인관도 수준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그 누가 혼인을 칭송한다 하더라도 이 관점을 놓치면 사실 그 사람은 혼인을 모욕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타락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불피하다.

우리는 우리가 치르는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준에 따라 측정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며 참된 행복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행복이 다는 아니다. 사실, 혼인에 대한 하나님 표준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가 된 자도 있다(마 19:12).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 제도에 대한 그분 법에 계속 신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혼인을 고귀하게 볼수록 우리가 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매일 확신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잘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교만할 수 있다. 남편에게 질문해 보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셨듯이 우리의 아내에게 행하였는가?”

반대로 아내에게 향한 질문도 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듯 우리 남편과 함께 살았는가?” 이렇듯 우리가 혼인을 귀하게 볼수록 우리는 혼인과 연관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더불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함은 우리 혼인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이 지상의 혼인을 통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이룬 천상의 혼인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혼인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이것을 이룩할 수 있다. 오직 이들만이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표상하는 것임을 알고 여기에 마음을 둔다. 오직 그들만이 자신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혼인을 향한 자신의 소명을 이룩한다. 오직 참된 자녀만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내 백성과 맺은 나의 혼인의 큰 비밀을 영화롭게 하라.”

혼인 제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獨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18-25

이 본문이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즉, 천지가 창조될 때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 여자가 그 속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섯째 되는 날이었다.

이 날에 이미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셨다. 그는 땅에 있는 티끌²⁰로부터 남자, 즉 아담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가꿀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동시에 명하셨다. 이런 후,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피조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중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21-22절). 여자를 만드시고 주님은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왔다(22절).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치른 실제적인 혼인이며 최초의 혼인이었다. 비로소 인류 전체에 영원히 존속할 제도 중 하나가 시작된 것이다. 혼인 제도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 안다면 바른 혼인생활의 기본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인 제도는 우리가 갖는 혼인관(婚姻觀)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가 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후 6일째 되는 날에 세운 혼인 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르친다. 바리새인들이 이혼과 혼인 자체에 대해 예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혼인 제도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셨다. 곧 “본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런 후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다그쳤을 때(마 19:7), 주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9:8 ; 강조는 본인에 의한 것임).

참된 혼인이 갖는 의미를 살리려면 하나님은 실제 혼인 생활을 하는 중 우리가 본래 혼인 제도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지

는 올바른 관계, 즉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이치를 본래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13절)”는 사실에서 찾는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혼인할 때 두 사람이 행할 의무뿐만이 아니라 혼인을 위협하는 오류까지도 올바르게 평가하기 원한다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 제도로 돌아가야만 한다.

남자만으로는 부족함

창조 여섯째 날, 남자 혼자 있었을 때 이 남자는 불완전하였다. 그는 온전하지 못하였다. 창조주께서는 이것을 보셨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창 2:18). 히브리 원문은 혼자 있는 남자의 불만족스런 상태를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남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이다. 혼자 있을 때 아담은 그에게 속한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다. 뭔가 빠져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좋지 못하니라”였다.

남자로 하여금 이 분리와 부족함을 경험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동물들을 그에게로 데리고 오신다. 이제껏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지 못했던 아담에게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담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다. 20절에 나온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를 읽는 우리는 이게 곧 아담의 자의식(自意識)이라 이해해야 한다. 아담은 자신에게 꼭 맞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자신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담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 짝을 데려오셨다. 그러나, 이미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졌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 될 자를 데려 오시기 전에 아담은 미리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점은 아담이 앞으로 여자를 맞이하고 대하는데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 만일, 아담이 여자가 없이도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면, 아마 여자를 멋진 존재로 바라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담은 그녀를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양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아담은 하와가 자신의 온전함을 채워주는 꼭 필요한 존재로 맞이하고 대하게 됐다. 경험을 통해 그녀가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던 돕는 자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반드시 혼인을 해야 할 필연성

여기 혼인을 해야 하는 필연성에 대한 교훈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만으로는 부족하게 만드셨다.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도록 남자 안에 그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창조된 이상,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녀가 혼인하는 일은 매우 지혜롭다.

물론 예외도 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야만 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 독신으로 지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들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인 제도를 만드신 분명한 의미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안에서

만”이라는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인을 권면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명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나는 젊은 여인들이 혼인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제들이 독신으로 지낼 것을 요구한 일은 심각한 악이다. 하나님은 독신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교는 “좋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사악한 법으로 인해 첩, 음행, 동성연애, 욕정 등 오늘날 자행되는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영화로운 여자

하나님은 아담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다 해 놓은 후 여자를 만드셨다. 그는 먼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전에 남자에게 주었던 동일한 영예를 여자에게 선사하셨다.

첫째, 주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자신이 만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신다. 곧 이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한 피조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진정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지닌 특별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인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27절)”라는 그 다음 구절 때문이다.

둘째, 여자가 존귀함은 하나님이 그녀를 만드신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단지 말을 통해서 그녀가 생기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남자를 땅의 티끌을 통해서 지으셨듯이, 여자를 만들 때도 특별한 노력을 들여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주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읽는다. 이처럼 여자를 창조한 과정에는 숭고하고 영화로운 여자의 지위가 뚜렷이 드러난다. 여자는 오랜 동안 억압의 역사를 가진다. 특별히 이교 문화에서도 더욱 그러하였고, 여자는 남자가 소유하는 가축과 다를 바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아내는 좀 못한 피조물이고 남자가 가하는 어떤 학대도 참아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만연했다. 남자는 아내의 머리이므로 아내를 알잡아 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생각이나 관습은 여자가 고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기사(記事) 만으로도 폐기되어야 한다.

돕는 배필

여자에게 부여된 영예는 그녀가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meet)”로 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다. 흠정역에서 사용된 배필(meet)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다” 혹은 “알맞다”는 뜻을 담는다. 우리는 종종 “돕는 배필”을 잘못 이해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남자들은 두 단어로 구성된 “돕는 배필(help meet)”을 한 단어로 묶어 “조수(helpmeet)”로 만든다면 이는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게 된다. 여자는 도우미이

다. 그녀는 남자에게 적합한 도우미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꼭 맞는 존재이다. 남자인 아담은 기준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가 부족한 부분을 잘 공급해 남자를 완전하도록 창조하셨다. 물리적, 여자는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면에서도 남자에게 적합한 남자의 도우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여(女)-인(人)”(wo-man)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녀는 남자의 진정한 파트너이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남자가 “이쉬”이기 때문에, 여자는 “이샤”이다. 그녀가 지닌 참 본성을 나타내는 진정한 이름은 “여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창세기 2장 22절에는 이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집행하신 최초의 혼인식이었다. 또한 이것은 혼인 제도가 인간의 영원한 규례로 제도화시키는 것이었다.

혼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혼인이 갖는 평범하고도 근본이 되는 진리는 하나님이 혼인 제도를 만드셨다는 점이다. 최초로 있었던 혼인 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 예식이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의도하셨고, 최초로 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예식에 예비되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혼인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셨으며, 혼인의 끈으로 이들을 묶으셨다. 하나님은 맨 처음 혼인 제도를 만드실 때부터 인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제도로 만드셨다. 여섯째 되던 날 하나님은 혼인을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규례를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혼인을 더럽히는 근본 이유는 뭘까? 그것은 혼인이 하나님
이 세우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제도라 보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은 창세기 2장 말 외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혼인
의 기원을 찾는다. 즉, 옛날 옛적에 사람이 혼인 제도를 만들기로 결심
했다는 것이다. 가족을 양육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제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말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정
생활을 방해하거나 재산권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몇 가지 악
한 음행을 금지시키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혼인의 기원은 물론 틀린 것이다. 아담은 혼인의
기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
까지는 혼인이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것인지조차 몰랐다. 방금 창세
기 2장에서 얘기하지 않은 혼인의 기원엔 근본적인 거짓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근본 진리가 “사람이”라는 말로 왜곡되기 때
문이다.

만약 혼인이 사람이 만든 제도라면 만든 자가 이 제도를 자기 마음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혼인을 왜곡
시키고 변질시키며 자신의 기분이나 취향에 맞게끔 조작한다. 첩을 둘
수도 있고, 그 어떤 이유에서건 맘대로 이혼과 재혼을 할 수도 있다.
이름뿐인 서구 기독교 문명은 “무과실(no-fault) 이혼”⁸⁾을 합법화시킬
정도로 타락해 버렸다. 이혼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일상화되었고 그렇
게 받아들여졌다. 만약 혼인이 사람이 만든 제도라면 사람은 이 제도
를 전복시킬 수도,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급진적인
젊은이들이 이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이보다
더욱 급진적인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혼인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간음을 행한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만약 혼인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부
모들과 선생들은 그러한 젊은이들의 행동을 꾸짖을지도 모른다. 그러
나 부모와 선생들이 혼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부인한다
면, 그들은 젊은이들을 나무라거나 꾸짖을 수 없다. 사실 그들 스스로
에게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그렇게 전복시키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이 혼인 파괴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이고 배타적으
로 가르치는 공립학교⁹⁾ 교육에서 비롯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한 교육을 다 시키고 나서 “혼인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를 덧붙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혼인을 주 하나님의 제도라고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혼인이 단순히 상호간 조건이나 약속에 의한 인간적인 계약
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을 지적
으로 이는 것 이상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때 혼인의 진
리를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경시해 버릴 수 있다. 성
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혼인이 하나님의 제도라
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이해는 혼인 제도를 만드신 하나
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만 한다. 그럴 때, 그분의 혼인 제도에
대한 우리 태도가 두려움과 떨림의 태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
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동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혼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
는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규정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혼인과 관계된 법들을 가르치면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원래의 혼인 제도로 돌아가도록 이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혼인에 관하여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혼인 제도를 세우셨다는 주장에는 혼인의 원리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원래 혼인 제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창세기 2장에 있는 혼인 제도에 나타난 혼인 제도의 원리, 또 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들은 무엇인가? 첫째,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히 13:4)이다. 혼인을 본래 악한 것이라 여기는 것은 마귀의 교훈이다(딤후 4:1-3). 둘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과 사귄다. 하나님은 혼인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법으로 한정하셨다. 이것은 본래 혼인 제도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주님도 마태복음 19장 3-12절에서 지적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4-6절).

이 말씀에 따르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으며 처음 짝지어진 남편과 아내가 살아 있는 한 재혼은 불가능하다.

셋째, 혼인 생활에서 남자는 머리이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원래 혼인 제도에서 끌어낸 결론이다. 3절에서 그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 토대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는 것이니라”는 말씀에 둔다. 남자가 첫째고 여자는 둘째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은 게 하나님의 법이었다.

넷째, 여자는 남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며, 남자는 여자 없이는 부족한 존재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원리를 분명히 한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바울은 쓴다.

여자의 기원이 남자에게 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교만한 남자들에 의해 잘못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여자와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 자신의 근원인 남편으로부터 그녀의 전 삶을 누린다.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나 아담이 아내 하와를 맞이한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되었듯, 남편의 전 삶은 아내를 통하여야 비로소 완전히 누릴 수 있다. 그가 인생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계획, 활동 등을 포함하는 전 삶은 그녀의 영향을 받고 마침내 그녀의 “도움”때문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자가 복종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듯, 남자도 자기 아내가 자기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기며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혼인 법들을 거스르면서 일탈하는 행위가 삶을 비참하게 하거나 이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신 벌은 그 법을 깨는 것 자체로서 사람을 비참하게 한다. 사람이 혼인 법을 무시할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의 길에서 이탈한다. 이 사람은 마치 물 속에서 살아야 하는 법을 무시하고 물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어리석은 물고기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배우고 실천할 때 혼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한 방식이다.

창조질서

하나님이 혼인 제도를 세우셨다는 기사를 통해서 혼인은 구속의 영역이 아닌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제도라는 게 분명해졌다. 우리는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나타낸다는 진리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혼인의 가치가 교회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인은 로마교가 가르치듯이 성례(sacrament)가 아니다. 그들 해석은 혼인이 마치 세례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고, 혼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는 한 방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구속(救贖)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기 전에 혼인 제도를 세우셨다. 혼인은 시민정부나 노동의 발발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

이 때문에 시민정부가 교회와 무관하게 혼인을 성사시키듯이, 교회

밖에서도 혼인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비단 목사가 주례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치가 있다. 때때로 청년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혼인을 정죄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불신자들이 시민 정부의 권위를 소유하고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불신자가 하는 혼인도 적법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음행을 저지르는 불신자들도 참된 혼인 법을 어긴 이유로 하나님에 의해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는 혼인을 하나님이 만든 제도로서 고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생각지도 않는다. 혹여, 혼인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형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혼인의 최종 목적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그는 혼인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짓게 된다. 불신자는 혼인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경홀히 여기며 참 지혜를 몰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혼인을 귀히 여긴다. 이 사람은 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제도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혼인을 귀히 여긴다. 혼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를 보이며 살아간다.

남편으로서 크리스천 남성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7

크리스천 남성인 남편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됨을 알아야 한다. 한 남자가 자신이 갖는 신앙을 깊이 고백한 반면, 자기 아내를 학대한다면 이 남자가 한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다. 한 남자의 아내는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웃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한다. 만약 남자가 눈에 보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랴. 이런 남자라면 유창한 신앙 고백을 하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중단하고 집에 가 아내 사랑하기에 힘써라!

크리스천 남성이 자기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행실은 세상 눈으로 볼 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신 세계가 교회 일원으로서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인인 남편이 그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 이 기독교인의 고백을 의심할 것이며,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게 아니라 여길 것이다. 결국, 그 남자가 고백하는

대상인 그리스도까지 욕할 게 뻔하다. 그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교회 머리를 비난할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치로, 오늘날과 같이 혼인 제도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때 일수록 아내를 대하는 크리스천 남성의 경건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증거한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타난 소명, 즉 남편으로서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목하게 하는 또 하나 자극제라 할 수 있다.

성령님이 혼인에 대해 어떤 소명을 제시한 점은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님을 말한다. 이는 남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다. 남자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가르치듯, 여자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만 주목한다. 자신이 아내의 머리이며 심지어 주인이라 여긴다. 결국 남자는 자신의 의지가 혼인 생활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이 생각은 위 본문이나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남자에게 다른 요구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반박 당할 여지가 많다. 성경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한다. 남편의 의지가 아닌 남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첫 단어인 “이와 같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인 “인간이 세운 모든 질서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는 말씀을 가리킨다. 창조 때에 주님이 세운 몇 가지 인간적 질서가 있다. 기독교인들은 “주를 위해서” 그 질서에 순복하도록 요청 받는다. 이 질서 중 하나는 시민 정부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지배자들의 권위에 복종시킴으로써 시민 정부에 순종한다. 또 하나 질서는 노동이다. 기독교인은 주인이 까다롭든지, 선하고 친절하든지

간에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이 질서에 순종한다(벧전 2:18). 혼인도 이와 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다. 그리스천 여성은 자신들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질서를 지키게 된다(벧전 3:1).

그리스천 남성 역시 혼인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혼인관계 안에서 남편 지위는 아내 지위와 동일하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남편된 너희들아”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너희들도 혼인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할 절대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남편들은 주님께 순복해야 한다. 그는 이것을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소명을 수행함으로써 실천한다. 남편으로서 그리스천 남성이 갖는 이 소명은 세 가지 의무를 강조한다. 즉,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축복해야 한다”이다.

남성의 독립

그리스천 남성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아내와 기본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관심, 자신의 여가를 가지면서 이것들을 자기 혼자 추구한다. 그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삶에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소외된다. 이 독립은 불가피하게 갈등 원인이 되고 심지어 별거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편은 결코 무책임하지 않았다. 항상 아내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잘 돌보았다. 그는 왜 자기 아내가 비통하고 절망하는지, 왜 그들의 혼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원인은 바로 남편의 독선적인 생활에 있다.

남편에게는 항상 이 악의 증상이 있다. 그는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는다. 저녁이나 주말이 되면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위해 혼자 가버린다. 그가 집에 있지 않는다는 점은,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부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임을 가리킨다. 남편은 자신만의 생각과 관심에 둘러싸여 있다. 이 남자의 문제점은 자신이 아내와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어쩌면 이 남편은 혼인 제도의 발생 기원에서 독립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는지도 모른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지 않았는가?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지 않았는가 따위. 곧 이점은 여자의 본분은 남자를 돕는 데 만족해야 하는 반면, 남자는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 내린다. 그래서 애시당초 남자는 여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고 여긴다. 우리 생각이 이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남편이라면 은연중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불순종하는 게 된다. 우리는 혼인 질서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천 남성답게 처신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사고와 행동 방식이라면, 우리는 천상의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는 혼인에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에게 혼인이 지니는 현실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비밀을 보여 주는 관계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든 혼인 제도는 남편의 독립성에 반대한다. 독립하려는 남편은 혼인 제도에 호소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남자는 하나님에 의해 아내의 머리로 창조되었다. 여자도 남편을 위한 도우미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점이 자칫 간과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남자 홀로는 불완전하므로 아내가 남편을 돕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다. 아담은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여자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남자에게는 아내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다. 남자가 자신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남자 혼자서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큰 실수이다.

성경은 명백히 남편들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해서 아내로부터 자신을 독립시키는 것을 경고한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주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덧붙인다. 남자는 여자와 따로 독립해서 살 수 없다.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by the woman) 혹은 여자를 “통하여” 비로소 산다. 혼인 제도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그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들 삶은 하나다. 남자의 독립은 혼인 질서에 위배된다.

이 독립성은 또 크리스천 남성이 남편 된 자격으로 살아 갈 때 필요한 큰 기준과 상충된다. 이 큰 기준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이신 태도와 행실이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부인 교회와 따로 독립해서 살지 않는다. 이 점이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기 충족적인 존재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값없는 은혜로 자신을 교회와 연합시키시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사신다. 그는 자신의 삶

을 교회와 함께 사신다. 그는 자신의 비밀한 생각, 소원과 계획, 모든 행동을 교회와 함께 나눈다. 어떤 것도 교회에 숨기지 않는다. 온전히 교회를 자신의 삶에 참여시킨다. 이러한 점은 이제 크리스천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보여주신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남편들이 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과 동거하라”는 소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이 소명은 모든 독립성을 정죄하고 금지한다.

아내와 “동거”해야 하는 소명은 무엇보다도 문자적이며, 심지어 육체적인 의미로 이해돼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성생활을 함께 하라고 명한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due benevolence)란 각자가 상대방에게 지고 있는 빚을 말하며,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 빚을 지불하라고 권면한다. 이것이 곧 성적인 관계와 행위를 가리키는 문맥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위해서 결혼한 자들이 성(性)을 거부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 전적으로 영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성생활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도 결혼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아내와 동거하라는 남편이 수행할 소명은 그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상에서 값어치 없는 남편들이 선술집을 배회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남편은 가정으로부터 멀리 있도록 하는 많은 활동들, 소위 말하는 여기활동을 참음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 그는 반드시 아내와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고 단지 한 지붕 밑에 아내와 함께 있기만 해서 안 된다. 따라서 이

소명은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며 남편에게 아내와 전 삶을 함께 하라는 권유다. 남편은 자신의 삶을 아내를 “통하여” 살아야 한다.

남성의 폭정

아내와 동거하라는 소명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독립성을 거부하듯이 폭정 또한 금한다. 폭정은 남편에게 흔히 있는 또 하나 비기독교적인 특징이다. 폭정한 남편은 아내를 독단적이면서 냉혹하게, 잔혹스럽게 다스린다. 이 “공포 정치”의 본질은 사랑이 결여돼 있다. 오로지 힘만이 중요하다. 폭정으로 아내를 다스리는 본질은 남자가 아내를 이용하는 데 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을 통해 쾌락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이 남자는 폭군이다. 사악하고 비신앙적인 남편이다. 폭군 남편에 의해 여자가 고통받음은 낙원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지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읽는다. 이 심판은 남편에게 그녀를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락 전에도 이미 남편에 의한 다스림은 있었다. 남자는 창조에 의해 여자에 대한 권위를 지녔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 처음 등장한 창세기 3장 16절 “다스림”은 좀더 강하고 지배적인 남성이 이보다 조금 연약한 여성을 야만적이고 포악하게 다스림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크리스천 남성을 위한 표준은 아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경건한 행위도 아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남편들이 가지는 리더십과 권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권위를 옹호하면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

릇”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섬겼던 사라를 모범으로 삼으면서, 아내더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이 머리됨의 유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다. 교회에 대한 예수의 머리됨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본질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기본적인 소명은 독재자처럼 “너의 아내를 다스리라”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녀를 사랑하라”이다.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굽어모으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예수께서 교회 머리라는 의미는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유익을 위해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 안에서 그는 주셨다! 사랑 안에서 그는 자신을 주셨다! 같은 방식으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의 맥락에서 남편은 리더십과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혼인 생활이 어려울 때, 남편은 종종 그 원인이 아내의 불순종에 있다고 불평한다. 그는 큰소리로 외친다. “나는 머리다. 나는 다스리는 자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보충 질문이 따라야만 할 것이다. “맞다. 그러나 너는 그녀와 동거하는가? 이 기본적인 관계가 너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가? 너와 아내가 한 삶을 공유하는 것이 그녀를 사랑하며, 자신을 그녀를 위해 주었기 때문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삶의 공유, 사랑 안에서 맺는 언약 관계. 이것은 또한 천상의 유형을 따른 혼인 생활에도 근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남편들

아 너희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남편들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한다. 몸과 분리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머리는 괴물이다. 머리는 그 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만 그 몸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참으로 맞는 말이다.

부부간 지식의 핵심은 "사랑"

크리스천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삶을 위협하는 악들은 본문이 남편에게 요청하는 지식에 의해 물리칠 수 있다. "남편 된 자들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들과 동거하라"(벧전 3:7). 남편에게서 지식은 그가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이 돼야 한다.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차갑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다. 베드로전서의 권면은 이것으로 마친다. 이해심 많은 남자가 되어라! 여기서 요구되는 지식은 공감(共感)된 지식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 지식은 성령에 의하여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이며, 결코 자연적인 열정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몇몇 남자들이 태어나면서 갖는 자연적인 자질이 아니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혼인 생활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남편은 자신에게 요구됐던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은 죄를 변명하거나 결혼 생활이 아예 가망 없을 거라 결론 내린다. 그리고 나서 "나의 본성은 이해심이나 인내심과 거리가 멀어. 나는 원래 거칠고 고집이 많아"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곧, "내가 과거에 아내에게 행한 거칠고 사려 없는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어."라 말

하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미래는 절망적이라 여긴다. "나는 아내와 올바르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나의 본성 속에 있는 나약함과 죄된 속성이 두려워." 만약 아내도 사랑을 단순히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녀 역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만약 그녀가 남편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린다면, 그녀는 혼인을 깨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미래의 혼인 생활이 참담하거나 절망적이라 단정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로서 요구되는 덕목은 태어날 때 소유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자연적인 자질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들 내부에서 불러 모아야 하는 세상적인 감정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풍성히 부어주신,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여야 할 그리스도 사랑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죄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더라도 우리의 혼인은 가망 없는 것이 아니다. 사려 깊고 이해심 많은 공감적 지식은 태어나면서 갖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날마다 구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죄 때문이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면서 따라야 할 표준은 지적인 지식이다. 이 지식은 아내의 어떤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그녀와 동거할 때 이것을 고려하게 된다. 본문은 남편들이 항상 고려해야 할 아내의 특징 중 특별히 한 가지를 언급한다. 바로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는 점이다. 흠정역 번역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지 못하다. 흠정역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

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상속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벧전 3:7)이라고 돼 있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다. “지식을 따라 더 약한 그릇, 여성인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을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와 같이 귀히 여기라 이 번역은 아내의 지위와 상태가 “더 약한 그릇”임을 아는 것이 남편이 알아야 할 지식임을 분명히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 않음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불신 여성들은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가르침을 증오한다. 그녀들은 결코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간 불평등에 대한 이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는 좀더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과연,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올바른 번역은 베드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지식을 따라 더 약한 그릇, 여성인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더 약한 그릇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두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세우신 남자를 여자가 복종할 것을 언급한다. 이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상대적인 약함을 결코 수치스럽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달은 태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이 덜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각각 나름대로 영광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여성이 더 약한 그릇이라는 사실도 여성이 갖고 있는 영광의 한 부분이다.

태초부터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아래에 있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그녀를 남자 뒤에서, 남자의 필요에 따라, 남자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혼인생활 안에 있는 여자의 지위가 복종,

의존, 도움의 위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자가 복종하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도록 그녀의 본성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보다 약하게 만드셨다. 그녀는 남자보다 육체적 힘이 약하다. 영혼의 힘에서도 더 약하다. 지성, 의지, 감성이 좀더 약한 것이다. 여성 해방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를 분노한다 해서 바꿀 순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 “법칙”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연약함이 여자의 본성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정한 이 창조 법칙을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날 천상을 요란케 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룬 도전 중 하나다. 그는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단 7:25).

죄가 창조 질서에 영향을 주어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지적이며, 감성적이고, 육체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사도가 얘기하는 참된 주장과는 진정 상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는 혼인 관계 안에 있는 남자에 대한 여자의 위치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인 안에서 남편보다 더 약한 그릇이며, 남자는 좀더 강한 존재이다. 이 말이 남편은 늘 지적으로 뛰어나고 정서적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아내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녀 모든 본성인 몸과 영혼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편이 이 지식을 알 때, 비로소 자기 아내를 부드럽게 대한다. 더 약한 그릇을 깨지 않도록 남편은 조심하여 그녀를 대한다. 여자가 지닌 연약함은 불신 남편으로 하여금 짐승처럼 행동하게 하지만 그리스천 남성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여자가 지닌 연약함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돌본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쓰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 더 연약한 그

롯인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남자는 간혹 아내를 더 떨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남편이 아내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나 그녀의 의존성이 그를 성가시게 할 때, 그녀가 그를 못살게 굴고 실망시킬 때, 그는 여자의 연약함에 대한 지식을 경멸로 바꾸어 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임으로써 더 연약한 그릇에 대한 남편의 지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을 애초부터 막는다. 그들을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인과 같이 귀히 여기라.

첫째, 남편은 자신도 역시 하나의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모든 교만이나 경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 받는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은 남편이 “더 강한 그릇”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릇일 뿐이다. 그 아내와 같이 자신도 진흙에서 빚어진 피조물이므로 도공(陶工)이 아니다.

둘째, 남편은 자신이 생명을 부여받을 은혜의 한 상속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본문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자” 혹은 생명을 은혜로 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는 상속자다. 성령이 남편더러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라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항상 골고다의 나무 아래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은혜와 큰 자비를 인식하며 기독교남성들은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아내를 경멸할 수 없다.

세 번째, 남편이 아내를 경멸하지 않고 귀히 여기라 말씀한 이유는 베드로가 표현하듯이 그녀 역시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

이다. 신자로서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받을 상속자이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자기 남편과 평등하다.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 사이에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도 여자도 없고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갈 3:28). 생명의 상속자로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귀하다. 남편은 아내를 경멸하기보다는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한 행동 속에서 이것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본문은 혼인 관계에 있는 크리스천 남성과 크리스천 여성의 영적인 하나됨을 다룬다. 혼인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또한 남편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한다. 하나님은 신자와 신자끼리 결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불신자와 결혼하기를 금한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바울은 “오직 주안에서만” 결혼하라고 권한다. 혼인의 친밀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다. 한 몸과 같이, 그들은 한 삶을 자연 함께 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삶의 공유는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자연적인, 지상(地上)적인 삶의 중심이다. 그들의 영적인 연합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 갈 때 하나가 되도록 한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 삶을 공유하는 일은 혼인한 자들이 나누는 교제의 본질이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남성과 크리스천 여성은 혼인 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깨닫는다. 타락 이전, 혼인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에 뿌리를 둔다. 그들은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혼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들 역시 서로 서먹서먹한 사

이가 되었다. 타락한 하와는 자신의 남편을 파멸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다. 타락한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타락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머리됨이 갖는 책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영적인 삶을 나누며 혼인 속에서 지극히 친밀한 사이가 된다. 이것은 남편이 어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 아내의 머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복을 누리는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진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아내를 축복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구원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효과적으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아내의 영적 복락을 위해 크리스천 남편을 사용하신다.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그녀는 영적인 부분을 남편에게 의지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한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위대한 기준은 예수와 교회 관계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자이다. 이것은 남편이 영적 지도자일 때 혹은 그 아내와 가족에게 굳건한 가르침을 줄 때, 그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리고 기도와 성경공부로 인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에서도 나타난다. 남편들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남편이 이

직임을 버리고 자기 아내로 하여금 혼인과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가 이 직임을 부패시키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남편이 식탁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자기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아내의 영적 상태를 악화시키고 그들이 공유하는 영적 삶을 사그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남편으로서 나쁜 행위를 할 때, 이런 결과와 만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라는 말을 덧붙일 때 의미하는 바이다. 이것은 본문이 남편에게 주고 있는 소명에 순종할 때 크리스천 남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가 자기 아내와 동거하지 않거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염두하지 않을 때, 아내가 영생을 같이 받을 공동 상속자로 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필시 기도가 막힐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는 기도, 그들의 혼인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혼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소원하는 기도도 막힐 것이다. 이들의 기도가 멈춘다면 혼인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이 복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혼인 생활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교제는 경직되고, 갯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소명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남편의 죄 때문이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잠시나마 우리 남편들이 독립적으로 살 때, 혹은 폭군처럼 지낼 때, 혹은 우리 아내들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끊으신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다. “남자들이, 먼저 너희의 아내에게로 가라. 너희의 아내들에게 죄를 고백하라. 먼저 지식을 따라 그녀와 함께 살도록 하라.” 우리와 우리 아내들은 더 이상 함께 기도할 수 없어서 혼인은 마침내 환희 대신 비참함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남성들이 자신을 돌키고 회개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그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다.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자신의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성을 찬란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사실도 견딜 수 없어 한다.

크리스천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얼마나 고상한가! 우리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소명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여기에 필요한 힘을 구하자. 이 소명을 수행할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남편의 소명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내로서 크리스천 여성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함이니라. 디도서 24, 5

교회 안에서 연로한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아내가 가져야 할 소명에 대하여 가르칠 의무가 있다. 디도서 2장 4-5절은 혼인한 젊은 여자들이 가져야 할 소명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런데 이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은 목사인 디도가 아니다. 목사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한다(디도서 2:1). 그는 나이 든 여자들을 가르쳐야 하고(2:3),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혼인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이 든 여자들은 목사나 장로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젊은 여자들이 나이 든 여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나이 든 여자들에게로 가며, 자연히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딸이나 며느리를 둔 이

스라엘의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젊은 여자들이 근신하여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본문에 기록된 다른 모든 의무들을 다 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나이 든 여자들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본이 되어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젊은 여자들은 나이 든 여자들, 특히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들 행동에서 그들이 따라야 할 유형을 본다. 젊은 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본보기 중에서 남편에 대한 나이 든 여자들에 대한 태도는 특히 더 소중하다. 어머니들이 딸에게 보여 주는 본보기는 그것인 좋은 나쁜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딸들은 그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관계가 디도서 2장 4-5절에 기술된 대로 이루어지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나이 든 여자들, 특히 어머니 된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비록 본문이 지닌 관심사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할 나이 든 여자들의 소명에 대한 것이지만, 본문은 아내로서 젊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준다. 여기에 묘사된 젊은 아내들에 대한 우리 반응은 이것이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피조물인가?” 그녀는 잠언 31장에서 일컫는 아내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영화롭게 빛난다. 아름다움이 추함과 다르듯, 고상함이 저급함과 다르듯, 그녀는 세상에 있는 여느 여인과 다르다. 베드로가 말하듯 진정한 아름다움과 참된 단장(丹粧)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은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는구나”(잠언 31:28).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세 가지 중요한 덕목으로 구성돼

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순종한다. 그녀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소유자이다(본문에 따르면 “근신하고 현명하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천 여성들이 아내로서 받은 소명이다.

순복

혼인 생활안에 아내가 갖는 소명을 나타낸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소명이 남편에 대한 순복임을 발견한다.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본문을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내는 거듭 거듭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권면을 받는다. 디도서에 드러난 본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언급하는 얼마 안 되는 본문 중 하나이다. 물론 이 사실이 아내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실을 설명할 때, 복종과 순복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다.

아내의 소명에 대한 신약성경의 두드러진 구절들을 살펴보자. 에베소서 5장 22-33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골로새서 3장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권면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포함한다. “아내 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이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도록 부르셨고 이것이 아내의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만약 이 복종이 아내에게 있다면, 그녀는 그녀에게 요구되는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그녀는 아내에게 요구되는 다른 소명들도 전혀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근신할 수 없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내에게 순복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바울은 디도서 2장 5절에서 이 덕목을 언급한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본문에서 “복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순종” 혹은 “순복”이라고 번역된다. 5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하라”이다.

순복과 복종은 서로 다르다.

첫째, 성경에서도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단어이다. 베드로전서 3장 5-6절에서 두 단어는 함께 발견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구약의 거룩한 부녀들은 순복함으로 복종하였다.

둘째, 이 두 다른 단어들은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 순복은 마음의 내적 태도와 관련돼 있다. 아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남편의 권위가 자기보다 위에 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순복 혹은 순종은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에 속한 것이다. 모든 중요한 것이 그렇듯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은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베드로가 부르는 이유이다. 순복하는 아내는 마음으로부터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자기 인격과 전 삶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 둔다. 순복과 구별되는 복종은 외적 행동을 지칭한다. 복종하는 아내는 남편이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상을 한다. 그녀는 전 삶을 남편의 뜻에 맞추어 살아간다.

순복과 복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순복은 복종의 근원이자 원인이다. 복종은 순복의 열매이며, 이것이 결과이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녀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순복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 관계가 베드로전서 3:4, 5에 나타나 있다. 이전의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들의 남편에게 순복하였다. 그러므로 사라와 같은 이들은 그들 남편에게 복종하였다.

순복은 기본이다. 그러므로, 비록 복종이 순복을 따라야 하지만, 성경은 아내들에게 순복의 소명을 강조한다. 이것이 디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적인 의미이다. 젊은 아내들은 그들 남편에게 순복하여야 한다. 이 소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소명을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 24절은 분명하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 성령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범사에 순복하라는 것에는 남편과 아내의 공동의 삶(예를 들면, 그들 관계, 가정 운영,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도 포함된다.

이 명령에는 아내가 항상 순복해야 한다는 강요도 포함돼 있다. 그녀는 남편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함에 순복해야 한다. 또 남편이 이 소명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거친 태도를 보일 때에도 순복해야 한다. 비록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하지 말아야

할 때라도 충분히 순복할 수 있고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내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특히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할 수 있다. 심지어 신자인 남편도 아내가 볼 때 불합리하고 해롭고 악한 행동을 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럴 때 흔히 아내는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순복해야 한다. 그녀가 불복종할 때에도 그녀 태도에서 이 순복이 나타나야 한다. 반역자와 같이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불복종해야 한다.

반항

아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의 주됨(Lordship)에 철저히 반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녀는 남편에 맞서고 반대한다.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 위에 군림하려 든다. 두 개의 머리가 생겼기 때문에 가정은 지옥과 같은 혼동과 전쟁터로 바뀐다. 질서는 없고 오직 혼란만이 있다. 만약 여자가 끈질기게 반항한다면 로마서 13장 2절의 경고가 그녀에게 적용될 것이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내로서 소명에 불복종하는 또 한 형태는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만의 삶을 따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디모데전서 2:12). 이 경우에 아내는 단순히 남편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 그녀 자신이 곧 자기 법이므로 마음대로 길을 간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이 말하는 “남자로부터” 나온 자신의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이 가르치는 대로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돕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간다.

이 두가지 경우,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혼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왜냐하면 순복하고 복종하라는 아내가 지녀야 할 소명의 근거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혼인 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다. 그분은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남자 옆에 있는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로 이어졌다.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다는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또 하나 근거이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가르쳤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고 말한다. 인간이 타락하는데 기여한 여자의 역할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순복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이다. 타락의 순간에 하와는 자신을 남편 옆에 독립된 권세로 내세움으로써 잘못을 범하였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금한 것에 대하여 뱀과 토론하였다는 사실은 하와가 바로 이 잘못을 범했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그녀는 뱀과 토론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 관한 명령을 아담에게 주었지, 하와에게 주진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절은 이렇게 쓰여져야 했다. “뱀아, 내 남편을 보아라. 그는 나의 머리다. 나는 오직 그의 권위 아래에서 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아담 역시 자기 아내가 자신의 권위를 범하게 함으로써 잘못을 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혼인이 남자의 권위로 세워져야 하는 자신의 질서를 강조하신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혼인 생활에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 아래 아내를 두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본래의 질서를 유지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녀는 다스리는 머리가 아니라 복종하는 몸이다. 그녀가 이것을 좋아하는 좋아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그녀는 이러한 존재이다. 아내로서 가지는 크리스천 여성의 소명은 이것이다. “혼인 제도를 귀히 여기라.”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이것에 동의하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여보” 혹은 “자기”라 부르는 만큼 남편을 “주”라고 불러야 한다.

영적 건전성

건전한 정신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데 기본 요소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정신이 건전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것들은 “술 취하지 않은” 혹은 “신중한”으로 번역될 수 있다. 젊은 여자들은 술 취하지 말고 현명하여야 한다. 즉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만약 젊은 여자가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면 순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젊은 여자들은 특별히 세상의 불신 아내들이 하는 본을 보고 혼인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갖기 쉽다. 이 여자들은 아내의 근본적인 덕

목인 순복을 거부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조롱한다. 심지어 아내도 혼인생활 안에서는 평등한 파트너여서, 동등한 두 당사자가 맺은 일종의 계약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권위는 없고 오직 서로간 “동의”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비록 혼인을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과는 별도로, 아내로서 자신의 삶, 자신의 직업, 자아 실현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녀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저주받을 만한 거짓말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은 섬뜩하리 만치 늘어나는 혼인과 가정의 파괴, 뒤따라오는 모든 비참함과 비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머리가 두 개이거나 머리가 없는 어떤 가정도 바로 설 수 없다. 더구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가 없는 곳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도 존재할 수 없다. 그 결과 제멋대로 사는 부모들이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을 무수히 양산한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거부한 결과는 다름 아닌 혼인의 신적인 질서를 경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가 크리스천 아내들을 유혹하는 단 하나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그녀 자신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소명에 반대하려는 죄성이 있다. 그녀는 본성적으로 반항의 사람이다. 본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려고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만을 주장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 보단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 한다.

세상과 본성의 두 유혹에 맞서서 바울은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라고 말한다. 건전한 정신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신부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돼 있으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젊은 여자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큰 진리를 혼

인 안에서 갖는 자신의 소명에 적용시키는 사고력이다. 따라서 혼인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음은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술 취하지 않고” “신중하다”는 뜻이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듯이 여자들도 자신의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해야 한다. 교회는 범사에 순복한다. 그녀 삶 중 어떤 것도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주께서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때로 교회에게 상실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의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독립하여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살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외에는 어떠한 삶도 살지 않는다. 크리스천 아내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게 큰 해가 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교회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복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 때, 교회는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것은 크리스천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아내에게 행복과 생명 길을 제시한다.

젊은 아내들은 혼인 생활에서 다른 중요한 부분에도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본문은 남편들을 사랑할 것, 자녀들을 사랑할 것, 집을 지킬 것(한글 개역 성경에는 집안 일을 하라고 번역되어 있음-역자 주)을 언급한다. 성령은 여기에서 사랑이 아내가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본질적 요소라 분명히 말한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성경이 순복을 그토록 강조한다는 사실이 사랑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사실, 젊은 아내에게 주어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남편을 사랑하라”이다. 사랑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내가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덕목이다. 아내의 사랑은 순복과 복종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이 위대한 혼인의 형식에 대해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관계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사랑 속에서 교회는 순복하고 복종한다. 성경은 아내의 사랑을 약화시키지는 않지만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 사랑이 올바르게 표현되고 올바른 형식을 갖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 형식은 바로 순복이다!

낭만과 현실

“아내의 사랑”과 관련하여 성경은 젊은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거짓된 낭만주의를 경계한다. 젊은 여자들은 아주 감성적이고 열렬한 사랑으로 가득 찬, 달빛 비치는 밤과 전원 속 낮과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꾼다.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혼인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현실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은 금방 혼인을 버리고 이혼한다. 이 세상의 소셜, 영화, 텔레비전은 이러한 혼인관을 더욱 부추긴다. 반대로 성경은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낭만주의를 보여주는데, 젊은 크리스천 여성들은 혼인 전에 이러한 생각을 풀어야 하고 혼인 이후에도 보유해야 한다. 성경은 젊은 여자들의 혼인에 대한 이상을 무너뜨린다든지 혹은 낭만주의를 반대하는 적은 아니다. 아가서를 읽어 본 적이 있는가?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상한 이상주의며 모든 신자들을 낭만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 안 젊은 여자들에게 건전한 정신을 가지도록 온전한 진리를 전달한다. 혼인 생활중 이들은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출산과 양육을 기대해야 한다. “집 지키는 자” 혹은 “집

안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반드시 기대해야 한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직업 여성"의 매력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종종 지치게 하는 집안 일이다. 심지어 남편에 대한 그들 사랑도 감성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하다. 왜냐하면 남편을 마땅히 사랑해야 함은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건전하여 남편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만약 나이 든 여자들이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면, 젊은 아내들은 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 비록 남편이 동화 속 "왕자"가 아니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하더라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해야 할 힘들지만 영적인 활동이다.

영적 정신이상

성경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자질들이 건전한 정신 산물이라면 세상이 정신 나갔음은 분명하다. 에베소서 4장17-18절에서 "이제 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듯, 오늘날 세상 여자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앓는다. 그들은 자기들 남편만을 사랑하지 않고 간음을 하든지, 이혼이나 재혼을 통해 많은 다른 남자들을 사랑한다. 이것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지극히 사악한 죄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은 반항과 불복종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이 사악한 피조물들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며 자녀들을 증오하거나 햇빛을 보기 전에 배 안에서 죽여버린다. 성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그 아이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고 아이를 무시하고 가능한 빨리 놀이 방에 맡겨 버린다. 이 여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아내의 일, 즉 집안 일에서 찾지 못한다. 이 일은 여자들이 해방되어야만 할 지켜온 일로서 노예들이나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그리하여 가정이 아닌 직장이나 집밖에서 일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서 찾는다.

이 정신나간 생각에 맞서서 크리스천 아내들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가져야 할 소명에 대한 진리를 잡지나 소설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추잡한 여걸들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한 부녀들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아내, 혼인의 신실함, 자녀, 주부 그리고 복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은 가장 고상한 지혜이다. 여기에서도 세상의 지혜는 가장 어리석다. 하나님 말씀은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한다. 디도서에서 나타난 젊은 여인의 삶은 지겨운 삶이 아니다. 반대로, 그녀 삶은 영화롭고 그녀의 노동은 중요하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그런 자는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느니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잠언 31:10-31).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자들도 그렇게 영화롭지 않으며 그들의 일도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하나님을 경외함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이 고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고 이를 것이다. 잠언 31장이 덕스러운 여인을 묘사하면서 “고운 것도 거 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 지은 이유도 그러하다.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아내의 소명에 적용된다. 남편은 하나님의 권위로 덧입혀 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부를 것인가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것인가와 같은 문제이다. 주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면 아내로서 가지는 소명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다. 그녀는 남편이나 자녀들, 심지어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소명을 다함으로써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녀로 인해,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행동이 그녀의 혼인 생활에 나타남을 인해 찬양 받으신다. 그러므로 믿는 남편이 이해심이 없거나 어그 러진 길을 가더라도, 혹은 불신 남편이라도 크리스천 아내는 신실하고도 기쁘게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한다.

여기에는 신앙을 가진 젊은 남자가 신부를 구할 때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내포돼 있다. 그러므로 고운 것도 거 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 특히 자기 때문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크리스천 아내들에게 자기들의 소명에 주의하여야 할 이유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

안 일을 하고 순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기” (디도서 2:5)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에서 행하는 행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그들이 사악한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욕을 입는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바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그들은 “바른 교훈에 합한 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무례하고 악하게 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 부부간 결혼생활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마저 욕할 것이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킬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항하는 아내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멸시받을 빌미를 제공한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지 않더라도 이 점을 생각하고 아내로서 소명을 다하길 힘쓰라. 하나님 말씀이 아내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훼방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그녀의 선한 행위 때문에 찬양 받으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천 아내들이 본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믿는 여자들에게 큰 힘을 준다. 그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훼방을 받는 것을 심히 싫어한다.

이 동기에 자극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순복하는 여자들이 될 것이다.

저가 전쟁을 쉬게 하심이어⁸⁾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크리스천 남성들과 순복하고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크리스천 여성들 간에 이뤄지는 혼인은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이것과 정반대인 세상적인 혼인이 있다. 세상적인 혼인은 포악한 남편과 반항하는 아내 사이에서 사악한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전쟁터다. 이번에는 남편이, 다음에는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승리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시 남성이 이전보다 더 포악하게 아내가 지배하려는 것을 누르고 그녀를 다스리며 자기 주장을 한다. 기독교인이 하는 혼인은 이와 전혀 다르다.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다스린다. 아내는 사랑으로 남편에게 순복한다. 따라서 혼인은 서로를 파괴시키는 쓰라린 다툼이 아니라 교제, 기쁨, 협력 관계이다. 여기에 평화가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대하라! 이것이 신자들의 소명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위대한 구원에 속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의심을 품지 않고 이를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혼인 관계 안에 있는 성(性)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1-9

교회가 성(性)의 본질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다루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주저함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의 왜곡된 성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현상에 수긍이 간다. 소돔성과 같이 지금 이 세상도 자신의 수치를 떠벌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 가지는 어느 정도 조심성 있는 태도는 언제든지 환영할 만 하다. 하

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숭을 떠는 청교도주의가 아니라 순결함이다. 타락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도록 옷을 장만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삼가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 젊은이들을 염두에 둘 때 안타까운 일이다. 불행하게도 교회의 침묵은 종종 부모의 침묵과 맞물려 있다. 교회와 가정은 주로 성의 오용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성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성의 긍정적인 측면 즉, 사람의 성적 본성과 성이 부부 생활에 어떤 올바른 위치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한 사물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도 잘못이다.

교회와 기독교가 성에 대해 갖는 소심함은 세상의 대담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다. 세상은 성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 세상은 역겨울 정도로 성에 대해 쉬지 않고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떠든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성에 대한 추하고 사악한 생각을 부추긴다. 성적 부도덕은 책, 노래,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광고 등 우리 문화의 모든 것들이 던지는 메시지이다. 이 피할 수 없는 집중 공격은 성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젊은 백성까지 겨냥한다. 세상은 성에 대하여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성에 대한 세상의 이해는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휘저어 마침내 저급하고 악한 형태를 만들어 버린다. 이 세상의 공격 앞에 교회가 그저 침묵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교회와 기독교가 성에 대해 주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종종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은 성이란 본래 수치스럽고 악한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이런 생각은 젊은이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남길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혼인한 성도들의 평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성에 대한 진실을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낸다.

솔직함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에 대해 반론을 주저하거나 당황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이를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다룬다. 잠언 5장은 이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 말씀은 신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본 장은 아버지인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음행의 쓰라린 결과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포함하여 음행에 관한 예리하고, 분명하며 현실적인 경고가 들어 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썩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死地)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잠언 5:3-5).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 아내와 가지는 성생활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 긍정적인 교훈도 준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시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18-19). 성에 대한 이 열린 마음은 아가서 전장에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이다. 즉 설교와 읽기와 연구를 위해 교회(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

이)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에는 제한이 없으며, 하나님이 백성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교훈을 준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도 교회 전체에게 결혼생활 중 누리는 성에 대해 교훈을 준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혼인과 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것이 바로 7장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이라고 시작하는 이유이다. 바울은 공개 서신을 통해 이들이 묻는 질문에 현실적이고 적절한 교훈으로 답변한다.

놀라운 일은,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기술한 혼인관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는 명백히 다른 혼인관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혼인에 대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상적인 견해를 가진다. 그는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본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는 혼인을 또 다르게 본다. 에베소서 5장과 반대로 그는 겉으로 보기에 수준이 한 단계 아래인 현실적인 혼인관을 취급한다. 혼인의 이유는 “음행의 연고” 때문이다(2절). 남자와 여자는 음행과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혼인한다. 만약 남자가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해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본성 중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일 듯 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9절).

이 두 개의 다른 관점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5장이 얘기하는 고상하고 천상적(天的)인 혼인관과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는 “저급하고 지상적(地上的)인” 혼인관은 서로 절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난 혼인에 관한 진리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에베소서 5장의 가르침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사실은 에베소서 5장과 고린도전서 7장,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서 혼인과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는 명령 사이에는 어떠한 불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장은 혼인이 가지는 두 가지 구별된 측면을 보여 주며, 이 두 측면은 혼인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구성한다. 에베소서 5장은 혼인이 갖는 고상한 원리,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 표상을 제시한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 영광스런 원리가 성도의 삶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원리와 실천, “교훈과 삶”을 포함한다. 아무리 이 원리가 고상하고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실천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실천을 다스린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상으로서 갖는 혼인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혼인이 남녀의 성적 본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된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가 가지는 혼인관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고상한 이상과 상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이 본래 수치스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 있다.

성은 좋은 것이다

세상 생각과 달리 우리는 성에 대해 탁월한 견해를 가진다. 성은 본질적이고 동물적이고, 저급하고, 수치스럽고, 악한 것이 아니다. 이 성은 빗대어서만 이야기하거나 히히덕거리며 귀엣말로만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 성이란 우리가 돌보아야만 할 인간의 연약함이나 상처가 아니다. 성은 불리한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남자의 성적 본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 가르친다. 물론 그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지 않다(즉, 혼인을 하여 여자와 성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1절). 그는 모든 남자가 자기처럼, 즉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한다(7절). 그는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좋다고 말한다(8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인은 꼭 해야만 할 절대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다. 혼인하지 않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다. 독신은 좋은 것, 탁월한 것이다. 참으로, 어떤 관점과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혼인보다는 독신이 더 좋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행위가 참으로 악하며, 이 때문에 독신이 더 좋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독신을 권하기 때문이다(7, 9절). 그리고, 혼인하는 것이 원래 더 나은 것이 아니듯 독신 자체로서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독신은 신자로 하여금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더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32, 34절). 그러나 이것은 예외이지 규칙은 아니다. 규칙은 모든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다(2절).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는 좋은 것이다.

혼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이 본질적으로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안에 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남자가 타락 이후에 성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성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성으로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성적인 본성

을 주시는 축복 말씀을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연합을 포함하여 남편과 아내로 동거하는 것은 낙원에서 누리는 복 중에서 사소한 부분이 결코 아니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빨리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완전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가졌을 것이다. 창세기 2장 25절이 보여주듯이 어떠한 수치도 여기에 첨가돼 있지 않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또한 모든 창조 중에서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칠 때에 좋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 1:31).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 성이 저급하고 악하기 때문에 혼인을 금해야 한다는 것은 사탄의 교훈이다(딤후 4:1, 3). 전체적으로 볼 때, 혼인은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창조의 한 부분으로써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기도록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는 이유는 세상이 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귀하게 보지 않고 성을 깔보기 때문이다.

성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해 버렸다. 타락한 죄인은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해 성적인 본성도 오염시켰다. 그러나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 특별하다. 인간은 그들 삶 가운데 성적인 면을 남용하기만 한다. 이것은 성 자체를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혼인의 한 부분인데, 혼인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교제, 즉 언약을 나타내는 지상적(地上的) 표상이다. 즉 혼인은 언약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인간의 성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힘을 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에 대한 선택받은 신자의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사용을 회복시킨다. 신자에게 성은 좋은 것이라는 사상은 고린도전서 7장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성은 오직 혼인 안에서만 좋은 것이다. 혼인 외에 맺는 성 관계는 죄악이다. 바울이 “음행을 멀리하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고 썼을 때, 그는 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음행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뤄지는 성 관계다. 이것은 죄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멀리해야 한다. 이것을 멀리하는 방법은 혼인이다. 혼인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죄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7:5에서 혼인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사단이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저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합하라”는 명령에 내포되어 있다. 혼인 관계 외에 이뤄지는 성 관계는 사탄의 유혹이요, 죄요, 사탄이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수단이다.

성(性),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자

성경 곳곳에서 혼인 밖에서 행하는 성 관계는 정죄 하며, 혼인 안에서 이뤄지는 성은 높이 인정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4절은 우리가 음행을 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 올바른 행위는 우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선언한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리는 현실적인 목적을 비로소, 이것은 혼인한 성도와 혼인하지 않은 성도들의 길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이 지혜롭고 올바르게 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장 쓰라린 악, 즉 몸을 멀리하고 영혼에도 상처를 입히는 악은 음행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음

행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이요 죄이기 때문이다. 음행을 통한 성의 오용을 피하기 위해서 젊은 성도는 혼인 생활에 이뤄지는 성의 올바른 사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젊은 처녀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장차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총각들도 자신의 힘이 장차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총각들은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창녀들과 한 몸 되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린도전서 6:16). 음행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정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음행을 멀리하라(고전 6:18)” 외쳤을 때 의도했던 바이다. 음행으로부터 도망하라, 음란서적과 잡지를 피하라, 성적인 부도덕을 조장하는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 남성의 정욕을 일으키는 옷을 입지 말라, 데이트를 할 때 성적인 불장난을 하지 말라. 그 대신 혼인하라! 이것도 혼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혜의 한 부분이다. 혼인은 음행이라는 악을 막는 안전 장치이며, 우리의 성적 본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혼인하는 것에만 마음을 “불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9절에 따라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한다. 젊은 신자는 믿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다. 만일 믿는 배우자를 찾을 수 없다면, 비록 “불이 타더라도” 혼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자들이 절제하도록 하실 것이다. 성욕이 혼인하기 위한 토대는 아니다. 성이 혼인 생활에 전부라거나 중대한 것처럼 혼인을

성 위에 세우지 말라. 이런 태도가 특히 오늘날 세상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되는 실수다. 그렇게 세워진 혼인의 토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성은 사실상 하나의 신격화됐다. 교회는 이 이상 숭배를 정죄하고 거부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본적인 것은 참 살아 있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혼인을 하는 것이다. 종종 그러하듯이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중 한 사람에게 혼인을 금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여전히 혼인의 실재를 소유한다. 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로 만드신다 하더라도 그는 가난하다든지 무엇이 결여되어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는 부유하다. 성이 아니며, 세상적인 혼인이나 어떤 피조물도 아닌 하나님님이 참신이다.

혼인의 토대는 두 사람의 영적인 하나됨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뤄진 연합,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뤄진 연합이다. 이들은 성적인 조화가 아닌 영적인 조화가 기본이다. 간혹 미혼인 젊은 신자들이 자신의 혼인 대상자를 교회의 신자에게만 제한시키거나 “젊은 혈기” 때문에 처음 사귀는 남자나 여자(비록 그들 모두 신자라 하더라도)와 곧바로 혼인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기도를 통해 결혼 대상자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데이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중 어떤 것도 혼인이 “뜨거운” 정욕을 잠재우기 위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음행에 대한 예방책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 불타오르는 성욕에 대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성과 혼인한자들

지금까지 우리는 성 관계 및 혼인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혼인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빛을 던져주는가?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의무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그가 권고하는 바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에서 사용된 “의무”라는 단어는 혼인한자들이 성적인 연합 속에서 자신들의 몸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 빛이다. 바울이 3절에 명령한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면서 이 사실을 좀더 분명히 보여준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주장이라는 단어는 권위를 의미한다.

아내가 자신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진 빛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신을 아내에게 주는 것도 남편이 아내에게 진 빛이다. 이것은 빛이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각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닌 상대방 것이다. 이는 혼인의 친밀성, 남편과 아내의 놀라운 근접성 때문이다. 혼인한 사람들은 한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도적질이다. 바울은 5절에서 “서로 사취(詐取)하지 말라”⁹⁾고 명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혼인에 적용해야만 하는 기독교적인 혼인관, 즉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독특한 혼인관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자연인을 생각할 때, 혼인 대상자는 오직 자

기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갖는 주 관심은 “나의 배우자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얼마나 기쁘게 할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성 관계는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상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사도는 성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라고 요구한다. 그는 남편의 주된 관심이 “어떻게 내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편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내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아내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이다. 이 점은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은 혼인한 우리에게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라고, 상대방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라고,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혼인 안에 맺어지는 성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한 부분이요, 자신의 욕망을 상대에게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이다.

성은 혼인생활에서 아주 고귀한 부분이다. 모든 권위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하여,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하여 갖는 권위 혹은 권세는 책임 있게 사용 되어야 한다. 이것은 권위가 배우자에 대한 영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배우자의 유익에 대한 관심에서 사용될 때 가능하다. 성 관계는 수치스럽지도 않은 것이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성에 대한 수치심은 교회 안에서 이뤄진 혼인을 불필요할 정도로 곤란하게 한다. 교회는 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침묵할 뿐만 아니라 성이란 오직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용될 때에만 선택하고 적법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성이 본래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잘

못된 생각을 불러 넣음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왜곡된 생각과는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혼인 생활 안에서 기쁨의 자유를 허용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혼인의 성적인 측면을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고 선하며, 수치스럽지 않고 영예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포함돼 있다. 혼인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성이 어떠한 부조화도 없이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기술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확연히 드러난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지 말고(합의상 얼마 동안은 예외로 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남편과 아내는 혼인의 성적인 측면을 당황하지 않고 논의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성 관계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의상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5절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성과 참된 혼인

성이 혼인 생활에서 차지하는 고귀한 한 부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을 태초에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성은 특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연합을 나타낸다. 성 관계는 혼인의 친밀성을 이채롭게 표현하고 실현한다. 둘은 한 몸이다. 그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가 된다. 이 때문에 성에 대한 조심성 있는 태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혼인 생활에서 성적인 면을 화제를 삼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을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불경스러운 행동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을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비밀을 가지며 이것을 절대로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는 친밀한 삶을 위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혼인생활에도 마찬가지이다.

성 관계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경이롭다. 알미니안 신학이 갖는 감성적이고, 비효과적(ineffectual)이며,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면서도 빛나가지 않고, 강권적이면서 소유적이다. 또 질투심이 강한 개혁 신학이 말하는 주권적 사랑이다. 예정, 구속(救贖), 중생,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를 이루는 사랑이다. 이 모든 구원 순서에서 신랑인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자기의 영원한 소유를 삼고 자기에게로 인도한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는 심지어 영원한 형벌을 치르면서까지 교회를 자신 것으로 삼으려 한다. 이 사랑에 응답하여 그의 연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연모하며 그녀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친다.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환상적으로 연출된 사랑이다. “너는 나를 인(印)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엮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가서 8:6).

오직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불붙는 사랑의 기초이다. 그리스도는 한 교회만을 사랑하고 교회는 한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 제 삼자의 어떤 개입도 이 사랑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 혼인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남자마다 어떤 한 여자를 두라”고 하지 않고 “모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

고”, “모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지라”고 말한다(고전 7:2).

자녀들에게 성을 가르치기

이제껏 말한 것이 성에 대한 진실이라면 오직 믿는 부모들만이 자녀들에게 성을 가르칠 수 있다. 세상은 이 일을 할 수 없다. 저들은 온갖 지저분한 말이나 저속한 영화, 텔레비전, 서적을 통하여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부패시킬 뿐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고전 2:14).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알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혼인, 그리고 자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8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16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15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피임에 대해 격론을 벌인다. 로마 천주교는 이 주제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인위적이든 기계적이든, 피임은 중한 죄라는 게 과거부터 내려온 로마교의 입장이었다. 역대 교황들도 공식 문서나 서신에서 이 점을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얘기한다. 이 때문에 더더욱 지금에 와서 로마 교황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게다가 이전 교황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은 교황 무오설(無誤設)을 정면 부인함과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피임에 대해 끈질기게

반대함으로써 피임은 재검토되었다. 최근 교황은 <피임에 대하여>라는 회람 서신을 발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피임에 대한 로마의 역사적 가르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였고 모든 피임 행위를 중한 죄라 정죄했다. 그런데 로마교회 내에서도 교황의 수위권을 위협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일어났다. 세상도 이 로마 분쟁에 관여했다. 사실가, 교육가, 사회 활동가 심지어 정부 관리조차 로마 교황의 입장을 비난하였다. 당시 산아제한이 세계적으로 권장되는 분위기여서 정부 관리들은 더욱 거세게 교황의 결정에 분노하였다. 만약 교황의 결정이 존중된다면 자기들의 노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개신교 지도자들도 불가피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했다. 이들은 만장 일치로 로마교의 교리를 정죄했다. 대부분 개신교는 피임을 경건한 행위로 지지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정죄하였다.

피임을 둘러싼 모든 질문과 논쟁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 주제는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피임 실천은 크리스천 부부에게 문젯거리가 되었다. 크리스천 부부는 피임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신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표준과 도달하여야 할 결론은 세상의 표준이나 결론과는 달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피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달라야 한다. 피임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질문은 "혼인 생활에 자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이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혼인의 실재적인 한 부분이다. 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그러므로 혼인 생활에서 자녀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부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이 기준이 돼야 한다. 혼인한 신자들은 "자녀가 결혼 생활에 어떤 위치를 갖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녀 없는 혼인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결혼 관계에 자녀가 갖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오류가 발생한 출발점은 자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아마도 이것은 자녀들을 천시하는 풍조에 열렬히 맞서야만 한다는 감정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따르면 혼인은 오직 한가지 목적 즉, 자녀를 가지는 것만으로 충족되며, 자녀가 없는 혼인은 사실상 불완전하고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동기야 어떻든, 자녀를 이토록 우선시 하는 태도는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 몇몇(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혼인의 진리 자체에 해를 입힌다.

간혹 자녀를 소중히 여기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혼인의 의미를 부인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왜냐하면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간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한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모범을 따라 사랑 안에서 함께 살 때, 비록 자녀가 없는 혼인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 실현된다. 비록 하나님이 혼인한 부부에게서 자녀들을 데려가시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평생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보여 주어야

하는 고상한 소명을 말함이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상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고귀한 소명을 가진다.

성과 출산

성은 오직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용될 때만 합법적이라는 주장은 자녀를 혼인의 목표로 만드는 잘못을 범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와 같은 주장은 성과 출산을 떼어놓으려는 오늘날의 경향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성 관계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진다고 분명히 말한다. 성은 혼인 생활에서 즐겁고도 놀라운 친밀성을 나타내는 한 측면이며, 혼인은 사랑의 관계를 독특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혼인 안에서 갖는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 관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또 다른 용도를 더하셨다. 바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성이 갖는 이 두 목적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피임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분리하려고 하고 실제로 분리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녀 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인의 친밀성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유지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바로 제기 된다. “과연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성 관계의 두 용도를 분리시키도 되는가? 게다가 인간이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 알약이나 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몇몇 사람들은 어떤 피임 도구는 우리 몸의 신비한 구조와 활동에 역작용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 중에 하나, 즉 자녀 출산을 망가뜨리기 위해 성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가진 영혼의 신비로운 구조와 활동에 역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뿐만 아니라 혼인의 친밀한 관계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결정적이다.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혼인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우리와 세상이 혼인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되 오직 몇몇 사소한 부분에서만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혼인관을 가진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혼인관과 인간 중심적인 혼인관의 차이이다. 불신자에게 혼인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 자신에 해당하는 부분 즉, 행복, 쾌락, 위안, 의지에서 끝난다. 하지만 우리가 맺은 혼인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끝난다. 우리가 맺은 혼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혼인은 우리의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혼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 생활에서 올바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따르는 것이다. 혼인 생활 안에 있는 어려운 질문들을 대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따라 답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만 한다. 종종 이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그분 뜻에 일치시키도록 해야만 한다.

역사의 세 단계에 따른 자녀

하나님 말씀은 자녀 출산과 자녀의 위치에 대하여 인류 역사에 나타

난 세 단계 기준에 의해 말한다. 이 세 단계들은 본 장 초두에 인용된 세 본문(창세기 1:28, 창세기 3:16, 디모데전서 2:15)에 제시돼 있다. 이 본문이 가르치는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타락 이전 낙원에서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제도, 자녀 출산에 미친 타락의 영향, 오늘날 교회의 믿는 여자들에게 자녀가 주는 의미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이제 막 창조된 남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으며, 이를 통해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능력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래, 성 관계는 생육과 번성, 즉 자녀 출산이라는 신성한 목적을 가졌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자녀 출산을 성 그 자체에 내재한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 것은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만으로 이 일은 불가능하다. 지구 전체를 온전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건한 왕들과 여왕들이 있어야만 했다.

창세기 3장 16절은 타락이 모성(母性)과 자녀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가르쳐 준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와 슬픔¹⁰⁾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타락 당시 하와가 했던 역할 때문에 하와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 말한다. 본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모든 여자들이 겪는 출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여자의 삶 중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자는 타락 이전보다 더 자주 자녀를 잉

태할 것이다. 또 여자는 자녀를 슬픔 중에서 낳을 것이다. 이 자녀 출산의 슬픔은 출산할 당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비록 출산 그 자체도 큰 고통이지만), 출산 이전에 종종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한다. 그러나, 출산의 슬픔은 오직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큰 슬픔은 죄인인 자녀들을 잉태하고 양육해야 하는 데서 오는 슬픔이다. 첫 아들이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남자가 된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 하와의 비통함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형의 손에 의해 젊어서 생명을 잃은 자기 아들을 묻어야만 했던 하와의 슬픔을 생각해 보라. 그 형 역시 그녀 아들이었다.

성경은 거듭난 여인의 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것은 혼인에서 자녀가 지니는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꼬임을 받아 낙원에서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하와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믿는 여자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자녀 출산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자녀는 축복이다

인용된 모든 성경구절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혼인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만드셨다. 타락 이후 하나님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출산을 거룩하게 하시고 믿는 여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은 출산이 신자들에게 복이라는 사실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라” (창 1:28). 혼인 생활에서 생육은 좋은 것이며 자녀를 낳는 것 그 자체가 타락 이후에도 저주가 되지 않는다. 비록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남자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와에게 모성의 고통을 내리셨을 때 그녀를 저주하신 것은 아니다. 잉태에 수반되는 슬픔은 그녀에게겐 벌이지만 저주는 아니다. 게다가 타락 이후 여자에게 가해진 것은 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의 증가 및 슬픔의 증가였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출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이제 출산은 여인들에게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자녀는 복이다.

세상의 관점은 이와 전혀 다르다. 피임에 동조하는 세상 모든 주장 속에는 출산과 자녀가 저주라는 확신이 있다. 이것이 산아제한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다. 자녀가 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세상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자녀가 저주라는 주장을 펴지만 이 근거들은 알파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세상은 재앙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인구 폭발” 때문에 산아제한을 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른다. 비록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앙을 당할 위험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디아와 같은 나라에 있다. 미국에서 부모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은 생필품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사치를 제공할 수 있다. 달나라로 가기 위해 수백 억 달러를 지불하고, 베트남 전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며, 토지 은행에 엄청난 농장을 가지고, 자원을 무절제하게 쓰는 나

라에서 천연 자원의 부족 때문에 가족을 제한하라는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세상은 또한 적게 낳을수록 더 잘 기를 수 있다는 말로 산아제한의 프로그램을 어설프게 지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권을 땅에 둔 사람(불신자들을 가리킴)에게는, 자녀를 적게 낳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며 자녀들을 더 열악하게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것들은 세상의 사고에 근거하고 세상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세상의 주장이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이다. 이 주장들은 가족이 많아지면 불가능해질 지도 모르는 사치스런 삶을 향한 인간의 욕망에 호소한다. 이것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가지기(많은 자녀들을 가질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위한 여자들의 욕망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답변을 내놓는다. 자녀, 특별히 많은 자녀는 우리의 재미와 놀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귀찮고 성가신 존재이다.

“가족 계획”이라는 문제에 대한 세상이 지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출산을 통제하는 천지의 주재를 모른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관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속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지 않은가? 태초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세계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경건한 왕들이 많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 때문에 이 목적을 신자의 자녀들을 통해서 실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구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우리의 출산 문제에 측면에 침입하는 것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입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 가정의 규모에 대해서 명령할 어떠한 권위도 갖지 않는다. 정부는 한 가정의 자녀 수를 2명이나 3명으로 제한하기 위해 도덕적 압력을 우리에게 행사한다. 이미 정부는 허용된 숫자보다 많은 자녀를 갖는 사람들에게 벌을 가하기 위해 위협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가족의 숫자를 조절하는 법에 복종하도록 명령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돌보고, 잘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자녀 수를 지정하는 어떠한 법에도 우리는 엇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뜻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14절 바울의 권면으로 뜻을 보이신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훼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어머니의 슬픔

출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는데 교회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슬픔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는 육체적인 수고와 고통이 있다. 어머니가 자신의 소명을 수행할 때 영혼의 노력과 슬픔도 동반한다. 어머니가 겪는 슬픔은 얼마나 큰가? 창세기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슬픔과 잉태를 크게 더하셨기 때문에 여자는 큰 슬픔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죄 때문에 여자가 젊어져야 할 집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

움을 제거하거나 떨어버리는 것으로써 믿는 여자를 축복하시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은 어머니를 축복하시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슬픔의 짐과 출산 증가의 짐은 그녀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여자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녀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자녀 갖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짐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힘을 얻어서 어머니가 짊어진 짐을 감당할 것인가? 세상의 불신 여자들은 피임이라는 방법으로 이 짐을 간단히 피해 버린다. 그들은 어머니의 큰 슬픔을 거부한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가정 밖이나 휴가에서 찾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대 “해방된” 미국 여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불경건한 여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정신적,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증명한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머니의 삶은 힘든 것이다. 그러나 경건한 여자에게 주어진 해답은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비록 오늘날 이것이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그녀는 출산에 의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바울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믿는 여인들의 영원한 구원은 출산과 맞물려있다. 물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처음으로 구원을 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산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녀를 구원한다고 할 수도 없다. 본문은 다음 구절을 덧붙임으로써 이것을 보여준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출산은 구원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믿는

여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요, 지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자들이 어머니의 슬픔과 마주칠 때 이 어려운 길을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슬픔을 참으며 노고를 감당하도록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당하는 슬픔에 동정하여 “가족 계획”이라는 세상적인 지혜를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강하시고 공홀이 많으시고 모든 짐진 자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머니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어머니의 큰 슬픔을 아신다. 그 자신이 적어도 7명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다. 마태복음 13장 55-5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4명의 형제들과 적어도 2명의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지 보았고,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어머니의 기쁨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신다. 구약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값진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새 시대가 동터오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하게 되었을 때,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것”(행 2:39)이라 외치도록 하였다. 신약을 통틀어

볼 때, 신자의 자녀들은 교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었다(엡 6:1-4 ; 골 3:20-21).

그리스도는 신자의 자녀들을 통해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자녀들을 왕으로 만드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된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마태복음 21:16).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이유다. 이것이 바로 모든 슬픔 특히 죄인인 자녀를 출산하는 데서 오는 슬픔을 삼켜버리는 경건한 어머니의 기쁨이다. 이 때문에 믿는 부모들의 모든 노고와 희생은 가치가 있다. 그들은 “주님의 후사”인 자녀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한다.

이미 하와의 경우에서 보았듯, 어머니의 기쁨은 슬픔을 압도한다. 첫째, 하나님은 그녀에게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릴 “씨”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수많은 선택된 자들을 약속하셨다. 오직 그 때에만 하나님은 출산의 큰 슬픔을 말씀하셨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교회 안에서 산아제한을 강요하거나, 가족계획이 실패해 신자들의 아기들을 살해하는 것을 가장 지지한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보듯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박해하여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한 자가 바로 마귀이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수포로 만들고 많은 자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을 때,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던 자도 바로 마귀이다. 이 마귀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교회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나님의 대 가족

혼인한 신자들의 다산(多産)은 심지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표상하는 상징이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많은 아들과 딸을 낳는다.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기족인 무리를 거느린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이들을 돌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그리스도는 이 자녀들을 그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 출산하고 양육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생산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인한 성도들의 어머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87편과 같이 노래한다.

주께서 민족들을 계수하실 때,
아들과 딸들을 보리로다.

그가 시온에서 수많은 생명을 낳았도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 찬송되리라.

“복되도다 시온이여, 우리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도다.

복되도다 시온이여, 우리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도다”¹¹¹

혼인이 갖는 상징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징을 이 실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출산에도 적용시킨다. 그러므로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크리스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
하지 않게 하라”(예레미야 29:5, 6).

이혼을 금함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
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31, 32

우리가 혼인에 대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 혼인의 진리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도 이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 불신 세계
도 높은 이혼 비율에 놀라곤 한다. 이 관심과 놀라움은 시편 119편 53
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
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 자체가 이들 삶을 망치고 인간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혼을 했거나, 혼인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특별한 관
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진리는 혼인을 했든 안 했든 교회 모
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지닌 순결과 영적
인 힘, 복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혼인의 진리에 대해 교회가 정말로
순종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바로 이혼에 관

한 시험이다. 이혼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교회는 자신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혼인의 진리를 보존하든지 아니면 매우 위태롭게 만든다.

우리는 이혼을 혼인과 별개 문제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혼은 오직 혼인에 대하여 앞서 말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혼은 부정(不正)이다. 이혼의 부정은 긍정, 즉 혼인이다. 이혼은 혼인을 통하여 하나가 된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혼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된 혼인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가 혼인을 세우셨는가? 혼인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혼인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참된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혼인에 대해 물었을 때(13절) 그는 혼인의 진리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4-6 상반절). 혼인의 본질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6절 상반절). 참된 혼인이라는 관점에 철저히 의거하고 나서, 그리스도는 이 혼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6절 하반절).

비록 본 장의 제목, “이혼을 금함”이 부정적이지만 그 중심 사상과 목적은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본인은 본 장의 제목을 일부러 부정적으로 표시하였다. 부정적인 표현은 이 진리를 좀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오늘날 교회는 이전보다도 더욱 이 진리를 듣고 알아야 한다. “이혼 불가!”

또한 마태복음 5장 31-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충실하

다. 왜냐하면 이혼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정죄하는 이유는 혼인의 유대가 지니는 거룩, 친밀, 아름다움 때문이다.

이혼에 대한 신명기 24장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혼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대조시킨다. 이 다른 가르침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이혼 규례이다. 예수님이 31절에서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신명기 24장 1-4절에 나오는 이혼 규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 구약 규례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3절). 하나님 이 혼인한 자들을 짝지었으므로 사람이 그들을 나누지 말아야 하기 때

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재빨리 올라미를 당겼다. 모세는 이들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들의 말은 신명기 24장 1-4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간단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요 율법을 준 사람이다. 이혼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한 예수는 모세와 맞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일 수 없다.

신명기 24장 1-4절은 이혼문제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 나타난 이혼 관련 규례는 예수님 시대에 전반적으로 잘못 이해됐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못 이해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모세, 신약과 구약의 불일치라는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 우리 실수는 이 규례가 이혼, 심지어 재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데 있다. 즉, 다음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1 후반절, 2절). 우리는 이것을 사소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이혼이라고 본다. “사람이 수치 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1절)이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재혼은 말할 것도 없고 이혼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찾아볼 수 없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혼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지적하였듯, 모세는 “허용”하였다. 어떤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24장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가 취해야 할 법을 서술했을 뿐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가 아내와 이혼을 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그들은 이혼증서를 써서 자기 아내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들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모세의 명령은 이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너희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라.” 이혼증서는 버림받은 아내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모세가 남편에게 버림받을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스라엘의 여자는 금방 노리개감이 되거나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혼 증서는 “그녀에게”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신명기 24장에서 우리가 종종 지나치는 것 중에는 모세가 이혼이나 재혼을 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것을 허용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모세가 준 규례는 이것이다. 원래 남편에게서 이혼 당하여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는 두 번째 남편이 그녀를 또 버리더라도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1-3절에서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을 지적할 뿐이다. 남자들은 어떤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아내를 버렸다. 이혼 당한 여자들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두 번째 남편에게서도 이혼을

당하였다. 그와 같은 경우에 모세는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금한다(4절). 1-3절은 모세가 인정하는 것을 쓴 게 아니라 단지 일어나는 일을 보는 그대로 쓴 것이다. 흠정역은 이 점에서 다소 잘못된 점이 있다. 특별히 1-2절은 모세가 남자가 이혼하는 것과 여자가 재혼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올바른 번역은 다음과 같다.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혼인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만일 그 후부(後夫)가 그를 미워하여 한다면, 전부(前夫)가 그 여자를 다시 취해서는 안되고.

이 번역에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내포돼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할 뿐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분명히 한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허용한 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어떤 수치되는 일”이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어떤 일의 벌거벗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이 나오는 성경의 다른 곳은 오직 신명기 23장 14절 뿐이다. 우리는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여성의 어떤 성적인 더러움이나 수치를 의미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음행은 아니다. 왜냐하면 음행에 대한 벌은 사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수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음행과 관련돼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 24장이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이혼을 허용

한다 해도 구약은 성적인 불결과 관련된 경우만 엄격하게 제한한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혼은 음행의 경우에만 한정시킨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의 규례는 불만족스럽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1-32절의 말씀에 분명히 내포돼 있다. “또 일렀으되 그러나 나는 이르노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순전한 진리의 가르침과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의 가르침을 대조한다. 모세가 말하는 규례는 음행 이외의 다른 이유로도 이혼의 관습뿐만 아니라 재혼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주목하라.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신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문제다. 그러나 문제는 구약에서 옳은 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틀린 것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구약에서 종종 허용되는 잘못이 신약은 허용하지 않는가”이다. 구약의 일부다처제를 예로 들어보자. 이 “문제”와 상관없이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규례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신명기 24장에 호소하지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만약 이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규례가 만들어져야만 했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다. 이것이 불신이 지배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이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신명기 24장의 규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

는 것이다.

신명기 24장 사이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다. “그러나 나는 이르노니.” 그리스도는 신명기 24장의 허용을 폐지하셨다. 음행의 연고 이외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참된 혼인에 대하여서도 충만하게 되었다. 이 충만하게 도래한 나라에서는 “음행의 연고 없이,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마 5:32).

이혼에 대한 구약의 율법

신명기 24장은 이혼을 바라보는 구약 율법이 아니다. 신명기 24장은 구약 율법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24장이 이혼을 허용하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람은 옳거나 선한 것이라 해서 무조건 허용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옳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을 허용한다. 이것이 율법의 이탈이다.

잘못된 것을 허용함으로써 신명기 24장은 이스라엘의 많은 비참을 야기했다. 문제 많은 혼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본문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종종 잊는다. 바로 신명기 24장의 규례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과 쓰라린 저주의 상자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모세의 경고가 들어 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두 번이나 하고 결국 첫 번째 남자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조악한 혼인법으로 당하는 비참함을 묘사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완악한 마음의 길은 이미 이 세상에서 비참의 길이다. 일부다처제의 결과는 구약에도 마찬가지다. 혼인을 깨뜨리는 자는 그 죄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반면 구약보다 좀더 밝

은 신약에 나타난 혼인의 빛은 우리를 이 비참으로부터 건진다.

신명기 24장은 이혼에 대한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부터 이탈이다. 이혼에 대한 율법은 창세기 2장 하나님의 혼인 제도에 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시킨 것이다. 신명기 24장은 모세가 율법의 이탈을 허용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킨다. 이혼에 대한 율법은 창세기 2장 18-24절, 하나님께서 최초로 혼인 제도를 세우시는 기사에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적용되는 법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 19:6).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으셨다. 그러므로 이혼은 금지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셨다.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5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에 대한 구약 율법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혼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혼은 사악하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다루신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정죄하시고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관심은 재혼이 아니라 이혼이다. 비록 교회 안에서 재혼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여겨지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마치 이혼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오직 재혼의 가능성 때문에 이혼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이혼이 발생할 때 재혼이 뒤따를 가능성을 지적하신다. 그러나 그는 이혼이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정죄하신다. 누구든지 그의 아내와 이혼하면 그녀와 이혼한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짓는다.

비록 예수님은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여기에는 여자가 그의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동일한 죄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모든 이혼은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이혼할 때, 여자도 주도권을 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누가 이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이혼을 정죄함은 남편과 아내가 각기 온갖 형태로 분리됨을 정죄하는 것이라 이해돼야 한다. 그는 “버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적법하고, 공식적인 이혼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는 별거의 형태를 포괄한다. 이는 혼인한 상대에게서 단순히 떠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버리는 것, 별거하는 것,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제도를 둘로 떼어내는 행동이다.

아내가 일시적으로 남편을 떠나야만 한다면 남편에게 떠날 것을 요구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마 그가 술주정을 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그녀와 자녀들에게 안전할 수 없다. 비록 아내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혼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떨어져 살 것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별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교회는 이것을 “분리” 그 자체로 보아 심각한 상태로 여겨야 한다. 간단히 말해 이 경우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혼은 “이혼 당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볼 때도 금지된다. 자기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죄다. 그리고 이 죄의 또 다른 측면은 배우자를 음행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면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마 5:32).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신다. 타락한 본성 뿐만이 아니라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본성도 아신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창 2:18).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더라도 그는 자기 아내가 재혼이란 유혹에 빠지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재혼은 음행이다.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혼한 여자는 재혼하지 않고도 음행의 유혹을 받기 쉽다. 단순히 아내와 별거하거나 떠나버림으로 아내를 버리는 사람도 그녀로 하여금 음행케 만드는 책임이 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악한 관계를 가질 위험에 처하게 한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생생한 예를 보여 준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 때문에 그의 아내를 “버렸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가 사라를 취하게 되고 사라는 그와 음행할 뻔 하였다.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혼인 제도에 어떠한 어리석음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아내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내 역시 남편이 음행하도록 만들어버린다. 비록 사악하게 이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혼한 여자는 음행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가 한다면, 그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32절 마지막 부분이 이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혼의 주동자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

예수님이 이혼으로 인한 온갖 종류의 지극히 사악한 악, 즉 음행 때문에 이혼을 금하신다는 사실이 이혼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흐리게 하지는 않는다. 이혼이 상대방으로 재혼을 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이혼은 그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의 반역에 빠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묶은 것을 풀 수 없다.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다. 혼인을 통해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하나가 다시 둘이 되는 게 가능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잘못이다. 나뉘어진 사람들이 새 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든지 말든지, 어떠한 풀림도 있을 수 없다. 다음은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혼에 대한 말씀이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2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혼을 금하신 이유이다. 이혼을 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만약 잘못된 행실로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그녀와 새 남편이 음행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덧붙여야만 한다. 왜? 혼인의 끈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정죄하시면서 예수님은

혼인의 끈을 변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혼은 금지돼야 한다.

성경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

“이혼 불가”라는 원칙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 예외는 배우자가 음행을 행한 경우다. “음행의 연고를 제외하고”(마 5:32). 만약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거나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서도 혹은 교회의 권징을 받지 않고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게 이혼한 유일한 이유가 된다. 남편은 아내의 음행 때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음행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 사람이 혼인 안에서 여전히 하나로 남을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신의 음행을 회개한다면 크리스천 남편은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도 종종 자신의 아내, 이스라엘-교회가 많은 우상들과 창녀 짓을 하고 나서도 그녀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셨다. 그렇지만 분명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행위는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음행의 심각성을 보아야 한다. 음행은 오늘날 가볍게 취급된다. 세상은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를 희화시킨다. 대중 소설은 이것을 사소하게 다루거나 찬양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농담 소리가 들린다. 그리스도는 음행을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 않는다! 오직 음행만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분리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가 무섭도록 심각함을 목도한다. 본질상, 음

행은 혼인의 중심부, 즉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친밀성을 위협한다.

예수께서 이혼을 금하셨을 때, 오직 한 이유만 대셨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오직 음행만이 남편과 아내를 혼인의 끈을 끊어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떨어뜨려 한 집, 한 식탁, 한 침대로 이루어지는 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다른 어떤 것도 이혼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죄와 죽음의 세상에는 이혼을 어렵게 하는 많은 악이 존재한다. 정신병, 불구, 이혼하고 싶어 쯤이 쑤시는 남편, 도저히 함께 살기 힘든 요부와 같은 아내. 이것은 혼인 서약의 구절 속에 담긴 내용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어떤 남편도 교회가 이혼을 금하는 이유 때문에 잔소리 많은 아내를 자기 옆에 계속 두게 함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아내도 비록 자기 남편과 이혼할 수 없더라도, 교회가 자기 남편을 포악한 짐승으로 남게 하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이 책의 전반부에서 기술한 것처럼 혼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권징을 포함한 설교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주님은 신자들에게 함께 살도록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과 평강 속에서 서로 올바르게 살도록 권면하신다.

이혼을 금하는 율법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적용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죄를 짓는다. 이것이 혼인 “본래부터 있었던” 혼인을 위한 율법이다.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우리 사회를 향한 심판이 얼마나 무르익었는가!

그리스도는 이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즉 믿는 교회로 향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제도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이혼에 반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실함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는 이혼을 자기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높이 외친다. 비록 자기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저질러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더라도 그는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신자들은 이 사랑의 신실함을 그들의 혼인에서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신자와 불신자간의 혼인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10-17

고린도전서 7장 10-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교

훈을 제시한다. 7장 전체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술한다. 이것을 우리는 1절에서 알 수 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10-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혼인에 관련한 두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10절과 11절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진 한 그룹을 향한 바울의 교훈이다. 반면, 12-16절은 또 다른 혼인 문제가 있는 다른 그룹을 향한 바울의 교훈이다.

두 권면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권면은 주님의 명령인데 반하여 두 번째 것은 바울이 내린 명령이라는 사실이다. 10절에서 우리는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읽는 반면, 12절에서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읽는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권면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신적인 질서이고 두 번째 권면은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충고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두 명령 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권면 역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며, 단지 충고가 아님은 17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10-11절과 12-16절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명령을 내렸다고 말한다.

첫 번째 권면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명백히 밝혔던 교훈에 대하여 다시 진술한다. 예수님이 그 백성에게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고, 결코 재혼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셨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1-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12-16절에 나오는 두 번째 권면은 예수님이 지

상에 계실 동안 가르칠 기회가 없었던 명령이다. 적어도 고린도교회 상황에서 던진 질문에 답했듯 구체적인 형식으로 대답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도를 받았던 바울은 긴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 말하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바울의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혼인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의존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두 권면 사이에 나타난 또 다른 차이점은, 첫째는 두 사람이 모두 신자인 남편과 아내에 관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불신 배우자를 두는 부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권면은 하나다. 두 권면 모두가 참된 혼인에 관한 충고라는 점과 특히 혼인 관계에 있는 신자가 지녀야 할 소명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두 권면을 통해 바울은 신자에게 말한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혼인 질서를 지키라고 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나 사도가 신자들에게 말하려는 사실은 그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규범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감을 의미한다. 즉 그가 가진 혼인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주 예수의 법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복종해야 할 은혜의 약속이 있다.

또한 이 권면은 둘 다 혼인의 본질이 한 남자와 한 아내 사이에 평생 맺어진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가진 엄정함과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특히 특별한 혼인 문제를 다룬 두 번째 권면이 그러하다.

나누지 말라

바울은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나기를 금하지만 그래도 떠날 때, 그녀의 소명이 무엇인지 명기한다. 만약 그녀가 떠날 경우, 그녀는 “독신으로 그냥 지내든지, 혹은 전 남편과 화해하여야만 한다”(고전 7:11). 어떤 재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바울이 정당화시킨 것은 아니다.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주된 권면은 이것이다. “너의 배우자를 떠나지 말라 나누지 말라.” 남편을 떠나는 여자는 자신의 떠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지내라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실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한다는 사실에 상관없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11절). 남편이 아내를 버리든지 혹은 떠나든지 아내와 자신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 명령을 내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0절에서 그의 명령이 사실은 자기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쓴 이유이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혼인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직접적으로 상기시킨다. 금지된 것은 새로운 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단순한” 육체적 분리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은 느슨함, 떠남, 버림을 금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며 하나의 삶을 공유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질투하실 정도로 그가 세우신 제도가 보호받기를 원하신다.

코린도전서 7장 10-11절에서 떠남과 버림을 금지함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단순한 규범이다. 죄 많은 세상에서는 신자의 혼인인 경우에도 갈라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혼인의 상황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남편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아내도 있다.

모든 목회자들은 혼인한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아주 어려운 어떤 순간에,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혼인이 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남편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화해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규범은 “나누지 말라”이다.

교회가 이 규범을 신실하게 설교하고 권징으로 강조할 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서로 싸우는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여 마침내 화해해야 한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몇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동조하여 분리의 문을 조금이라도 연다면, 그 결과 많은 남편과 아내가 이 대안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갈라놓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조차 아내가 남편을 잠시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마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는, 만약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그녀를 어떤 식으로든 위험하게 만든다면 남편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때 지킬 규범은 이것이다.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합하라”(고전 7:11). 바로 처음부터 아내는 재혼이 불가함을 알아야 한다. 이 규범이 고삐가 되어 남편을 떠나고자 하는 아내를 붙들어들 것이다. 물론 아내와 헤어지고자 하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또한 이미 떠나 있는 아내로 하여금 전 남편과 다시 합하도록 독려한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다른 사람과 재혼의 문을 연다면, 불행한 남편과 아내들이 이 문으로 달려들어 쉽게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을 굳게 닫는다.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화합하라.”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녀와 교회는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알고 올바른 곳으로 돌이키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 이혼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책임이 있다. 혼인이 분열 지경에 이르도록 교회에 도와달라고 요청 받지 않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도는 남편의 술주정이나 행패 때문에 믿는 여자가 남편을 떠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10-11절에서 사도가 주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주셨던 교훈을 단순히 반복한다는 점에서, 사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의 한 근거, 즉 “음행”을 염두에 둔다.

사도의 교훈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 떠나는 것은 실제적인 분리와 형식적인 이혼을 포함한다. 이것이 규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기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온당한 이유가

있다. “만일 갈릴지라도(11절 상반절). 주 예수님도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허락 하셨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만약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어 아내에게 신실치 못하다면 아내는 떠나도 좋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녀는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없다. 그녀가 내린 선택은 오직 “그냥 지내거나 전 남편과 화합하는 것”(고전 7:11)이다.

이 본문은 이혼과 무관한 흠 없는 당사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사도가 재혼을 금함을 보여주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본문이다.

불신자와 맺은 혼인생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는 배우자와 결별에 대해 답을 한 후, 12-14절에서 혼인 중에 있는 특별한 어려움을 다루기 시작한다. 이 특별한 경우는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 생활이다.¹²⁾ 바울은 12절에서 믿지 않는 여자를 둔 남자의 혼인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믿지 않는 남자를 둔 여자의 혼인에 대해서 말한다. 14절을 보면, 사도는 남자가 불신 남편이거나 여자가 불신 아내인 혼인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적인 죽음과 무지 상태에 있다.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와 불신자다. 우리가 이제 고려할 혼인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불신자인 혼인이다. 이 사람이 결국 버림받은 자로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버림받은 자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 적어도 그가 죽기까지는 알

수 없다. 오직 우리는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따름이다. 이는 그가 한 고백이나 가는 길을 통해서 안다. 그러므로 12절 “형제”, 즉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아내가 불신자임을 안다. 그녀가 고백했고, 또 불신의 길을 걷기 때문에 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는 마지막에 그녀가 구원받기를 소망한다(16절). 하지만 그는 그녀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르며 알 수도 없다. 그가 아는 것은 그녀가 불신자라는 것 뿐.

바울은 이 혼인에 대하여 뭔가 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이런 혼인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에게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고린도교회에서 한 사람은 신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인 혼인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단하다. 고린도교회는 불과 얼마 전에 세워졌다. 거기 사는 성도들이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온 것은 최근 일이다. 이 신자들이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진 것은 얼마 안 된 일이다. 회심 전에 그들은 혼인을 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배우자는 자신과 똑같은 불신자였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영적인 암흑과 죽음에 남아있었다. 반대로 아내가 회심하고 남편은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혼인한 신자들이 바울에게 울부짖었다. “우리가 한 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는 복음이 들어와 믿음을 갖고 나서 제 맘대로 불신자들과 혼인한 경우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본 장 39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된다. 바울은 신자라면 “오직 주안에서만” 혼인하라고 명한다. 고

린도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신자와 불신자 간 혼인이라는 어려움이 만일 불신자와 데이트하거나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였을 것이다. “글쎄, 이제 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실 권징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나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겪는 곤경은 그들 자신이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피할 수 없는 악이다.

이 어둠 세상에서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악에 걸려 넘어진다. 이 악은 한 평생 슬픔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와 법을 타락한 인간이 당한 왜곡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이 어둠고, 비열하고, 저주받은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죄의 교리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사람이 눈이 멀고 어리석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멈추시지 않는다. 신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곤혹스럽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길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의 의를 약화시키거나, 그의 법을 바꾸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풀기 어려운 혼인 문제에 대해 답해줄 때, 우리들 편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혼인 제도를 절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혼인 문제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질문에 우리는 확실히 동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믿는 신자에게 혼인은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한 집에서, 한 마루바닥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산다. 적어도 불화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공개적인 증오와 박해도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자에게 있다고 간주되

었다. 그 신자가 회심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두 사람 모두 불신과 우상 숭배를 할 때는 하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뀌었다. 그리스도가 그 식구 사이에 나눔의 검을 가져왔다. 그 이후, 반목의 긴장이 신자인 남편과 불신자인 아내의 모든 삶에서 느껴졌다. 그의 전 삶에서, 남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었고, 반대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바울이 한 언급에서 볼 때(신자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계속 사는 것이 죄가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 그 신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어. 그런데 무슨 교제가 있다는 거야? 혼인의 친밀성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불신앙적이고 사악한 아내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신자와 불신자의 교제가 신자를 썩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혼인의 역경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영적 교제는 혼인 안에 있는 부부간 교제의 중심이다. 아무리 좋아도,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은 신자에게는 문제의 삶, 가슴 아픈 삶이다. 이 문제를 당한 신자들이 이 혼인 문제 및 각자 소명에 대해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효한 혼인

바울이 한 답변은 이와 같은 혼인이라 할지라도 유효하고 참된 혼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그 신자에게 혼인의 유대 속에서 불신자와 함께

살라고 명한다. “그(신자인 남편)로 하여금 그녀(불신자인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 7:12). “그녀(신자인 아내)로 하여금 그 남편(불신자)을 버리지 말라”(13절). 이 명령에 대한 단순한 이유는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도 참된 혼인이라는 사실때문이다. 비록 그 남자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는 신자의 남편이다(13절). 비록 그 여자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녀는 신자의 아내이다(12절). 만약 그들이 참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함께 살라고 한 사도의 명령은 사악한 명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인한 사람들만이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이 창조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도 유효성을 갖는다. 우리는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상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혼인이 오직 은혜의 영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어야 진정한 혼인이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사람이 혼인의 이상을 이루거나 남편과 아내가 지닌 소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은 창조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어떤 유효한 혼인이 있을 수 있다.

오직 교회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제도가 몇 있다. 이 중 하나는 주의 만찬이다. 만약 세상의 불신자들 중 어떤 그룹이 성찬식을 베풀려고 한다면, 비록 외적인 것은 모두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닮았을지 몰라도 이들이 준비한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시도는 헛된 것이다.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성례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들이 있다. 시민 정부가

그 한 예다. 정부는 교회 밖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불신자는 왕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신자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해야 한다(롬 13:4). 비록 그가 불신자나 버림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므로, 자신이 수행할 직임을 성실히 다하고, 주님과 자신이 맡은 직임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한다.

혼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 구속된 교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전에 낙원에서 혼인 제도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은혜 밖에서 혼인하더라도 그들의 혼인은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유효하다. 만약 불신자들이 음행을 한다면 참된 혼인을 어겼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또한 진정한 혼인을 위해서 두 사람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통하여, 목사의 집례 하에 혼인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목사가 집례하는 신령한 예배 시간에 혼인을 하라고 강권하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유효한 혼인이 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혼인은 창조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혼인을 할 때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동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짝지으시고 한 몸을 만드신다. 이것은 두 사람이 혼인식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혼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혼인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짝지으시고 혼인시킨다. 똑같은 원리가 불신자가 정부의 공직을 맡을 때 적용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드셨다는 의식

이나 대통령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 직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명성, 권력, 부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악한 동기가 있다. 하지만 자신을 이 직분에 세워 권위로 옷 입혀 참으로 대통령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두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혼인 제도를 이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로 짝지으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들을 나눌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2-16절, 바울이 불신자와 혼인한 신자들에게 준 교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이 불신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혼인을 통하여 하나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신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 있더라도, 그들의 혼인은 유효하며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 비록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죽어서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혼인은 합당한 혼인이다.

그러나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기 때문이다. 혼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한 부분이 불신 배우자를 가진 신자를 향한 명령으로 주어졌다. 혼인을 유지하라! 불신 배우자와 살고 있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를 버리지 말라”이다. 이 명령 안에 든 기본적인 생각은 두 사람이 혼인을 했으며 혼인은 평생의 끈이라는 사실이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혼인에 대한 모든 교훈의 기본을 보여준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지만 이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 신자를 향한 독려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신자가 자신의 혼인을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할 때, 바울은 두 가지 고려 사항을 덧붙인다. 그 중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나와 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이 말을 통하여, 바울은 신자가 불신 아내를 통하여 자신이 더럽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룬다. 이 두려움은 이해가 간다. 보통 신자와 불신자가 교제 하면 신자가 더럽혀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과 교제하지 말 것을 항상 경고하셨다. 불신자와 혼인한 신자가,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그 혼인을 깨야만 하는지, 그냥 있어도 되는지 몹시 궁금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꾼다. 비록 대개의 경우에 신자와 불신자의 교제는 신자를 더럽히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 생활은 그 반대가 된다. 즉 불신자가 신자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불신자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오직 신자의 혼인 상대자라는 지위에서만 거룩하게 되었다.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은 불신자의 불결이 아니라 신자의 거룩이다. 물론 이것은 그 신자가 혼인 생활 동안 거룩함에 거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불신자가 믿는 아내와 연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런 특별한 거룩은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혼인한 아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는 인격이나 혼인 생활의 모

든 측면에서 신자가 불신자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언약의 자녀

혼인 관계를 맺은 신자와 불신자간 이뤄진 교제가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연합으로 생긴 자녀들의 거룩함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고전 7:14). 자녀의 거룩함은 불신자의 사악함이 아니라 신자의 거룩함이 혼인의 영적 특성을 결정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양친이 모두 믿는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 경우처럼,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믿는 가정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 믿음의 조성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 구속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다(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4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¹³⁾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세례를 받고 양육되어야 한다.

양친이 모두 믿는 가정 자녀라 해서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믿는 가정의 모든 자녀도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니다. 성경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다고 부르고 구원을 그들에게 약속할 때에, 성경은 신자의 선택된 자녀들을 지칭하여 유기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약속의 자녀들은 씨로 여김을 받는다”(롬 9:8).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와 혼인 생활을 하는 신자의 반열에도 그의 언약을 세우시고, 비록 부모 중 한 쪽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이것이 그 신자에게 불신자와 혼인 생활을 계속하라고 권하는 이유이다.

그 불신자의 구원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두 번째 동기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나와 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도는 성령이 신자의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불신 배우자를 구원할 가능성을 신자에게 열어둔다. 불신자가 신자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의미에서 거룩할 때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도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 생활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말한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베드로전서 3:1-2). 하나님이 신자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절대적인 보장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 신자가 죽는 날까지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항상 가지고 그와 함께 살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

저버림

그러나 불신자가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신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이 불신자를 노엽게 하고 그를 충동하여 떠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다룬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본문에서 이혼에 대한 또 다른 근거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여기에서 재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그들은 이 근거를 “고의적인 버림”(willful deser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15절에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어리석은 실수이다.

먼저, 우리는 신자가 결코 떠나거나 버림으로 불신자와의 혼인을 먼저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15절을 그런 식으로 읽어서 신자에게 불신자와 이혼하지 말라고 명하는 바울의 분명한 교훈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15절은 신자의 편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구절은 불신자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떠나는 것은 불신자이지 신자가 아니다. 신자가 할 일은 불신자가 떠나려고 할 때 동의하는 것뿐이다. “떠나게 하라.”

둘째,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새로운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매우 빈약하고 어리석다. 이 본문은 재혼은 고사하고 이혼에 대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다.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의도적 버림”이 이혼에 대한 근거라든지, 신자로 하여금 혼인의 끈을 끊고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좋다고 가르치는 곳은 없다. 반대로,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 근거, 즉 배우자가 저지른 음행만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마 5:32 ; 19:9). 만약 바울이 여기서 이혼에 대한 다른 근거를 덧붙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대하게 된다. 다른 곳에서,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성경은 오직 죽음만이 혼인의 끈을 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다시 혼인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3절 뿐만이 아니

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오는 바울이 주는 교훈이다. 만약 바울이 언급하는 15절의 그 버림이 혼인을 끊고 재혼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순이다.

불신자의 버림이 이혼에 대한 근거라는 것은 본문의 가르침이 아니다. 불신 배우자로 하여금 떠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그와 이혼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비록 그 본문이, 버림이 이혼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본문에는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어떠한 암시도 찾을 수 없다. 사도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여자에게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합하라”고 이미 가르쳤다. 그리고 39절에서 혼인한 사람들은 평생 묶여 있으며 오직 죽음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고 가르친다.

영적 화평

본문은 불신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사악하게 버릴 때, 그 아내의 영적 화평에 대해서만 말한다. “저로 떠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 감정 등 모든 측면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저마다 버려졌다는 사실과 우리의 혼인이 산산이 깨졌음을 인정하라. 우리는 더 이상 그 불신자를 억지로 되돌리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낼 필요가 없다. “저로 가게 하라.”

이 “가게 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속박 받을 것이 없느니라”(7:15)는 말이 설명해준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배우자에게 묶여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씀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허용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구속(being under bondage)”과 “묶임(bound)”을 혼동한다. 그들은 이 본문을 마치 “형제나 자매나 그의 배우자에게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다”고 읽는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을 담는다. 만약 그들이 같다면, 모든 혼인한 남자는 아내에게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에게 구속되어 있다. 묶임을 표현하는 헬라이어 단어는 “테오”이다. 이 단어는 39절에서 사도가,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묶여있다고 말할 때 사용한다. 구속에 대한 헬라이어 단어는 “톨로”라는 단어인데 15절에서 사용되었다. “형제나 자매나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 구속받으며 사는 것은 영적 노예 상태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책 속에서 살면 그는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도 묶여있다

비록 배우자가 그녀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둘은 여전히 혼인의 끈으로 묶여 있다. 이것이 바로 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악한 버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만약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경우에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불신자가 버리는 경우 신자는 구속에서 벗어난다. 즉,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음을 인하여 죄책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녀가 자신이 혼인한 여자로서 그녀의 남편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을 염려할 때, 그녀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구속받을 일이 없다”는 사도의 말씀이 뜻하는 것임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도록 부르셨느니라”¹⁴ 이 말씀은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과는 반대 생각을 기술한다. 만약 사도가 신자는 더 이상 버리는 배우자에 묶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할 권리를 주시느니라” 혹은 “그러나 이제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느니라”라고 썼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전혀 그와 같이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도록 부르셨다”고 쓴다. 비록 너희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 혼자 산다하더라도, 너희 합법적인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졌더라도 양심에 노예가 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풀이 죽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너희는 마음과 정신에 평화를 가지라. 하나님과 평화하라. 산산히 깨진 혼인 생활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평안히 이 땅의 삶을 대하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17절).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새 신자들에게는 이 말들이 비록 힘겹게 들릴지라도, 에베소서 5장 31-32절에 나타난 혼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상한 원칙은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성도에게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 혼인의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성도들에게도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믿는 남편이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아내는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남편을 떠나는 여자가 “나는 결혼 안하고 그냥 지낼 수 없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는 더 이상 저 불신자와는 함께 지낼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 심지어 불신 배우자가 자기를 버리더라도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사도가 명한 것이 그 성도에게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 지라도, 그가 맺은 혼인 생활에서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부르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전 7:17).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결코 충분한 은혜를 주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평화 속에서, “저로 행하게 하라.”

끊을 수 없는 혼인의 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19:9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를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19:3).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 상이한 의견이 있었다. 좀더 엄격한 학파는 오직 아내의 음행만이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좀 느슨한 학파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진 사소한 불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태운 것도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 자체가 이혼의 근거가 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느슨한 이 학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찾으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한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두 입장 중 하

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그 당시 널리 유행하였던 논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었다.

주님의 답변은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는 창세기 2장 18-25절에 나오는 본래의 혼인 제도에 근거하여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입장은 이혼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이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19:6).

이 답변에 놀라기는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버리라”고 명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를 명백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모세와 상충한다는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주목하였다. 모세는 이혼을 단지 목인 내지 허용하였을 뿐이다. 본래 하나님이 이혼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과 이혼에 대한 원래 교훈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세가 허용하는 것조차 옆으로 제쳐놓으신다. 그리고 비로소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자신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1-32절에 나온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측면이 아니다. 우리 관심은 이 본문에서 소개된 재혼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9절이 “다른 데 장가드는 자”라는 구

절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상대방이 음행을 하였다면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주 예수께서 전 배우자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음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한 편이 재혼함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다른 신약의 본문들도 살필 것이지만 이 본문만을 통해서도 재혼이 금지된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혼인은 끊을 수 없는 끈이다.

본문의 주제는 이혼이다

마태복음 19장 9절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해보자. 사람들은 보통 9절을 “재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신약의 다른 어떤 본문도 전 배우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재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 한 본문이 재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본문을 두고 일어난 대부분 토론은 재혼이 허용되느냐, 아니냐에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독자들은 본문이 재혼을 주로 다룬다는 전제하게 되고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본문 주제는 재혼이 아니라 이혼이다.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신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이다. 이것은 전체 본문 마지막인 9절에서도 기본적인 주제이다. 재혼이라는 주제는 단지 우연히 끼어들었을 뿐이다. 재혼이 전면에 나타나는 다른 본문들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 이 본문 핵심 주제는 이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이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이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기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19장 9절과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혼을 아주 엄중히 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이 이 금지 명령에 대한 예외 조항인 “음행의 연고 외에는”을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갖는 교훈, 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를 흐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람이 이 본문에 끼어들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면허증을 따려고 한다는 것은 이 교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목적과 얼마나 상반되는가? 우리의 영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타난 예수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혼인 제도를 경외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무흠자”(Innocent Party)는 재혼해도 되는가?

비록 우리가 본문의 중심 주제가 재혼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9절이 “과연 재혼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본문이 재혼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진정 뭐라 말씀하시는가? 음행의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 남자의 아내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신실하였다. 그가 그녀를 버리는 이유는 아마도 “정신적인 잔인함”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 남자가 재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내리신 제 7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는 남은 여생을 끊임없이 간음하면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재혼을 정죄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음행을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혼뿐만이 아니라 재혼도 가능하다고 유추한다. 그들은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였다면 주님이 그 남자에게 재혼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음행으로 아내에게 범죄 하였을 때, 아내에게도 재혼이 허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살아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음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로 아내를 버리는 남자는 비록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음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이 재혼을 언급하고, 재혼에 대한 말씀과 “음행의 연고 외에”라는 구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재혼의 가능성을 언급하신다. “음행의 연고 외에.” 그들은 “음행의 연고 외에”라는 구절이 재혼에 대한 말씀을 수식한다고 가정한다. 예수님이 “음행의 연고 외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이혼에 대한 한 근거를 제시하신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재혼을 허락하는 본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음행의 연고 외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데 장가드는” 말씀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예수님이 재혼에 대한 근거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9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면, 성경은 이혼에 대한 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혼에 대해서도 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 근거는 음행, 즉 다른 사람과 성 관계를 통해 저지르는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성경은 오직 “무흠자”에게만 재혼을 허락한다. 다른 어떤 재혼도 본 배우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금지된다. 그리고 이 다른 어떤 재혼은 죄다.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모든 사람은, “무흠자” 외에, 다 간음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 호소하여 재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태복음 19장 9절을 중심으로 교회가 신자에게 내릴 수 있는 관대한 해석 범위까지 나아간다.

그들은 “잘못이 없는 자” 뿐만 아니라 잘못이 있는 자에게도 재혼을 허용한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사악한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이혼뿐만이 아니라 재혼도 허용한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옳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좋다.”라고 답변한다. 재혼을 지지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이용한 이들의 호소는 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9절은 기껏해야 잘못이 없는 자에게만 재혼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잘못이 없는 자가 재혼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추론한 것이지,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음행의 연고 외에 어떤 이유로도 자기 본래 아내와 이혼한 후, 다시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진리가 때로는

어떤 본문 속에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살면서 실제적으로 겪을 재혼에 관한 무거운 교리를 단지 함의만 할 뿐인 본문에 알파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본문의 주 관심이 재혼이 아니라 이혼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것은 또한 이 본문에서 나온 그 유추가 재혼 가능성에 대한 주제가 전면에서 나오는 성경의 다른 명백한 증거와 상충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다른 곳에서 성경은 전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 있는 한, 재혼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며, 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혼하는 것은 어떠한 이혼 사유에 관계없이 간음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드러난 경고이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린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재혼 문제를 다루시고 재혼을 무조건적으로 금하신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은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매여 있지만 오직 그 남편이 죽을 때에만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의식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남자나 여자가 다시 혼인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다룬다. 그가 내린 대답은 이러하다. “오직 한 조건만이 가능한 데 그것은 배우자의 죽음이다.”

분명한 가르침이 로마서 7장 2-3절에도 나와 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혼인은 끊어질 수 없는 평생의 끈이다. 오직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에만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 재혼하는 여자는 간부(姦婦)다. 마가복음 10장 11-12절은 예수님이 재혼을 절대적이며, 거의 모든 경우 예외 없이 정죄함을 보여 준다. 이 구절이 나타나는 본문은 마태복음 19장과 평행을 이룬다. 마가복음 10장 11-12절에 따르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인 엄중한 교훈에 대해 예수님께는 좀더 사적으로 세밀하게 질문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로 이혼 문제를 다루어야 했던 반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대답에서 예수님은 재혼 문제에 좀더 집중하였던 것 같다. 재혼에 대한 그의 입장은 예외 없는 금지이다. 만약 마태복음 19장 9절이 재혼을 허락한다고 생각한다면 해도, 오직 이 본문만이 그렇

게 하라는 유일한 본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혼에 대한 이 허락을, 모든 재혼을 분명하게 금지한 신약의 다른 본문들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19:9이 배우자의 음행으로 인한 재혼할 권리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이 재혼에 대한 근거를 준다는 인상은 아마도 “음행의 연고 외에는”이라는 구절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절이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버리다”를 수식하는가 아니면 “재혼하다”를 수식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 구절이 “이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아니면 재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 주제가 이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합법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3절). 예수님은 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다(6절).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모세의 관용에 호소하여(7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혼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답을 하도록 다그쳤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마지막 답변에서(9절도 그 한 부분에 속한다), 8절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여전히 이혼에 관심을 가지신다.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음행의 연고 외에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혼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재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예수님이 재혼과 재혼의 사악함, 즉, 음행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대개 경우 남자가 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지 잘 아셨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뒤에 따라오는 악은 바로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악이다.

본문 첫째 부분은 아내가 음행한 남자의 재혼이 합법적인가 혹은 그

렇지 않은가에 대하여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다. 본문은 단지 음행의 연고 외에 어떠한 이혼도 금지되며 그러한 이혼에 뒤따르는 재혼도 죄라고 말할 뿐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제기되는 건 이해 간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할 경우, 즉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할 경우,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본문 첫 부분이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을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이 없는 자”도 재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9장 9절 둘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걸 살펴보아야 한다.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비록 음행의 연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이혼 당한 여자의 재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본문 첫째 부분에 따르면, 그녀는 부당하게 버림을 받았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은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다. 이 여자는 지금 음행 죄를 범한다. 불쌍한 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되는가? 잘못이 없는 자가 재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견해가 맞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YES”일 것이다. 그녀 남편이 음행을 하였고 더구나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해 버렸기 때문에 화해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이다. 잘못이 없는 자라도 재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재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교리와, 신약 본문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교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비록 이혼이 음행의 연고로 허용이 되었지만 재혼은 그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항상 금지된다.

재혼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의 혼인이 지니는 본질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혼인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끈이다. 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묶거나 풀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몸을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로 만드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죽음은 혼인을 포함한 모든 지상의 끈을 풀어 버린다. 본질상, 혼인은 평생동안 유효하다. 본질상, 혼인은 사람이 묶거나 풀 수 없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19:6).

심지어 음행도 이 혼인의 끈을 풀 수 없다. 음행은 한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때로는 두 사람이 따로 살아야만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 혼인에 대한 공격은 사람의 행위일 뿐이다. 이 행위가 이 끈을 끊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아내의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그에게 묶여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5, 6절) 예수님이 의도한 가장 심오한 뜻이다. 바리새인들은 혼인에 대하여 피상적인 개념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이 끈을 끊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 질문은 고작 사람이 중대한 이유든 아니면 사소한 이유든 이 끈을 끊을 수 있는가 였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듯 예수님은 혼인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셨다. 왜냐하면 그의 답변은 “이혼 금지”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혼인의 끈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이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한 몸은 하나님이 나누실 때까지 한 몸으로 남을 것이다.

값비싼 제자도

주님이 재혼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신자의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엄한 말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 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삽나이디” (10절). 어떤 이들은 평생동안 혼자 고독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면, 그는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은 혼인하지 않고 지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12절에서 말씀하신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 언급하듯,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떠나서 나머지 삶을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

오늘날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을 교회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속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내리신 가르침을 혼인에서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쉽게만 여긴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려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말만 하는 분이 돼 버린다.

그러나 제자도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교회는 결코 다른 메시지를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지라. 기꺼이 네 삶을 버려라. 네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 심지어 네 자신 삶조차도 미워하라.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가 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비용을 먼저 생각하라.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심이나 긍휼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으로도 느낄 수 있는 대 제사장이 계시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히 4:15, 16). 혼인에 대한 제자도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에게 그 길을 순종과 인내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물론, 그가 자신만의 힘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혼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고난의 문을 연 것이라는 제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마 19:11).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도다”(12절)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혼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것을 잃게 된 자들에게 넘치는 상을 약속하신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에서 그는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29절).

고귀한 소명에 따르는 특전

우리는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혼과 재혼에 대한 엄중한 금지는 교회를 억누르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혼인의 고귀한 소명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혼인과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우리는 혼인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그리고 그가 선택하신 교회 사이의 영원한 은혜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 혼인 제도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의해 이 언약은 깨질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에게 신실하시다. 그는 결코 신부를 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위안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소유한다. 사나 죽으나, 시간 안에서나 영원 속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분에게 신실하다. 그녀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분을 버리지 않는다. 지상에서 그녀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며 그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대로 그분을 경외한다. 역사를 통하여, 그녀는 신랑이 와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영원한 혼인생활을 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

혼인 생활을 하는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간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가! 교회 젊은이들은 혼인이 평생 끊지 못할 끈임을 알고 혼인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혼인은 쉽게 맺었다가 파기되는 단순한 일상적 약속이 아니다. 그들

은 누구와 혼인을 하고 어떻게 혼인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혼인해야 한다. 혼인한 성도들은 신실해야 한다. 재혼을 금지하고 제3자를 제외시킴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소명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신실할 것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만약 어떤 새로운 관계도 금지된다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길을 통해서만이 혼인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로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혼인이 있는 곳에 굳건한 가정과 부요한 가정 생활이 있다. 이것은 기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혼인을 가르치시면서 엄두한 것은 바로 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혼인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비록 우리가 저지른 언약함과 죄 때문에 항상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게 우리 바람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 혼인의 끈을 붙들고 계시고 그 붙드심에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가 혼인을 위하여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영광이 우리 혼인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혼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 갖다 놓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아내나 남편, 자녀, 교회, 혹은 사회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있다. 혼인에 대한 소명을 수행함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라. 그리하여 곧 도래할 참 혼인을 기대하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실재 앞에서 지상의 그림자는 사라지리라. 어린양과 "그를 위해 자신을 단장한" (계 19:7) 신부의 혼인 예식이 거행되리라!

헤르만 흑 제2부

Herman Heekeren

이 책 제1부에서 나는 혼인이라는 교리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혼인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다. 이 책을 5장 11절과 10장 12절 '대아 식마'와 관련된 문장을 찾아라. 그와 같은 부리는 모든 경우에 대한 이유이다. 혼인에서 사랑의 혼인에서 맺어질 것은 없는 자도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 만약 사랑이 없는 자는 혼인한 혼인이다.

시대별 각 교회가 본 혼인 교리

그러므로 혼인의 본질에 대한 자유는 오직 혼인드면서 7장 30절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혼인할 때에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에서만 할 것이다.



헤르만 호크스마가 바라본 혼인

Herman Hoeksema

이 책 제1부에서 나는 혼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평생 동안 지속되는 끈이라는 교리를 주장하였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만든 끈을 끊어야 하며, 끊을 수 있다. 이 말은 끈이 끊어진다는 의미에서 이혼은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음을 뜻한다. 마태복음 5장 31-32절과 19장 9절에서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은 “침대와 식탁”의 법적인 분리를 의미할 뿐 끈이 끊어짐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분리는 오직 음행, 즉 남편이나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심지어 음행의 연고로 인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혼인에서 맺어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혼을 할 때, “잘못이 없는 자”도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잘못이 없는 자가 재혼을 한다면, 그가 맺는 새로운 혼인 관계는 음탕한 혼인이다.

창세기 2장 18-25절에 나타난 혼인 제도에 따르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고 평생동안 서로 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혼인의 본질은 이혼 이후에 있을 모든 재혼을 금한다. 재혼에 대한 자유는 오직 혼인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혼인 교리는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확신은 아니다. 이것은 개혁 교회 중 한 교단이 가르치는 바다. 지난 40여년 동안 미국 개신 개혁 교회(Protestant Reformed Church in America: PRC)는 혼인과 재혼에 대하여 이같이 혼인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였다. 이 혼인 교리는 교회의 교리이다.

개신 개혁 교회는 개혁 신학자 헤르만 후스마에 의해 혼인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이해하게 되었다. 1956년에서 1957년까지 《기수》(Standard Bearer)라는 정기 간행물에서, 후스마는 “비성경적 이혼과 재혼(Unbiblical Divorce and Remarriage)”이라는 제목을 가진 일련의 사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혼인의 끈은 죽음을 제외하고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⁷⁾ 《기수》에서 이 소논문들이 나올 때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팜플렛에서, 후스마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자신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내 입장은 혼인의 끈이 평생 동안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입장은 한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이다 비록 이혼까지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은 이혼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여자가 성경적 이유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혼인 관계는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후스마는 이 팜플렛에서 《기수》에 있는 일련의 사설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적 은혜 위에 자신의 입장을 세웠다. 혼인의 깨어질 수 없

는 유대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혼인은 언약의 지상적 모형이기 때문이다. “혼인 관계는 하나님의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반영하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다.”¹⁹⁾

둘째, 그 토대가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있다. 후스마는 마태복음 19장 9절과 마가복음 10장 11-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8절과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지적하였다. 후스마에게 마태복음 19장 9절 하반절은 “무흠자”가 재혼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결정적인 구절이었다. 그리스도 말씀은,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였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남편이 부당하게 이혼하고 나서 사악하게도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그 아내의 재혼을 금하신다.

이것은 이 문제를 결론짓는다. 여기에 세 당사자, 아니 실제로 네 당사자가 있음을 주목하라. 그러나 둘째 아내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첫 번째 남편이 있다. 그녀는 음행을 하지 않았다. 고로 아무 잘못이 없다. 음행을 통해 혼인의 유대를 전혀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린다. 둘째, 그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다. 이제 둘째 당사자가인 다른 남자(여기서는 둘째 당사자를 말함)가 등장한다. 첫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 관계를 맺어도 되는가? 의외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음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둘째 당사자가 잘못이 없는 여자와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녀와 혼인하는 것도 음행이다. 왜 그런가? 왜 이 잘못이 없는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부르는가? 비록 첫째 남자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와 혼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평범한 진리이다.²⁰⁾

혹스마의 초기 견해

혹스마는 자기 입장이 사상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목회를 처음 하던 시기에 그는 그 당시 이미 개혁주의 전통에서 지배적이었던 견해를 무비평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였다. 그의 견해는 배우자가 음행을 하였다면 죄를 범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흠자에게 주어진 재혼의 권리(remarriage of the innocent party)”라고 알려졌다.

본인은 이 문제를 철저히 고려하지 않고 *기독교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이전의 입장, 즉 남자가 음행을 하였다면 그 아내는 그와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때, 나는 이 문제와 결정적으로 마주치진 않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고 나서야 나는 근본적으로 그 입장에 반대하게 되었다. 그 입장에 맞서서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혼인은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고, 평생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다.²¹⁾

1933년, 혹스마는 나중에 잘못됐다고 시인했지만 그 이전에 가진 자신의 신념을 《기수》(Standard Bearer)에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혹스마는 거기에서 마태복음 19장 9절이 말하는 의미에 대한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²²⁾

- 1) 고린도전서 7장 39절은 오직 죽음이 혼인을 깨뜨린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 2) 마태복음 19장 9절 예외구절은 만약 어떤 사람이 음행의 연고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무흠자는 이혼을 할 권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다.
- 3) 마태복음 19장 9절 예외구절은 오직 이혼 금지에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재혼에 대한 구절이라고도 보아야 한다.
- 4) “성경은 혼인의 끈을 끊는 것이 실지로 음행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심지어 그 때에도 혹스마가 마태복음 19장 9절 후반부가 남편이 부당하게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잘못이 없는 아내의 재혼을 금한다고 확신했다는 사실이다. 1933년에 혹스마는 혼인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성적 부정이 혼인의 끈을 끊어 버리고 무흠자에게 재혼의 권리를 준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혼 당한 아내나 남편(음행의 연고로) 편에서 볼 때, 뒤이은 재혼이 그들에게도 허락된다는 것은 부인하였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9절의 후반절에 근거하여 이것을 부인하였다.

이 본문에서는 간음뿐만 아니라 음행도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거명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음행이 없다면 둘은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하며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혼하는 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한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면 항상 음행을 범하게 된다. 심지어 비록 음행의 연고 없이 남편에게 이혼 당한 아무런 잘못 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그녀는 결코 혼인할 수 없다. 만약 그녀가 혼인을 한다면 간음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녀가 여전히 첫 남편과 연합되어 있다고 본다. 남편의 음행이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혹스마의 견해 : 1943년

성경을 더욱 주의 깊게 연구하게 되자 혹스마는 자기가 받아들였던 기존의 입장, 즉 “혼인의 끈이 한 경우에만 끊어질 수 있다”거나 “음행이 이 끈을 끊는다”, “상대방이 음행을 한 경우 무흠자가 재혼을 해도 된다”는 입장을 철회하였다.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리를 재고하는 일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950년 중반 마침내 혹스마는 이 전통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한 초기의 지지를 철회하였지만 그는 그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이 세운 초기 입장을 점점 해 왔다. 이것은 “올바른 개혁 교회의 신자가 성경적 근거로 이혼한 경우 재혼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혹스마가 한 사설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1933년 혹스마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지만 진작부터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다.

나는, 몇 년에 걸친 철저한 성경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점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확신을 점점 바꾸었다고 고백하여야만 한다.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개인적인 연구 없이 나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 즉 잘못이 없는, 이혼한 자가 다시 혼인해도 된다는 견해를 같이 했다.

이 견해는 대다수에 의해 채택된 표준이다. 이것은 이혼이 혼인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며, 그 결과 혼인한 두 당사자가 서로 자유롭게 되어 또 다른 혼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 견해에 따르지 않는다. 음행이 무흠자에게 잘못을 범한 자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으며 용서와 화해가 우선 요구되기는 한다. 혼인의 끈은 두 당사자가 살아 있는 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혼

한 두 당사자 중 누구도 다른 사람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혹스마가 이미 1943년에 이 입장을 취했으며, 1956년과 1957년에 이르러 좀더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견해와 단절하게 된 이유를 동일하게 밝혔다.

첫째, 나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혼인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시지 않는다. 그 백성이 그 언약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영적 간음을 범할 수 있지만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견고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주시지 않는다.

1943년에 음행이 혼인을 끈을 끊을 수 있으며, 무흠자가 재혼을 해도 된다는 견해를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문제를 다루는 신약 성경 구절 때문이었다. 혹스마는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8절을 언급하였다. 이 구절들은 모두 이혼 이후에 있는 모든 재혼을 강하게 정죄한다. 마태복음 19장 9절의 예외 구절에 대하여 혹스마는 이 구절이 오직 이혼에 대한 근거만을 제공하며, 재혼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9장 9절의 하반절(흠정역)은 예외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결정적이다. 비록 이혼한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비록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음행적 혼인 관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녀의 재혼을 금하신다.

만약 재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여자일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음행을 저지르며 살면서 그가 가지는 모

든 힘을 다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맺은 혼인의 꿈을 완전히 끊어 버렸다. 그리고 여전히 이 여자는 재혼을 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또 다른 혼인관계에 들어가더라도 누구든지 이 여자와 혼인하면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이 질문에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가능하다. 남편의 죄에도 불구하고, 또 그녀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 있는 남편과 항상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43년에 혹스마는 혼인한 두 당사자가 살아 있는 한 모든 재혼은 금지된다고 굳게 확신했다. 그 이유는 혼인이란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끊어질 수 있는 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대답은 이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나뉘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혼인의 끈이 끊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잘못이 있든 없든, 그들은 죽음이 자신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재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²³⁾

성경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확신했을 때, 자신의 주장이 개혁주의 전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을 표명했던 일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1943년 5월에 발행한 《기수》의 한 소논문에서 무흠자가 이혼 이후에도 재혼할 수 없다는 확신을 밝히면서 혹스마는 자신이 당회와 의견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가장 공통된 견해를 따라 무흠자가 재혼을 해도 된다는 관점을 언급하고 나서 혹스마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한다.

이것은 본인이 속한 당회의 대다수가 거둬들이며 채택한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속한 당회는 구체적인 사건(이혼과 재혼에 관한 사건)이 교인들 간에 발생할 때마다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²⁴⁾

혹스마가 교인들 중 유력한 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흠자에게 재혼이 허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혹스마의 사설들은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교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반발은 《기수》지에 발행된 그 교인들과 혹스마 사이에서 상호 서신 공방으로 나타났다. 이 논쟁은 마태복음 19장 9절 중 예외 구절, 즉 “음행의 연고 외에”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였다.

이혼 당한 여인은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은 혹스마에게겐 결정적이었다. 무흠자의 재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본문 후반부가 올바른 해석을 내리기 위해 중요하며 기본이 된다는 것을 혹스마는 자신이 쓴 편지 제목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이혼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이혼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또 말하겠는데, 이혼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²⁵⁾

혹스마의 견해 : 그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

혹스마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주석에서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제7계명을 다루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1 주일”을 설명할 때, 혹스마는 특별히 두 장, “혼인의 언약”, “이혼과 재혼”에서 참된 혼인을 다루었다. 그는 혼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평생의 연합이다. 이 연합은 본성의 공유, 생명의 공유, 사랑의 공유에 기초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관계를 반영한다. 이 연합은 더 나아가 언약의 씨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모든 혼인은 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혼인의 끈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깨어질 수 없듯이 혼인의 끈도 끊어질 수 없다. 오직 죽음만이 끊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평생의 연합이다.

혹스마는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성경이 허용한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혼인의 끈이 끊어졌으며 따라서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해도 된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는 성경적 이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성경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혼인한 사람들 사이에 음행이나 간음이 일어났을 경우를 말하는 “삶의 법적 분리”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혼에 대한 이 정의가 이혼한 사람들로 하여금 재혼하도록 하는 정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혼은 혼인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며, 이 끈이 끊어진 이후에는 이 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인한 사람들이 마치 혼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나는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나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은 혼인의 끈이 끊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나의 의견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혼인한 자들이다. 오직, 그들은 따로 사는 혼인한 자들일 뿐이다.

혹스마는 재혼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성경은 말하길, 거의 의심의 여지없이 혼인의 끈은 끊어질 수 없으며 오직 죽음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재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다.²⁶⁾

개혁주의 교회들이 음행에 물든 세상의 압력에 의해 자신들의 혼인 교리를 점점 느슨하게 하던 바로 그 당시(1955년)의 분위기를 잘 알았던 혹스마는 교리문답에 대한 자신이 쓴 주석에서 혼인의 참 교리를 발견하였다. 그 때 “땅의 법”에 대하여 혹스마가 발견한 것은 교회의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땅의 법들은 이 나라의 육적 욕정이 표출하는 야만적 충동 앞에 급격히 후퇴해 왔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혼인의 신성한 끈을 보호하지 않는다.²⁷⁾

이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이 영원한 은혜 언약을 반영하는 평생동안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고 가르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개신개혁교회(Protestant Reformed Churches)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한 혼인의 참 교리를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고백하고 실천해 왔다. 게다가, 혼인의 끊어질 수 없는 끈은 신자들의 위대한 참된 복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은 교회와 끊어질 수 없는 은혜 언약, 즉 지상의 혼인이 상징하는 참된 혼인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개혁주의 전통

혼인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끊어질 수 없다는 교리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유래한 개혁주의 전통은 비록 혼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에 비추어 볼 때 평생 동안 지속되는 끈이라 생각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혼인관계는 인간의 사악한 행위에 의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관계를 끊는 죄는 남편이나 아내의 성적인 부정이다. 마태복음 5장 31-32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음행은 혼인한 부부 중 한 사람의 음행이며, 이 음행은 혼인의 끈을 끊어 버릴 수 있고 실제로 끊어 버렸다. 잘못이 없는 자의 재혼을 허락한 반면, 음행한 자의 재혼은 금지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혼인을 깰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또 다른 경우는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신자를 버리는 것이다. 이 버림을 이혼과 재혼 모두를 합리화시키는 근거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에 토대를 둔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들은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매여 있지 않다”는 말과 동일시하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신자가 더 이상 버린 자에게 “매여” 있지 않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

느니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하나님이 버림당한 그 사람에게 재혼의 권리를 주셨다.” 재혼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버림”은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주신 근거인 음행에 바울이 이혼과 재혼의 근거를 하나 더 첨가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바울의 특권(Pauline Privilege)”이라고 불린다.

화란 개혁주의

그러나 모든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버림”을 재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본 것은 아니다. 1956년 이전 기독교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는 오랫동안 오직 음행만이 혼인의 끈을 끊으며, 이 경우 오직 잘못이 없는 자만이 재혼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진다. 1956년 이전 기독교개혁교회의 입장을 설명할 때, 셰이버(J. L. Shaver)는 “음행은 이혼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이유이다. 의도적인 별거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다.”²⁹⁾

1953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개혁주의 총회에 제출한 『혼인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ttee on 'marital problems')』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하여 기술한다.

음행의 경우는 아주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경우(종교적인 이유로 버림을 당하는 경우) 이혼이 재혼의 권리를 허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침실과 식탁의 분리만을 의미하는지 이 둘 중 한 견해를 채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다.³⁰⁾

남아프리카의 포츨스트룸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개혁 총회는 고린도

전서 7장 15절이 이혼 및 이혼 후의 재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견해를 거부하는 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이른바 악의적인 저버림에 대하여, 이 안전에 대한 미국 교회의 보고서가 선언했듯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저버림을 접한다. 너무나도 분명하도록 목회적 성격을 지니는 이 장 전체의 맥락에 주목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시대의 신자들이 직면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 일시적인 권면을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지하여 신자가 혼인을 깨는 것과 두 번째 혼인을 성사시키는 것을 금한다(고전 7:10, 11). 그리고 나서 바울은 혼인의 또 다른 유형, 즉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 관계를 구별한다. 우리는 여기서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나중에 신자가 된 이방인들의 혼인을 다루어야만 한다고 본다. 불신자가 저버리는 경우 신자가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소위 이혼에 대한 두 번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경우에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맥에 비추어서 판단해 볼 때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남자는 종교적인 갈등이나 미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저버렸고 바울은 신자인 아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혼인이 여기서 법적으로 깨어졌다는 7장 15절(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의 표현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함의하는가”라는 문제는 주석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사도가 이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혼인을 허용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³⁰⁾

화란 개혁파 전통에서, 명망 있는 주석가 호로썬이드(F. W.

Grosheide)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근거하여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유가 되기엔 무리라고 보았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해석하면서, 호로와이드는 “이혼이 허용되는 단 하나의 경우는 음행이며, 이것은 혼인의 끈을 실제적으로 풀어버린다. 예수는 이것을 유일한 이유라고 불렀다”³¹⁾고 했다.

또 그는 신자에 대한 불신자의 저버림이 혼인의 끈을 끊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버림받은 신자가 재혼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았다. 버림받은 신자가 “구속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 불신자가 떠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버림받은 신자의 “화평”은 그가 불신 배우자가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때, 훼방 받게 될 지도 모를 하나님과 이웃간 화평이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만(H. Bouwman)은 음행과 저버림을 재혼의 이유로 인정하는 화란개혁신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의 혼인 교리를 제출하였다. 부만은 고린도전서 7장 15에절 버림받은 신자가 다시 혼인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내야만 하는지 “결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부만은 혼인의 끈이 고의적인 저버림에 의하여 끊어졌으며, 버림받은 당사자는 다시 새 혼인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말하기를, 음행과 사악한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의 합법적 이유라는 입장은 거의 예외 없이 화란 개혁파 신학자들의 입장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다내우스(Danaeus), 주니우스(Junius), 에임스(Ames), 리베트(Rivet), 밴 마스트리히트(Van Mastricht) 그리고 브라켈(A. Brakel)이 이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하였다.³³⁾

화란 개혁 전통에서 음행과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의 두 이유는 부만의 분석과 화란 개혁파 윤리학자 호싱크(W. Geesink)의 입장은 서로 일치한다. 제 7계명을 설명하면서, 호싱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위정자는 오직 음행과 사악한 저버림에 근거하여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싱크는 이혼을 혼인의 해체(dissolution)로 이해하였다. 특히 그는 위정자가 이혼을 허락하는 “법적인 행위”는 단지 사악한 음행이나 저버림에 의해 이미 해체되고 만 혼인 생활이 정말로 해체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³⁴⁾

장로교

화란 개혁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개혁파 전통 중 장로교도, 혼인이 음행과 저버림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으며 “잘못이 없는 자”와 “버림을 받은 신자”가 재혼을 해도 된다고 본다. 존 머레이(John Murray)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자가 간음의 연고로 자기 아내를 버릴 때, 이 버림의 행위는 혼인의 끈을 풀어버리는 효과를 가지며 그 결과 그가 자유롭게 재혼을 해도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혼은 혼인을 해체시키며 두 당사자들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³⁵⁾

비록, 머레이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통해 불신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신자가 재혼을 해도 된다고 결론내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 결

론에 도달하고 가르치는데 매우 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저하였다. 머레이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구속받지 않는다”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 “신약 해석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들 중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그는 흠정역에서 “구속받지 않는다(is not under bondage)”로 번역된 이 단어가 혼인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다 더구나, 이 단어를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바울과 그리스도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9절이 재혼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재혼에 대한 오직 하나의 이유, 즉 남편이나 아내의 음행을 제시하였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이 이혼 이후의 재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배우자의 음행만을 재혼에 대한 유일한 이유로 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 하나의 이유를 첨가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머레이는 솔직하게 ‘ou dedoulootai (구속받을 것이 없다)’가 ‘끊어짐’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옹호하게 위해 강력하고 타당한 이론을 성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레이는 이 질문의 또 다른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논증들을 찾아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통해 혼인의 끈이 끊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견해를 얼마든지 옹호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³⁶⁾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 불신자에 의해 버림받은 신자가 재혼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로 다음에, 머레이는 장로교인들이 이 “바울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통탄하였다. 그 남용은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 불신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신앙고백을 하는 신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교회의 신자들도 이 “특권”에 호소하여 자신들이 행한 이혼과 재혼을 정당화시켰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고의에 의한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6절에 대해 머레이는 비판적이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지지할 수 없는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음으로써 이 고백서는 “여러 이유로 끊을 수 있는 자유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한 조건들에 의해 제한시킨 것”에 실패하였다.³⁷⁾

머레이의 비판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작성자들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비난한다. 만약, 머레이의 임시적인 입장이 그랬던 것처럼, 본문이 실제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본문은 오직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불신자에 의하여 버림을 받은 신자에게만 적용된다. 이 본문은, 신자인 아내가 자신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신자인 남편을 떠났다고 하여, 그 남편의 재혼을 허용하진 않는다. 또한 신자인 두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 더 이상 그들의 삶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 신자인 남편이 아내를 떠났을 때 신자가 재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이 경우에도 이혼과 재혼을 허용한다. “교회와 위정자가 전혀 치유할 수 없는 고의적인 저버림.” 장로교인들은 이 “개구멍”을 이용한다. 그 결과 장로교인들은 그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인정 하에 음행 속에서 살아간다. 남장로교의 다브니(Robert L. Dabney)가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하여 말한 장로교의 특징적인 입장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장로교

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혼인은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인정한다. 또한 음행과 저버림이 이 끈을 “없애버리는” 유일한 두 죄악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적으로는 평생 유효한 끈이 두 혼인 당사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 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음행했거나 상대방을 버린 배우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장로교는 설명하려고 한다.

신약시대에서, 합법적 이혼은 오직 두 이유, 즉 음행과 영구적 저버림 때문에만 가능하다. 마태복음 19장 9절, 32절과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라.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본다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연합이다. 그리고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흠 없이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편의 극악한 범죄나 계약 위반은 이 끈을 없애버리고 그 결과 범죄자는 상대방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음행과 고의적이고 최종적인 저버림은 절대로 혼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경우 잘못이 없는 쪽은 혼인의 끈이 이미 파괴되었으며, 상대방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독신자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나라들은 이혼에 대한 사소한 이유들을 덧붙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순결에 대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법령들은 이러한 비성경적 이혼 사유들을 용납하거나 이것에 근거한 가짜 이혼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³⁸⁾

존 오웬(John Owen)은 옛 장로교인들과 청교도들의 입장을 말하였다.

음행은 이혼에 대한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혼은 혼인의 끈(vinculi matrimonialis)을 끊어 버리며 혼인관계를 제거하여 무혼자가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혼인할 자유를 가진다.

소위 “바울의 특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 바울은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버림받은 편이 다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기독교가 그러한 경우 인간의 자연적 권리와 특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³⁹⁾

음행과 저버림을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합법적 사유로 보며, 더불어 혼인을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계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장로교인들의 신조처럼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과 같은 개혁신조들과는 달리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해 언급한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호소하여, 웨스트민스터는 무혼자의 재혼을 인정한다.

이혼 후 음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음행한 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혼자가 이혼을 시도하는 것과, 이혼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근거하여, 웨스트민스터는 버림받은 신자의 재혼도 인정한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 여러 논쟁들을 연구하여 온당치 못하게 하나님 이 혼인을 통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눈다 하더라도, 오직 음행과, 교회와 위정자가 전혀 치유할 수 없는 고의적 저버림만이 혼인의 끈을 끊어 버릴 수 있다.⁴⁰⁾

“연합의 세 형식(“Three Forms of Unity”):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고백서, 도르트신경을 말함 - 역자주)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혼 이후의 재혼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서명한 교회와 혼인이 끊어질 수 없다고 절실하게 주장하는 교회 간 충돌로 온전한 교회 연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전자의 교회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는 후자의 교회에서 열리는 주의 식탁에 참석할 수 없다.

이혼 이후의 재혼을 불허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장로교 직분자들은 24장 5, 6절에 나오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이 신앙고백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저버림이 혼인을 끊어버리는지 혹은 이 같은 교리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저명한 장로교도들이 있어 왔다. 장로교 신학자 로버트 쇼(Robert Shaw)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주석하면서 이 점을 인정하였다.

음행은 범죄한 편을 죽은 사람처럼 간주하므로 무흠자가 이혼을 추구하는 것과, 이혼 이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함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 편의 고의적이고 집요한 저버림이 다른 편에게 다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⁴¹⁾

쇼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근거하여 저버림이 혼인의 끈을 끊는다고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드와이트박사를 언급한다.

쇼는 저버림에 대한 고백서의 교리를 옹호하는데 대단히 주저한다.

15절에서 사도는 버림을 당한 자가 혼인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듯 보인다”(appear). 그리고 이 결정이 옳다고 “보인다”(seem). 무흠자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리에 맞지”(reasonable) 않다.

쇼는 음행과 저버림이 혼인의 끈을 끊기 때문에 재혼에 대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했던 이 논쟁의 한 측면에 주목하였다.

사실, 음행이 혼인의 끈을 끊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도 없다. 혼인 서약의 위반은 오직 피해자에게 혼인의 해체를 관제 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뿐이다. 만약 그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원한다면, 이혼은 “공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⁴²⁾

음행이나 저버림이 혼인의 끈을 끊는 것이 아니다. 혼인한 당사자들은 혼인의 끈을 끊을 권리가 없다. 누가 혼인의 끈을 끊을 수 있으며, 이혼한 사람이 재혼할 수 있게 할 권리를 가지는가? 로버트 쇼에 의하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혼인의 끈을 끊는 것은 정부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혼인한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종교개혁가들

음행이 이혼 이후의 재혼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 분명하며 저버림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는 개혁주의의 아버지 존

칼빈(John Calvin)을 통해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지배적인 입장이 되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주석할 때 칼빈은 음행한 남편이나 아내가 혼인을 깨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의 약속은 주께서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권세가 사람에게에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흠없는 아내나 남편에게 자유를 준다. 그 사람은 이제 재혼할 자유가 있다. 칼빈은 이 본문 하반절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자니라”를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난하였다.

이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독신으로 살라고 명령하였다. 그렇다면 만약 한 남편이 음행한 아내를 버린더라도 둘 다 독신으로 남아야 한다. 마치 이혼의 자유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무절제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셨다는 것과 같다.⁴³⁾

칼빈은 고린도전서 7장 15정에 묘사된 내용이 불신자가 신자인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을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첫째 되고 으뜸 되는 끈이 단순히 헐렁해졌을 뿐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⁴⁴⁾ 그러므로 칼빈의 판단에 따르면 음행뿐만이 아니라 저버림도 혼인의 끈을 끊어 버리며 그 결과 버림받은 신자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혼인,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칼빈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제네바 혼인 법령은 음행으로 인한 재혼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버림 받은 사람들의 재혼도 인정하였다. 음행의 연고로 인한 재혼을

다루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만약 남편이 그의 아내를 음행하였다고 고소하고, 다른 증인 및 여러 증거가 아내의 음행을 충분히 입증하며, 남편이 이혼을 통해서 아내와 분리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재혼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⁴⁵⁾

몇 가지 법령들은 여러 형태로 저버림을 다루었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만약 버림을 당할 행동을 남편에게 전혀 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비난받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면,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고 일년을 꼬박 기다렸다면, 그 일년이 다 찾을 때 그녀는 당회 앞에 올 수 있다. 만약 그때 그녀가 혼인할 필요가 분명하다면 그녀를 시의회로 보낼 것이다. 이후 앞에서 언급된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 시행될 것이며 그녀는 재혼할 자유를 갖는다.⁴⁶⁾

저버림을 재혼의 근거로 다루는 제네바 법령들이 저버림을 “방탕”(debauchery)과 연결시킨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혼에 대해 행정적으로 연구를 했던 로데릭 필립(Roderick Phillips)은 비록 칼빈이 저버림을 이혼과 재혼에 대한 둘째 사유로 간주하였지만 칼빈은 저버림이 필연적으로 저버린 자의 음행과 관련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칼빈은 음행만을 재혼에 대한 유일한 사유로 인정하였다.⁴⁷⁾

음행과 저버림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유가 된다는 칼빈의 견해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일치한다. 이미 1520년 “교회의 바빌론

유수(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에서 루터는 비록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재혼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해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혼을 오직 성적 부정의 이유에 한하여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교황은 이와 다른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허용할 때마다 잘못을 범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혼을 통하여 아내와 나뉜 남편에게 독신으로 남으라고 강요하고 재혼을 허용하지 않는지 정말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정한 사유로 인한 이혼을 허용하셨고 어느 누구도 독신으로 남아있기를 강요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라고 권하였다면(고전 7:9),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남자가 버린 여자 대신에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인다. 사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혼자 어떤 규칙도 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린도전서 7장 15절의 구절이 여기에 적용돼야 한다고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서 사도는 떠나는 불신자를 버릴 수 있다고 허락하였으며, 믿는 배우자가 다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⁴⁸⁾

1523년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주석하며 루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여기에서 사도는, 불신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헤어지려 한다면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믿는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과 혼인할 권리를 줌으로써 그를 얽매임에서 풀어준다.⁴⁹⁾

1531년 한 마태복음 5장 31-32절 설교에서 루터는 상대방의 음행으로 인해 이혼한 사람의 재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한 남자와 여자간에 이뤄지는 이혼과 재혼을 허용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가?”

답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이유, “음행”을 제시하셨다.

루터가 재혼의 권리에 대하여 제시한 근거는, 이 개혁가가 실제 오직 죽음만이 혼인의 끈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

그(그리스도)는 음행을 죽음으로써 별하는 모세법에 근거하여 이것(이혼과 재혼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 사유로서의 음행)을 인용한다. 혼인을 깨는 것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죽음이기 때문에 음행한 자는 이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혼 당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삶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음행을 통해 자기 아내와 이혼하였고 혼인을 깨뜨렸다. 그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할 권리가 없다. 비록 판사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였다.⁵⁰⁾

음행이나 저버림에 근거하여 이혼 이후 있을 재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인 개혁주의의 이 전통이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개혁주의 전통은 혼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평생 동안 끊어질 수 없는 끈임을 부인하였다. 개혁주의 전통의 입장은 혼인이 인간들의 단순한 계약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혼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남자나 여자의 죄된 행위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것이다.

음행이나 저버림이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 “개신교 정통”이며 종교개혁자들은 나눌 수 없는 혼인의 교리를 거부하였다고 필립은 올바르게 지적하였다.⁵¹⁾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검증

그러나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이 끊어질 수 없는 혼인의 교리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변함없이 반대하였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착오이다. 개혁주의 전통은 앞에서 기술한 기본적 스케치보다 더 느슨한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첫째, 재혼을 인정하고 혼인을 평생의 끈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개혁자들은 혼인이 성례라는 로마 카톨릭교의 교리에 항거한다. 혼인을 성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았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 “비밀”은 “성례”가 아니다. 주의 만찬과는 달리, 혼인은 은혜의 수단이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지 교회의 질서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개혁자들의 대응 방식은 틀렸다.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하더라도, 혼인이 성례라는 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혼인이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단순하다. 창세기 2장 18-25절의 혼인 제도에서 시작한 성경은 혼인의 본질이 평생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은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고 가르친다. 혼인이 평생의 끈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은 혼인이 성례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해답은 올바르게 해석된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본문들은 마 19:9, 막 10:11, 눅 16:18, 롬 7:2-3, 고전 7:39, 엡 5:32이다.

이 본문들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최근 두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혼인과 이혼에 대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Erasmus)의 해석을 받아들였다고 비난하였다. 이 본문들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해석을 받아들임으로 개혁자들은 깨어질 수 있는 계약으로서 혼인 교리를 개혁교회에 도입하였다.

이혼 본문에 대한 초대 기독교의 해석은 에라스무스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개신교 신학자들이 받아들인 16세기까지 서방 교회의 규범적인 견해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이혼 본문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해석에 달라붙어서 그의 문장들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이 해석을 옹호하였다.⁵²⁾

셋째, 종교개혁자들은 비록 혼인이 음행이나 저버림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지만, 이상적인 혼인은 영구적인 끈으로 보기 원했음은 분명하다. 흠 없는 자와 버림당한 신자에게 이혼 이후의 재혼을 허락한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서, 루터는 이혼이 혼인을 깨뜨리는 것이라 보는 것에 강한 의문을 품고 반대하였다.

이혼의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나는 이혼을 심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혼보다 일부이치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나는 감히 결정할 수 없다.⁵³⁾

이것은 헤세의 필립(Philip of Hesse)에게 이혼 당하고 재혼하기보다는 아무도 모르게 둘째 아내를 취하라는 그 악명 높은 충고의 예고판이었다. 이 충고는 기독교 세계를 스캔들로 몰아넣었다. 비록 비참

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충고는 이혼에 대한 루터의 반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마태복음 5장 31-32절의 설교에서 루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혼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혼을 했다면 독신으로 지낼 것을 명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으로 보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서 혼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스도가 명한 하나의 규칙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마 19:6).⁵⁴⁾

마태복음 19장 3-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혼인의 신성하고 끊을 수 없는 끈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법이 세워졌다는 사실"⁵⁵⁾이라고 칼빈은 보았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율법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 나눌 수 없다고 선포한다"고 말하였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은 한 여인이 한 남편에게 평생동안 매이며 남편이 죽을 때에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⁵⁶⁾고 하였다. 에베소서 5장 31-33절에 대한 설교에서 칼빈은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남자와 아내를 어떻게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으셨는지를 본다"고 설교하였다.

필립이 "종교개혁가들은 카톨릭의 혼인 교리에 대한 몇몇 중요한 요소들을 거절할 때보다 훨씬 더 주저하면서 혼인의 부단성(不斷性)의 교리를 거부하였다"⁵⁷⁾고 말하였을 때, 그는 개혁자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였다.

음행과 저버림이 사실상 혼인의 끈을 끊어버린다고 인정하면서도 혼인이 끊을 수 없는 끈이라고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종교개혁 전통은 종교개혁가들의 주저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혼인이 본질상 나눌 수 없다"는 성경의 "일반적 규칙"에 대해 말하였다.⁵⁸⁾ 크싱크(Geesink)도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끊어질 수 없는 (onlosmakelijke verbintenis) 끈"이라고 정의했다.⁵⁹⁾ 제 4개혁 에큐메니칼 총회는 위원 회로부터 혼인이 "하나님께서 배타적(일부일처제)이며, 영구적(평생 동안)이며, 이성간(성적인 면에서)에, 사랑의 교제가 되도록 정하신 신성한 관계"라는 보고를 받아들였다. 또 계속해서 "혼인의 끈이 본질상 깨어질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⁶⁰⁾ 개혁과 전통의 어떤 대표자들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존 머레이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의 첫 페이지에서 강한 어조로 "혼인의 끈은 본래 그리고 이상적으로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⁶¹⁾

종교개혁 전통이 혼인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좀더 신중하게만 받아들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종교개혁 전통이 끊어질 수 없는 혼인의 끈이라는 교리에 느슨한 입장을 취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오직 죽음만이 이 끈을 끊을 수 있다는 성경의 너무나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과 이후의 전통은 음행한 자와 저버린 자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간주되어야 하며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론에 호소하였다.

어머머한 일이 음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음행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 음행은 살아있는 남자나 여자를 사실상, 영적으로가 아닌 물리적으로 죽게 만들고 살아 남은 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음행한 자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가 사형에 처하여지지 않는다면, 혹은 자연적으로 죽지 않는다면, 단순하고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너무도 분명한 증거는 오직 죽음만이 혼인한 자로 하여금 다시 혼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⁶²⁾ 본래 혼인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혼하는 사람은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⁶³⁾ 하나님은 혼인의 끈으로 짝지으시고, 그가 만드신 끈을 죽음을 통해서 나누신다.

음행이 혼인을 나눈다는 어설픈 이론(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재혼에 대하여 가르칠 때 기본적인 개념이었다)은 은혜의 복음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한 동안 혹은 한 번 이상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 비록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다시 침실로 돌아오도록 시도하는 게 허용된다. 이것은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내인 교회를 다루실 때 보여주시 영광스런 모범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음행이 참 혼인인 은혜 언약을 깨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구원에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음행이 혼인을 깨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만약 음행이 이 끈을 끊어버린다면 음행한 자와 다시 화해하여 혼인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개혁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끈은 실제 음행한 상대방으로부터 죄를 당한 남편이나 아내의 결정에 의하여 끊어진다. 만약 무흠자가 혼인이 깨어지기를 원한다면, 죄를 범한 상대방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정부의 협조를 받아 혼인을 깨뜨린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의 의지가 깨뜨린다. 인간 의지의 힘에 대한 이와 같은 교리는 펠라기안적인 에라스무스의

신학과 조화를 이루지만 종교개혁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과는 맹렬히 충돌한다.

여기서 요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든 음행을 했을 때 아무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배우자가 음행을 범했을 때 혼인을 심각하게 훼손한 그 사람과 이혼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는 은혜로우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하게 된다.

요점은 음행 자체가 혼인을 깨뜨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행에는 그와 같은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끈은 음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된다. 교회의 수많은 음행에도 불구하고 이 끈은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음행을 재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이전의 혼인을 깨뜨렸는지 밝혀내야 한다.

성경은 오직 죽음만이 혼인의 끈을 끊으며, 이 결과 혼인한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롬 7:2, 3 ; 고전 7:39).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진짜 죽음, 이 생을 마감하고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을 말한다. 만약 개혁 전통이 오직 죽음만이 혼인을 깨뜨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스꽝스런 가짜 죽음을 거부한다면 무흠자의 재혼을 포함한 이혼 이후 일어날 모든 재혼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음행과 저버림에 의하여 혼인이 깨어지고 이 때문에 재혼이 정당하다고 보았던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전통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거부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

이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성경이 전통을 검증하고 정죄하고 정화시킨다. 개혁교회의 신자가 자신의 전통 중 어떤 부분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거부하는 것은 개혁 신조 자체의 주장이 기도 하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았음을 믿으며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간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방식이 그 속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록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책을 신성한 성경과 비교해서는 안 되며, 관습이나 다수(多數), 고전, 시대나 인간의 전승, 공의회, 법령, 규범을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며 헛되고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오류에 빠질 수 없는 이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⁶⁴⁾

음행과 저버림이 혼인의 끈을 끊는다는 가르침은 “오류에 빠질 수 없는 이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전통은 혼인,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본문, 특히 마태복음 19장 9절과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 오류는 엄청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혼인의 영예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사악한 의지나 행위가 혼인을 깨뜨릴 수 있다는 그들의 견해는 개신교 전반에 걸쳐 가정과 혼인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그들이 가르친 교리의 실제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산 당시에 이미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호소하여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도인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제네바로 피난 왔던, 이탈리아 난민 갈리아쥬 카라치올로(Galeazzo Caracciolo)의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였다. 개혁 신앙으로 개종한 이 사람의 이혼과 재혼을 인정한 근거는 오직 그의 아내가 로마 카톨릭교에 남기로 결심하여 자신의 남편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었다. 사실 본문이 어느 누구의 이혼과 재혼을 정당화하지 않다는 견해를 떠나서, 이 경우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호소함으로써 칼빈은 본문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제 본문은 불신자, 사실은 비 개신교도에 대한 신자의 저버림에 근거한 신자의 이혼과 재혼을 정당화시킨다. 이 혼인에 대한 해석학적 속임수들은 종종 스캔들을 일으켰다. 카라치올로의 경우에 대하여, 로버트 킹든(Robert M. Kingdo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시기에 카톨릭 논쟁가들은 사람들이 오직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성적 파트너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개신교로 전향하여 제네바와 같은 곳으로 피한다고 자주 주장하였다.⁶⁵⁾

개신교 지도자들이 비록 꺼려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종교개혁가들이 사는 동안에도 이혼이 잘못을 행한자의 재혼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불길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비록 루터와 칼빈은 재혼의 권리를 무흠자에 한정시키려고 하였지만 이것은 금방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⁶⁶⁾

종교개혁 연구가 로버트 킹튼은 "20세기에 일어나는 이혼의 폭발적 증가는 16세기의 개신교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올바르게 지적하였다. 제네바 당회는 이 폭발을 점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⁶⁷⁾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은 오늘날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교회에서 수치스러운 정도로 이혼과 재혼의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을 그토록 경악하게 하였던 로마교가 저지른 혼인에 대한 범죄를 능가한다. 혼인과 이혼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걸림돌이다. 개신교도들은 이것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그들은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다시 세밀히 살펴야 한다.

이혼과 저버림이 혼인의 끈을 끊어버리며 재혼이 허용된다는 생각을 지지하면서 개혁주의 전통은 자신을 기독교 전통과 단절시켰다. 왜냐하면 사도시대 이후 근 1000년 동안 서방 교회는 사실상 한 목소리로 혼인은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공교회의 합의

(The Catholic Consensus)

비록 혼인의 교리가 헤르만 혹스마가 개혁주의 전통과 결별하였고 하더라도, 개혁주의 전통은 부분적으로 기독교 전통과 훨씬 더 근본적으로 단절하였다. 사도 시대 이후 약 400년 동안 공교회는 혼인의 끈이 끊어질 수 없다고 가르쳤다. 배우자의 음행의 연고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에서 이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재혼은 금지되었다. 심지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지만 이혼 당한 자도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이후에 동방교회는 혼인의 교리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이혼과 재혼은 허용하였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비록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혼인 교리를 바라보는 종교개혁가들은 사도시대 이후 약 1000년 동안 주장되었던 공교회적 합의와 결별하였다.⁶⁸⁾ 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은 초대교회의 교리와 실천, 특히 어거스틴의 교리로 돌아가자던 자신들의 표준을 명백히 어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헤르만 혹스마가 개혁주의 전통을 떠난 것은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교부들과 속사도 교회의 기독교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부들의 교리

마지막 사도가 죽고 난 직후, 허마(Hermas)는 혼인의 본질이 평생 동안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고 증거하였다. 허마의 《목자》는 주후 75

년에서 늦어도 2세기 상반기에 작성되었다고 본다. 예수와 사도들이 혼인과 재혼에 대하여 가르친 교훈을 최초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허마가 보여준다는 생각은 일리가 있다. 천사와 이루어진 상상 속 대화에서, 허마는 비록 혼인 배우자의 음행으로 인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 이후의 재혼이 신자에게 금지된다고 가르쳤다.

나는 말하였다. “주님, 만약 주님을 믿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음행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남자가 그녀와 계속 함께 사는 것이 죄가 됩니까?” 그는 말하였다. “그 남자가 모르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죄를 발견하고 그 여자가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 남자가 계속 그 여자와 함께 살 때, 그는 그 여자의 죄책을 함께하게 되며 그녀의 음행에 참여하게 된다.” 나는 말하였다. “만약 그 여자가 계속 욕망에 빠져있기를 고집한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말하였다. “그는 그 여자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혼자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녀를 버린 후에 다른 여자와 혼인한다면 간음하는 것이다.”⁶⁹⁾

2세기 말에 글을 썼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경은 혼인을 권면하지만 연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명령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편이 혼인하는 것은 음행으로 간주된다.⁷⁰⁾

오스카 왓킨스(Oscar D. Watkins)는 클레멘트가 “무흠한 남편이 음행한 아내를 버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혼을 금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⁷¹⁾ 왓킨스는 “클레멘트의 견해에 의하면, 자신이 이해한 대로 사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재혼을 금하였다고 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리겐도 같은 말을 한다. 마태복음 19장을 설명할 때,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전 남편이 여전히 살아 있는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허용했음을 알고, 오리겐은 “이과 같은 행위가 성경과 전통적 규범과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마태복음 19장 19절의 예외 조항을 해석할 때조차, 오리겐은 이 예외 조항에서 재혼에 대한 정당성을 찾지 못하였다. 대신 그는 재혼은 모세가 옛 언약 하에서 이혼을 허락하였듯이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타협이라고 말한다.

교부 터툴리안에 이르게 되면, 무흠자의 재혼을 포함한 이혼 이후 일어날 재혼을 성경이 금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다.⁷²⁾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셨다.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린 자가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당연히 간음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혼한 여자는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혼인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음행이란 혼인을 훼방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행동은 음행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인간의 잣대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것이다. 혼인이나 혼외 정사나 상관없이 둘째 남자를 성적으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음행으로 선언하신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혼인의 본질이 하나님이 정하신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혼인이 무엇인지 바라보자. 그 결과 우리는 또한 음행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혼인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이 되게” 할 때, 그 둘이 같은 몸 안에서 연합된 것을 보시고, 자신의 인으로 그 결합을 보증하신다. 음행은 이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둘이 분리되어, 다른 몸이 둘 중의 하나와 섞이는 것이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이 다른 육체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단번에 이루어진 이 몸은 “다른” 몸에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⁷³⁾

터툴리안이 혼인의 결합을 죽음 이후에도 확장시켜 과부라도 다시 혼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이것은 혼인이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는 성경의 교리에 대한 터툴리안의 기본적 이해가 잘못 적용된 것이다.⁷⁴⁾

왓킨스는 터툴리안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는 주님이 음행의 연고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르시온(Marcion)을 언급하면서 남편은 음행 하는 아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죄에 동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버릴 자유도 있다고 본다. 그는 음행을 혼인 이후의 음행, 즉 “혼인 상태에 대한 범죄”라고 이해한다. 그는 헤어진 두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재혼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재혼이 이와 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았다고 생각하였다.⁷⁵⁾

어거스틴은 혼인에 대해 쓴 두 논문, 《혼인의 선함》(The Good of Marriage, 주후 401)과 《음란한 혼인》(Adulterous Marriage, 주후 419)을 썼다. 《혼인의 선함》에서, 어거스틴은 혼인을 평생 동안 끊을

수 없는 끈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혼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성경은 이 연합을 매우 강조하여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다시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가 떠나간 그녀가 죽지 않는 한 다시 혼인해서는 안 된다.⁷⁶⁾

마태복음 5장 32절에 따라 음행한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어거스틴은 “그녀가 버림을 당한 후에 다른 이와 혼인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0, 11절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나더라도 그냥 지내든지 자신의 남편과 화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남편의 음행 이외에 다른 이유로 남편을 버리고 홀로 지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음행하지도 않은 남편을 버리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음행한 남편을 떠날 때 다른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음행한 아내를 떠날 때도 다른 여자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⁷⁷⁾

어거스틴의 이 글은 무흠자의 재혼을 분명히 금하였다는 사실이나 고린도전서 7장 10, 11절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1, 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남편의 간음이나 음행에 근거한 아내의 떠남 혹은 이혼을 인정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도 매우 중요하다. 어거스틴이 설명하듯, 고린도전서 7장 11절은 무흠자가 재혼하는 것을 금

지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오직 죽음이 혼인의 끈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모든 재혼은 처음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음행이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하나님의 도시(즉, 교회)에 들어오고 나면, 두 사람이 처음 연합하는 순간부터 혼인은 일종의 성스런 끈을 형성하는데, 이 끈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죽는 것 이외에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만약 그들이 “다른 이들과 연합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연합하는 자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혼인한 자들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⁷⁶⁾

《음란한 혼인》에서 주요 주제는 “무혼자가 재혼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전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대한 주석에서 어거스틴은 “음행의 연고 외에”라는 예외 조항을 혼인한 자들의 별거라는 의미에서 이혼에 대한 근거로만 설명하였다. 어거스틴은 “음행의 연고 외에”라는 말이 무혼자의 재혼을 허용한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음행하는 것이니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그녀와 혼인하는 남자가 음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혼인하는 여자도 음행을 하는 것인지 물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화합하라는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경우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동의하에 성 관계를 가질 때, 한 사람은 음행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한(비록 그녀가 남편을 버린 것 아니라 버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여자와 혼인하는 것이 음행이라면 그녀 또한 그로 하여금 음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 또한 주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녀가 버림을 당했든지 아니면 남편을 버렸든지, 그녀는 그냥 지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야 한다.”⁷⁹⁾

여기에 기술된 어거스틴의 논증은 마태복음 19장을 무혼자의 재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대한 강한 반박이다. 이 본문의 하반절에 나오는 여자는 잘못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녀가 재혼하는 것을 금하신다.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무혼자와 혼인하는 남자도 간음하게 된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 혼자 음행을 할 수 없다. 교부가 말하듯이, 적어도 그 무혼한 여자가 자신과 혼인하는 남자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 또한 금지된다.⁸⁰⁾

폴렌티우스(Pollentius)라는 사람은 무혼자가 재혼할 수 있다고 논증하면서 이 해석에 도전하였다. 《음란한 혼인》은 이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변이다.

재혼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가르침과 고린도전서 7장 10, 11절에 나온 사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19장 9절이 무혼자의 재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내의 부도덕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남편이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적 부도덕 때문에 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자들에게도 음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적 부도덕 때문에 버림을 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가 “음행”의 범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가 음행자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⁸¹⁾

무흠자의 재혼뿐만 아니라 흠이 있는 자의 재혼도 음행이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내가 성적 부도덕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도 음행자라고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성적 부도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변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전자가 후자보다 중한 죄지만 우리는 두 남자 모두 음행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⁸²⁾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 혹은 헬라이어 원문에 충실하면 “성적 부도덕이 없는 데도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음행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성적 부도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가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글을 참고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이 질문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마태복음에 표현돼 있지 않지만 이 책 속의 어떤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마가와 누가가 설명하려던 주장을 추측할 수 있고, 그 결과 그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 부도덕 없이 전 배우자를 버린 남자만 다른 아내를 취함으로써 음행을 행하는 것인지, 혹은 부정한 배우자를 버린 사람을 포함하여 첫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음행을 행하는 것인지 물을 때, 마태가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자는 음행하는 것이니라”고 말하는 바가 사실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가에게서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왜 이 사람은 음행자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에게 장가드는 자는 음행하는 것이니라”(막 10:11). 누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왜 아내의 성적 부도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음행하다 생각하지 않는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음행하는 것이니라”(눅 16:18).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비록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의미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마태가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말하려고 했다고 이해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같은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결과 성적 부도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사람 모두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모든 사람은 음행에 대하여 분명한 죄가 있다.⁸³⁾

오스카 왓킨스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대한 어거스틴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요약하였다.

어거스틴은 해석하는데 문외한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같았다. 그는 흠정역에 따라 마태복음 19장 9절 본문이 나타내는 어려움을 잘 알았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그 본문에서 끌어낸 무흠한 남편의 혼인을, 그 가르침이 다른 부분과 논리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거절하였다.⁸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평생동안 끈이라는 교리에 적대적이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목사안 어거스틴으로서는 교인들에게 혼인에 대한 이 교리를 설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전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를 취하여서는 안됩니다. 여인들

이여 전 아내가 살아있는 남편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이같은 혼인은 세상 법에 따르면 음행이 되지 않지만 하늘 법에 따르면 음행입니다. 이 혼에 의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아내가 되서는 안됩니다. 오직 음행의 연고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는 동안 다른 여자와 혼인해서는 안됩니다. 오! 여인들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통해 아내가 떠난 남자들 가운데 남편을 찾을 권한이 우리에게겐 없습니다. 그 같은 행위는 혼인이 아니라 음행입니다.⁸⁵⁾

초대교회의 혼인 교리를 요약함

주후 100년에서 314년까지 찾은 자료를 참고하고 나서 왓킨스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 19장 9절이 이혼 이후의 재혼을 정당화시키는 권위를 가진다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썼다.⁸⁶⁾

마찬가지로, 주후 314년에서 527년까지의 시기를 고찰하면서, 왓킨스는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인용하여 음행으로 인한 이혼 이후에 재혼의 권리를 지지하지 않았다.”⁸⁷⁾

초대교회에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호소하여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을 지지한 경우는 없었다. 재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호소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기독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된다”고 바울이 주장한다는 생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카베르노(C. Caverno)는 다음과 같이 썼다.

바울이나 어느 누구도 이 사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죽

은 이후 400년 동안이나 로마제국이 기독교가였던 한 세기 동안 단 한번도 이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분명하다. 이 생각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40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기독교가 이교세계에 적응하는 전 기간 동안 바울의 생각을 그와 같이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생각이 결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좋은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혼에 대한 교리를 결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⁸⁸⁾

초대교회는 분명히 무혼자의 재혼을 포함하여 이혼 이후의 모든 재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기독교인의 혼인을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끊어지는 끊을 수 없는 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이 교리는 중세시대 동안에도 서방교회의 지배적인 입장이었다.

오스카 왓킨스는 혼인에 대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철저히 연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 3세기 동안 헤어진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혼 이후 재혼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그러한 혼인이 불법이라는 원칙은 가장 강한 어조로 거듭 강조되었다. 콘스탄틴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이르는 동안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보다 재혼을 금지하는데 좀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방에서는 암브로우스, 제롬, 어거스틴은 물론 아를스 공의회와 아프리카의 법령은 심지어 범죄하지 않은 남편의 경우라 하더라도 음행의 연고로 이루어진 이혼 이후의 재혼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콘스탄틴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이르는 이 기간동안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혼인이 전적으로 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동방교회는 여기에 대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유스티니아 이후 동방교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록 음행한 아내에게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흠 없는 남편에게는 이혼 이후 재혼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재혼은 정해진 많은 다른 경우 및 이혼 이후에 허용되었다. 서방에서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이탈리아 교회는 혼인이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알프스 이북에 있는 교회들은 세속법, 각 민족들의 엄격하지 않은 관습들에 맞서 길고도 힘든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그라치안 시대 이후 그리스도인의 혼인이 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은 서방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교회에 관한 한, 노르만족 침공 이전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으나 노르만 침공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혼인은 깨어질 수 없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졌다.⁸⁹⁾

윌리엄 헤스(William A. Heth)와 고오든 웬햄(Gordon J. Wenham)은 초대교회의 혼인 교리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 주제에 관한 책 중 가장 광범위한 책을 쓴 저자는 첫 5세기 동안 모든 헬라와 라틴 저자들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 이후의 재혼은 음행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끈은 두 당사자 중 한 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묶는 끈으로 간주되었다. 혼인 당사자 중 한 편이 순결치 못하다고 판정되면, 음행인 경우, 다른 편은 그 사람과 헤어지겠지만 재혼할 권리는 없다.

훗날, 카톨릭교가 불신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신자에게 재혼을 허용하는 것이 바울의 특권이라고 부르게 만든 고린도전서 7장15절의 경우조차, 초대교회 교부들은 버림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재혼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⁹⁰⁾

혼인, 이혼, 재혼을 연구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성공회 신학자 안드류 코오즈(Andrew Cornes)는 왓킨스, 헤스, 웬햄, 크루젤의 역사적 분석에 동의한다.

교부들은 거의 만장 일치로 그리스도의 “예외”를 똑같이 이해하였다. 그들은 자주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글을 썼으며 이혼보다는 재혼에 대한 이슈에 좀더 집중하였다. 이혼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종종 마태의 “예외”를 언급한다. 그러나 재혼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어떤 예외도 언급하지 않는다(암브로시아스터는 5세기까지 유일한 예외이다). 정상적으로 예외 없이 재혼을 (마가와 누가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금지하지만, 마태의 양식 속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나, 아니면 마태복음에 대해 해석을 할 때도 이들이 재혼을 금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음행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재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한다.⁹¹⁾

공의회

초대교회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교리를 공의회와 총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서 표명하였다.

엘비라(Elvira, 305년경)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세례를 받았는데 음행한 남편을 버린 세례 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만약 그녀가 이와 같은 혼인을 한다면 그녀의 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어 대사(大赦; Indulgence)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녀가 버린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녀는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⁹²⁾

아를스(Arles, 314년) 공의회는 음행의 연고로 자기들의 아내를 버린 젊은 남자들에게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기들의 아내가 음행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세례 받은 젊은 남자들이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나, 그들의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비록 아내들이 음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한다.⁹³⁾

주후 407년, 아프리카 교회를 대표하는 카르타고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훈계에 따라 자기 아내에게 버림을 당한 남자나 자기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가 다른 누구와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냥 지내든지 서로 화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것을 지극히 경멸한다면, 그들은 엄격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⁹⁴⁾

초대교회 혼인 교리가 갖는 특징

초대교회의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교리가 가지는 몇몇 특징들을 살펴보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부들은 성경 본문,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로마서 7장 2, 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자신들의 혼인 교리를 끄집어 내었다. 그들은 이혼이 음행이라는 이유에 한정되며, 원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모든 재혼은 금지된다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는 추상적 이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대응하는 예외구절을 잘 알지만, 교부들은 이것이 무혼자의 재혼을 허용한다는 해석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이 예외 구절이 이혼에 대한 금지만을 더욱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초대 교부들은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음행의 연고로 인한 이혼을 허용한다고 설명하면서 흠이 있는 자거나, 흠이 없는 자가 이혼한 이후에 재혼하는 것은 금하였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구절은 간음의 연고로 자기 아내를 버린 뒤 재혼하는 남자가 음행죄에서 깨끗하다고는 가르치지 않는다.⁹⁶⁾

어거스틴이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이유는 이 본문과 상응하는 좀더 분명한 본문들, 마가복음 10장 2-12절과 누가복음 16장 18절이 던지는 빛 때문이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가?”⁹⁷⁾

고린도전서 7장 10, 11절 또한 어거스틴에게 마태복음의 예외 구절이 무혼자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고린도전서 7장 10, 11절은 오직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과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6장에서 나타난 주 예수께서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친히 가르치신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리를 반복할 뿐이다. 바울이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전 7:10)”고 말할 때 이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도 되는 이유는 오직 자기 남편의 음행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께서 언급하신 이혼에 대한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7장 10, 11절에 나오는 여자

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교훈을 반복하면서 재혼을 금한다. “그냥 지내든지 전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어거스틴이 바로 말하였듯이, 이것이 바로 예외구절에 나타난 영감 있는 주석이다. 예외구절은 무흠자에게 재혼을 허용하지 않는다.⁹⁸⁾

“신의 도성”에서 최고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이혼 이후의 모든 재혼을 금하셨다. 주님의 판단에 따르면 이혼 이후의 모든 혼인은 “음란한 혼인”이다.

본래의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혼인이 금지된다는 성경적 근거는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서의 혼인의 본질과 생생하게 조화를 이룬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모든 초대 교부들이 가졌던 이 심오한 개념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대한 불가타(Vulgate)의 오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 2,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있는 성경의 평범한 가르침에서 나왔다.

불가타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 헬리어 “미스테리온 (Mysterion ; “이 비밀이 크도다”)을 “sacramentum(성례)”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끊어질 수 없는 끈을 헬리어 “비밀”에 대한 라틴 번역에서 끄집어 내지 않았다. 사실, 혼인에 대한 주요 저작에서 이 위대한 아프리카 사람(어거스틴)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는 끊어질 수 없는 끈을 “성례”에 내포된 개념에서 찾지 않았고 로마서 7장 2,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에서 찾았다.

분명히 “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즉, 그가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인다”(고전 7:39). 동일한 법 아래에 놓

인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가 물리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 매인다. 따라서, 만약 그가 음행한 아내를 떠나기 원한다면, 자기 아내에게 꾸짖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와 혼인해서는 안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녀가 음행한 남편을 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남편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그녀는 매여 있는 존재다. 만약 남편이 죽는다면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녀는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⁹⁹⁾

어거스틴은 음행한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고 간주하기만 한다면 무흠자가 재혼할 수도 있다는 반박에 직면하였다. “만약 남자나 여자가 음행을 한다면, 그나 그녀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¹⁰⁰⁾

어거스틴은 특유한 지혜로 재혼에 대해 어쩌면 공정하게 보이는 이 “불합리”한 점을 분석하였다. 이것이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 자신의 혼인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담긴 논리는 다음과 같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음행은 이 끈을 끊어 버린다. 혼인으로 묶여지지 않은 모든 사람은 혼인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음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행에 의해 혼인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든 아내든, 음행한 배우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받은 가르침은 자기 남편이 육체를 떠나지 않은 이상,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매여있다”는 것이다. “혼인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즉 몸이 그대로 있는 동안 “율법에 의하여 매여 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즉 그가 몸을 떠난다면, “그녀는 자기를 남편에게 묶어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므로 자

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함께 있게 된다면 그녀는 음녀라고 불리게 된다. 그러나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함께 하더라도 음행이 되지 않는다"(롬 7:2, 3) 그녀가 자기의 전 남편의 아내인 이상 어떤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의 아내가 더 이상 아니지만, 그 남편이 간음을 행한다고 해서 그녀가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간음으로 인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버림을 당할 순 있지만 순결의 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심지어 간음의 연고라 할지라도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다.¹⁰¹⁾

재혼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이유, 즉 자신의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 때문에 이혼한 자들이 절제하면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시험에 대해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들의 불평을 받아들여 음행을 허용한다면 이와 동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는가? 만약 아내가 만성적인 불치병에 걸려 자기 남편과 성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포로나 아니면 다른 재난을 통하여 헤어졌다고 치자. 그 남편이 그의 아내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 아내로부터 애정을 거절당했다고 한 번 생각해 보라. 당신은 무절제한 사람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허용돼, 음행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¹⁰²⁾

어거스틴은 놀려있는 성도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

스도의 법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대신 그는 목회적인 권면을 제시한다.

자기 절제의 짐이 그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분이 명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이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짐은 그리스도의 짐이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짐이 될 것이며, 마침내 짐은 가벼워 질 것이다.¹⁰³⁾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음란한 혼인"으로 가득 채우는 온갖 종류의 논증, 호소, 비난, 핑계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와 마주했으며 이를 거부하였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선포한 엄격한 혼인 교리를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이 교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교리에 반대하는 당시 어두운 세계에서도 그러하였다.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재혼이 그 뒤를 따른 것은 당연하였다. 그와 같은 방종 속에서 초대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혼인 문제에서 좁은 길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번영하였고 성장하였다.

오늘날, 이와 아주 반대로, 배교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을 더럽히고 혼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느슨하게 하여 멋대로 돌아가는 문화와 타협한다. 뼈대도 없는 복음주의자들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티끌만큼의 제어 장치까지 제거하여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짧은 이 생을 사는 동안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교회가 "성장"하여야 한다고 호소한다.

세상과 맞선 초대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혼인 문제에서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세속화는 복음주의자인 크레이 키이너(Craig S. Keener)가 쓴

《신약의 가르침에 따른 이혼과 재혼》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¹⁰⁴⁾ 키이너가 설정한 목표는 신약본문이 무혼자의 재혼을 금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흠이 있는 자들에 게도” 재혼을 인정한다.¹⁰⁵⁾ “마태나 바울이 말하지 않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해도 된다. 따라서 이 두 경우 음행과 저버림의 예외 항목의 경우 이혼 이후에는 재혼이 허용된다.”¹⁰⁶⁾

이 복음주의자로 하여금 재혼에 대한 문을 가능한 넓게 열도록 만든 동기는 첫째, 문을 열어 놓지 않을 경우 재혼을 고백한 몇몇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제 1장)과 교회 성장에 대한 장애이다.

그는 묻는다. “얼마나 오랫동안 보수적인 교회들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혼자들을 계속 복음화 시킬 것인가?”¹⁰⁷⁾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교리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바울의 교리는 입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¹⁰⁸⁾ 이 구절을 해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예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문화 속에서 일상적인 삶에 적용될 때 적절하게 바뀌어야”¹⁰⁹⁾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현대의 문화적 상황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이뤄지는 이혼이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이 본문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¹¹⁰⁾ 이 해석 방법은 성경으로 하여금 이 불경하고 비도덕적인 사회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그 결과 이 본문들에 대한 가장 자유주의적인 읽기에 의해 재혼에 대한 예수와 바울의 제한을 포기하고 재혼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주의의 현실이다! 교회가 세상에 순응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 똑같이 부패한 문화 속에서 복음의 가르

침을 과감하게 제시하였던 초대교회랑 얼마나 상반되는가?

초대교회가 재혼을 금지한 실제적인 동기는 회개와 화해의 문을 열어 놓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허마의 글에서도 나타났다. 비록 남편이 음행한 아내를 버릴 수는 있지만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천사에게서 받고 나서 허마는 “그렇다면, 주님, 만약 그 여자가 버림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녀를 다시 받아 들여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라고 그는 말했다. “회개한 죄인은 반드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일, 아내가 회개한 뒤에도 그 남자가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남편은 엄청난 죄를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장차 회개한 뒤를 위해서 남편은 혼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아야 한다. 그 래야만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¹¹¹⁾

어거스틴도 동일한 것을 가르쳤다. 재혼을 금하는 것은 무혼자로 하여금 회개한 아내나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을 갖게 한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결한 혼인으로 돌아가서 모든 음란한 결합과 상황에서 결별한다면, 심지어 음행한 남편이라도 그녀를 신뢰의 파괴자로 생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¹¹²⁾

혼인이 성례인가?

현대 개신교는 혼인의 신성함과 지속성에 대해 모든 초대교회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한 분명하고도 힘있는 증거들을 사실상 무시한다. 개

신교는 이 증거를 혼인을 성례로 간주한 로마 카톨릭교의 오류로 치부한다. 끊을 수 없는 끈에 대한 초대 교회의 교리는 “카톨릭적” 합의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초대 교부들은 혼인의 성례전적 본질을 규정한 트렌트 공의회 의 도그마를 설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몰역사적인 판단이다. 게다가, 이 판단을 어거스틴이 혼인을 “신성하다(Sacramentum)”고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일종의 신성한 성격(a kind of sacrament)을 띠게 된 혼인 언약은 헤어진다고 무효는 아니다.¹¹³⁾

그러나, 일단 혼인이 하나님의 도시(교회-저자)에 들어 온 이상, 두 사람이 처음으로 연합한 때부터 혼인은 신성한 끈이 된다(quoddam sacramentum, 일종의 신성한 성격-저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¹¹⁴⁾

우리 시대가 말하는 혼인의 신성함(The sacrament of marriage)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로 한정되었고, 따라서 아내나 남편의 처지가 아닌 자를 교회 목사로 임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¹¹⁵⁾

“신성함(sacrament)”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후에 로마 카톨릭 신학이 말한 “성례”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복음서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혼인에 대한 본문을 대할 때, 어거스틴¹¹⁶⁾은 에베소서 5장 32절의 “비밀(sacramentum)”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혼인의 본질을 성례로 이해한 다음, 어떤 전제된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 이

와 반대로 어거스틴이 혼인의 “신성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혼인에 대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로마서 7장 2,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혼인의 “신성함”은 이것이었다. 두 그리스도인이 혼인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역사하여 그 둘을 서로 극도로 친밀하게 만들어 평생동안 한 육체가 되게 하였다.

어거스틴이 사용한 혼인의 “신성”은 이후에 저명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쉽게 받아들인 로마카톨릭교회가 말하는 “신성”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혼인 신학을 전공한 잭 도미니안(Jack Dominian)은 어거스틴이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혼인이 은혜의 특별한 선물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어거스틴이 이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말할 때에도 이 중요한 진리가 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거스틴의 이 생각에 대하여 “특별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였다.¹¹⁷⁾

《교회 교부들》 시리즈에서 어거스틴의 《혼인의 선함》을 번역한 사람은 바스퀴에즈(Vasquez)를 인용하면서 어거스틴이 혼인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의미인 성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표상하는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점에서 “신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례라는 특별한 의미로 혼인을 지칭하기 위해 sacramentu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¹¹⁸⁾

개신교도들은 초대교회의 증거, 특히 어거스틴의 교리를 “어거스틴이 혼인을 성례라고 가르쳤다”고 말함으로써 가볍게 치워버릴 수 없다. 물론 어거스틴은 혼인이 sacrament라고 가르쳤다. 불가타 성경을 쓴

모든 사람은 혼인이 sacrament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문제는 어거스틴이 혼인을 sacrament라고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어거스틴을 포함한 초대교회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6장, 로마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창세기 2장 18-25절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혼인이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초대교회의 이슈는 성례에 대한 이론이 아니었다. 물론 그 시대를 주도하던 문화도 아니었으며 교인들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초대교회의 이슈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리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것이 20세기 말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슈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제멋대로인 교회

20세기 말에 쓰여진 교회내 혼인 교리에 대한 어떠한 역사서도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교회에서 혼인,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시되는 놀라운 현상을 지목한다. 이 교회들과 신학자들은 간음 이외에도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한 이혼을 인정한다. 그들은 또한 비성경적 근거로 이혼을 시키거나, 이혼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재혼을 인정하고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행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에게도 허용하였다.

이 비성경적 가르침들은 오늘날 만연한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현실을 가져온 원인과 결과가 된다. 실제 복음주의 교회에서의 이혼과 재혼 비율이 일반 사회보다 높은 현상을 보인다. 이는 그대로 교회의 타락을 보여준다.

반(反)율법주의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고 뽐내는 교회에서 이것은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특히 그들은 은혜의 복음에 호소하여 이 방종을 변호하지 않은가? 신학자들이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을 평생의 끈이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들은 간음의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한 이혼 및 적어도 무흠자 이외에는 이혼 뒤에 맺는 재혼조차 죄임을 인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허용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받아 들여 회중 앞에 보기 좋게 회원으로 세운다. 그리스도의 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기록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극도로 거역하면서 사는 남녀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한다. 이 은혜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고 버젓이 다른 남자의 아내와 살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히 방종에서 끝나지 않는 문제다. 이것은 반 율법주의이다. 반 율법주의는 죄를 짓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변명할 여지를 은혜 안에서 찾는 이단이다. 칭의 뒤에 성화가 항상 따라옴을 부인하는 것은 오류이다. 여호와와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 8-10절에서 “거짓말”이라고 정죄하였던 거짓 교리이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향하려 함이로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롬 6:1)”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 반역의 교리에 맞서 사도는 아주 무서운 어조로 “하나님이 금하셨다(롬 6:2, 그럴 수 없느니라(한글개역성경)-역자주)”고 대항하였다.

두아디아교회와 이세벨이 “사단의 깊을 것을 알라(계 2:20-24)”고 선포했을 때, 그녀는 충분히 성숙된 반 율법주의를 고취시켰다.

이 편만한 복음주의적 이단에 맞서, 진리는 이것이다. 은혜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구원에 감사하는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범으로 확립시킨다. 분명히, 음행을 하고 사악하게 배우자를 이혼시킨 자들에게도 죄사함이 있다. 그러나 오직 회개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결코 이미 회개한 죄(즉, 다른 남자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아무리 그 대가가 크다 하더라도 그 죄와 결별한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 또는 단지 말로만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 증오를 그 죄로부터 돌이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고 소리치는 반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혼인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연구를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제한하고자 한다. 이 교회들과 신학자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이며 주라고 고백한다. 또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권위 있는 안내서로서 존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값비싼 제자도를 수반한다고 본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혼인이 깨어질 수 없는 끈이라는 견해를 무시할 수 있다. 로마는 특별히 부자와 권력자에게 “혼인무효(annulment)”를 쉽게 선언함으로써,¹¹⁹⁾ 혼인 문제를 바

라보는 관점이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며 경건의 행위는 부인한다. 일례로 플레이보이 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와 음행을 저지른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에게 “혼인무효”를 선사하고, 그와 같은 이들의 재혼을 축복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들의 새 아내들과 함께 교회 앞에 보기 좋게 세우는 로마교회는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다.¹²⁰⁾

배교의 “주류(主流)” 개신 교회들은 공공연하게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혼인과 이혼, 재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았다. 혼인과 성 윤리는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교회들은 동성 연애를 포함하여 혼인하지 않은 성인의 성관계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교회들이 성경이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 혹은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무슨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자유주의에 물든 미국 장로교회가 재혼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나 성과 혼인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반 율법적이어서 오늘날 사회가 이처럼 방종에 이르렀다는 점은 제임스 에머슨(James G. Emerson, Jr.) 2세의 책 《이혼, 교회, 그리고 재혼》¹²¹⁾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회의 목사인 그는 교회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죄사함은 실현된다”¹²²⁾는 이유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이 모든 재혼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그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필요를 너무 많이 언급하지 않고서도 교회가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 철면피한 반 율법주의는 결국 교회로 하여금 혼인을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왜곡시킨다. 그에 따르면, 이혼 이후의 재혼이 최초의 혼인보다 오히려 에베소서 5장에 가르친

교회와 그리스도간 연합을 좀더 잘 보여 준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¹²³⁾

그러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교회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교회의 교리와 권징 그리고 신자의 삶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믿고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근본적인 영역인 혼인에 대해 점점 제멋대로 생각한다. 비성경적인 이혼이나 재혼에 대하여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이것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잘못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완악한 행동을 변호하고 인정하여 자신들이 마침내 반 율법주의자임을 드러낸다.

주목받지 못한 경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 무질서함을 현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과 재혼이 사회를 비롯,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옴을 고려할 때, 어떻게 이런 현상에 대하여 모를 수 있겠는가? 비록 알란 블룸(Allan Bloom)은 이 사회의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한 일반 세속적인 저술가였지만, 이혼이 범람하는 미국에 대해 그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교회에도 특별히 적용된다.

물론 많은 가정들이 불행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정이 가르쳤던 중요한 교훈은 어찌됐든 인간들 사이에 오직 하나의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존재한다는 거였다. 이 끈이 썩고 있음은 분명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의 도덕을 되살리려 하는 많은 제안들의 목록에서 나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

블룸은 자기 자녀들에게 초래될 비참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혼을 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한편으론 "이혼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흡연가들을 공격하고 금연운동이나 군비 경쟁을 종식시켜서 우리가 아는 이 문명을 구하려는 운동에는 열성적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¹²⁴⁾

이 같은 고상한 위선이 오늘날 개혁주의 설교자들이나 종교적인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편집자들의 특징 중 하나다. 이 사람들은 개혁주의의 기수로서, 세례 받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만성화 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 금연의 해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찬성의 목소리를 높인다.

몇몇 복음주의자들은 대담하게 바른 소리를 하였다. 임종을 바로 앞둔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믿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혼 문제에 직면해서는 성경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오히려 성경을 무시한다. 이혼과 재혼의 영역에서는 심지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적 교훈과 권징이 없어졌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의 가정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낙태를 의미함-역자주)를 주장하는 엄마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대한 신학적 공격이 파괴적인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성경적 가르침을 공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이다. 둘 다 비극이다. 둘 다 성경을 주변 문화에 종속시킨다.¹²⁵⁾

칼 헨리(Carl F. H. Henry)도 마찬가지로 그의 동료 복음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

복음주의자들이 문화에 침투하려고 노력하지만, 문화 역시 거의 동시에 복음주의자들의 생활을 교묘하게 잠식한다. 예를 들면, 이혼과 재혼이 개인의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이라는 생각을 확대시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회중교회주의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때에도, 교회의 신뢰성은 권징의 몰락으로 타격을 받았다.¹²⁶⁾

이 두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혼과 재혼으로 저지른 죄가 만연하며, 이 죄에 대하여 관대한 이유를 정확히 집어냈다. 문화에 대한 순응. 마지막날 교회의 이 부패를 성경은 "세속화"라고 부른다.

다행히 몇몇 복음주의자들은 혼인의 본질이 평생동안 지속되는 것이라는 성경적 교리를 천명함으로써 복음주의가 저지르는 수치스러운 성경 불신의 물결을 저지하였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과 같은 효과를 낸 학술적인 저서에서, 윌리엄 헤스(William A. Heth)와 고오든 웨햄(Gordon J. Wehham)은 예수와 사도들은 혼인이 평생동안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고 가르쳤음을 보여 주었다. 신약은 오직 간음에 의한 이혼만을 허용하며, 본래의 두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재혼은 금한다고 하였다. 신약은 심지어 무흠자의 재혼도 금한다고 주장했다.¹²⁷⁾

헤스와 웨햄은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의 보편적 입장을 떠났으며,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영향으로 이혼이 혼인의 끈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신교 개혁자들은 이혼에 관

한 에라스무스의 해석에 집착, 이를 변호하기만 하였다.”¹²⁸⁾

이 주제에 대한 대중적 연구서인 《죽는 날 까지: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혼의 불행으로 고통받는 신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냥 홀로 지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화합하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어긋난다”¹²⁹⁾고 하였다.

1993년 어드만 출판사는 성공회 신학자 앤드류 코온즈(Andrew Cornes)의 기념비적 저서, 《이혼과 재혼:성경적 원리와 목회적 실제》를 출판하였다. 혼인과 이혼, 재혼에 대한 성경적 교리와 실제를 500여 페이지에 걸쳐 철저히 연구한 이 책에서 이 성공회 교구목사는 성경이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혼인의 끈이 끊어짐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혼 이후의 모든 재혼을 음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코온즈는 교회, 특히 자신이 속한 영국 교회에 주장하기를 이 규범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¹³⁰⁾ 이 중요하고 잘 쓰여진 책에 대한 서평은 거의 없다.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중요한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다. 독자들은 그 책의 엄청난 분량(528페이지)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평신도도 그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와 교회들은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무법 상황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선포되지 않는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이후의 재혼이 성

행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깨어질 수도 있는 계약이므로 묵시적으로 무혼자의 재혼을 허용하는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재검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로교와 많은 복음주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혁주의는 재혼을 허용하는 교리를 합리화시켜 불경건과 타협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반 율법주의로 이끌 듯 싶다. 혼인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 쓰여진 글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증가하는 이혼과 재혼을 열렬하게 변호한다. 종종 이 글들은 그나마 개혁주의 진영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은 끊어질 수 없는 끈이므로 이를 존귀하게 여기자”고 호소하는 소수 사람들의 약한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른다.

앞으로 우리는 현대 복음주의를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 및 교회가 재혼이 오직 무혼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개신교의 전통을 버리고 이혼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재혼을 허용하는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살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의 질문,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에 대하여 예수님은 “물론”이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그분은 어떠한 이유에 관계없이 자기 아내와 이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이루는 재혼을 허용한다. 이것은 혼인의 교훈에 대한 예수의 새 교리이며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지는 이유가 된다. 또한 교회의 교인 자격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예수의 분명한 교리이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내나 남편과 재혼하는 남녀로 가득 차 있다.

복음주의자

복음주의 윤리학자 노오만 가이슬러(Norman L. Geisler)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는 입장은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의 장점은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혼의 이유와 상관없이 이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된다. 그러나 가이슬러는 복음주의자들이 이혼이나 재혼을 두 번 허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¹³¹⁾

존 제퍼슨 데이비스는 “이혼할 때 흠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재정적 의무를 보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합법적으로 재혼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죄사함의 은혜는 흠이 있는 자의 재혼을 허용한다. 데이비스는 “비성경적인 이유로 이혼한 고백 신자가 만일 ‘회개하고’ 본래 아내와 남편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¹³²⁾

최근 IVP에서 나온, 《이혼과 재혼 : 4가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휘튼 대학 교수였던 래리 리처드(Larry Richards)는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몇 번이고 상관없이 이혼과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과감하게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혼이나 재혼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이다. “혼인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결정하고 이혼의 시점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책임이다”, “어떠한 이유에 관계없이 이혼하는 사람들은 재혼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리처드씨는 “네 번”이나 이혼하고 재혼하려는 “툼”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주례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¹³³⁾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면서, 크레익 키

이너(Craig, S. Keener)는 특별히 무흠자의 재혼을 옹호한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바울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인 “저버림”을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신 유일한 이유에 첨가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 이유들이 제한적이지 않고 표본적임을 암시한다. 간음이나 저버림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이혼과 재혼도 허용된다고 결론짓는다.¹³⁴⁾

심지어 이혼 사유를 제시한 자, 즉 성적 부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재혼을 할 수 있다.

죄사함에 대해 제시하는 신약 본문들에 대한 추론에 근거하여 잘못을 범한 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 필요한 어떠한 보상을 했다면 재혼을 해도 된다.¹³⁵⁾

이 견해에 따르면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답이다. 은혜는 비성경적인 이혼과 음란한 재혼의 죄도 도말한다. 이러한 재혼은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잘못을 범한 자들이라도 회개만 한다면 과거에 있는 이혼 전력을 덮어버려서 ‘이전’에 일어났던 혼인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¹³⁶⁾

개혁주의와 장로교

특히 개혁교회와 장로교에서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으나 이혼한 자들에게 재혼의 문을 넓게 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교회의 전통은 재혼의 권리를 무흠자와 불신 배우자에 의해 신앙의 이유로 버림을 당한 신자에게 한정시켜 왔다. 사실, 개혁주의 전통은 저버림

을 재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보지 않았으며 재혼의 권리를 무흠자에게 한정시켜 왔다.

최근에 들어서, 이혼과 재혼의 방종이 세상에 증가하자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교회는 배우자의 간음이나 저버림 이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맺는 재혼도 지지하고 인정하였다. 곧 이어, 이들 신학자와 교회는 “잘못을 범한”자의 재혼도 인정하였다.

존경받는 작가인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그의 보수적인 청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재혼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장려되거나 명령된 것이다. 재혼은 신약에서 우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이혼 이후에 누가 어떤 조건으로 재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합당하게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재혼을 해도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합당하게 이혼한 사람은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합당하게 이혼한 사람”을 더 자세하게 정의하는 가운데, 아담스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의 바울의 명령과 이와는 반대로 불신 아내를 이혼시킨 고백 신자도 자유롭게 재혼해도 된다고 선언한다. 사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혼이 장로교 표준서에 대면 “합당한 이혼”이 된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혼할 때 잘못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합당한 이혼”이 가능하여 자유롭게 재혼을 해도 되기 때문이다. “회심 이전이나 이후에” 음행을 통하여 혼인을 파괴시켰는지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만약 그가 회개한다면 재혼해도 된다. “이혼 이후의 재혼은 성경이 허용한다. 죄사함 이후에는 잘못이 있는 자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이 방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라. 어느 누구도 다음의 가능성

이 회박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하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젊은 여비서와 사랑에 빠져 30년이나 같이 살던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조차 버리고 결혼한 남자가 교회에 의해 용서함을 받고 새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정통적인 장로교인들과 함께 주의 식탁 앞에 앉는다.

그러나 장로들에 의한 그의 죄사함이 “장로 지침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³⁷⁾

이 사변에서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교인이 저지른 “죄의 꾀”로부터 깨끗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주의, 장로교, 그리고 복음주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자기 소신에 따라 혼인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명한 보수주의 혼인 상담가들은 다른 일반 상담가와 마찬가지로 곤경에 처한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이혼해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재혼을 할 수 있다.”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자를 장로들이 용서하고, 그의 음행을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장로 지침서는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때” 장로들을 심판하기 위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1992년, 한 위원회가 이혼과 재혼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미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미국 장로교회 제 20차 총회에 보내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이다.¹³⁸⁾ 성경은 오직 무흠자와 버림당한 신자의 재혼만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보고서는 계속하여 비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그의 배우자가 재혼한다면 재혼을 허락해야 하며 “비성경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살거나 이미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도 기록하다고 말한다. 후자의 경우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께 다시 헌신해야 한다. 비성경적 이유 때문에 이혼한 사람의 재혼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행이나 이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며 다른 불경건한 죄와 더불어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기록한다.¹³⁹⁾

미국 장로교회(PCA) 총회는 이 보고서 제 3장, "이혼과 재혼에 대한 목회적 전망"에서 장로들에게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지침에 따르면, "이혼이 회심 전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 신자가 재혼을 해도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지침도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모호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만약 이혼이 "회심 전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을 부추길 것은 분명하다.

네 번째 지침에 따르면,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재혼이 허락되며 재혼을 원하는 사람이 이혼의 이유엔 상관없이 혹은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음행으로 혼인을 깨뜨린 여인이, 단지 자기의 전 남편이 재혼만 하면, 당회에 그녀가 "거듭 났다"는 것을 확신만 시키면, 재혼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거듭난 사람"이기만 하면 그녀는 그 사람과 재혼해도 된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흠이 없는 사람, 버림당한 사람, 회심 이전에 비성경적으로 이혼한 사람, 잘못을 범한 사람 등. 이와 같은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 속에 있다.

북미 기독교개혁교회(CRC)는 이보다 일찍 이혼 뒤에 맺는 재혼에 대해서 관용적이며 허용하는 입장을 가졌다. 1956년 CRC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비성경적인 이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음행의 결과로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재혼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거나 다시 들어오자 할 때,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간 동안 자신들이 슬퍼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¹⁴¹⁾

이 결정은 기독교개혁교회의 입장은 급진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결정 이전에, 기독교개혁교회는 재혼의 권리를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하여 이혼한 사람, 즉 무흠자에게만 제한시켰다.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은 죄 안에 사는 것으로 선언되었고, 교회의 회원권이 거부되었다. 이 결정으로 기독교개혁교회는 비록 그들의 이혼이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재혼을 회원들에게 허락하였다. 사실, 이들의 이혼은 이들 자신의 음행 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 잘못을 범한 사람의 재혼도 인정되었다. 이 인정이 혼인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알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도 않았다. "교회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언급을 볼 때, 이 결정은 동료 회원의 아내와 음행을 하다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 음욕의 대상과 혼인 한 후, 한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신자를 품어 주었다.

일반적인 개혁주의 전통과 결별한 이 지침은 기존과 달리 매우 흥미로우며,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선언이었다.

1. 자기 자신의 음행으로 혹은 비성경적인 이유로 이혼 당하고 재혼한 사람이 계속 음행 속에서 살아간다는 주장을 확립시킬만한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성경의 증거는 없다.
2. 자기 자신의 음행으로 혹은 비성경적인 이유로 이혼 당하고 재혼한 사람이 지금 현재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요구를 보장하는, 그 어떠한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성경적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¹⁴²⁾

교회를 돕기 위하여 기독교개혁교회가 채택한 “혼인과 이혼, 재혼 문제에 관한 목회자 지침들”은 1956년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이 지침서는 기독교개혁교회가 1956년에 일어난 혼인에 대해 좀더 바른 것을 알면서 죄를 지었음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이 “지침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혼인 생활이 평생동안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원하신다”는 것과 “성경의 기본적 선언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이혼과 재혼이 음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총회가 받아들인 “지침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음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이루어진 이혼 이후의 재혼을 인정하고 허용함으로써 성경의 기본적인 선언을 무시하였다.

기독교개혁교회가 “음행”으로 정죄한 것을 용납하는 이유는 은혜가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기독교개혁교회는 음행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자체만으로 “은혜”이며, 이는 죄가 지닌 쾌락을 끊임 없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불쌍한 내 아내를 버리고, 내 형제의 아내를 훔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혹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내

형제의 아내와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기독교개혁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이 이미 사함을 받은 죄를 인정하고, 축복하며 거룩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혹은 다른 사람의 아내)과 혼인하여 사는 음행의 삶이 죄사함에 의하여 합당한 삶이 된다. 사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죄인의 음행은 더 이상 음행이 아니다. 죄사함은 음행을 음행이 아닌 다른 것, 거룩하고 선한 어떤 것으로 바꾼다.

셋째, 기독교개혁교회의 암묵적이었던 반율법주의는 재혼의 허용이 교회의 “목회적 사역”에 속한다고 변호하면서, 결정적인 표준에 맞지 않는 모든 재혼을 거부하는 것은 “엄격한 율법주의적 접근”이라고 경고할 때 제 모습을 나타낸다. “목회적 사역”인 은혜는 율법을 배제시킨다. 율법, 즉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권위 있는 말씀은 은혜를 손상시킨다.¹⁴³⁾

분명히 이혼과 재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오류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기독교 고등교육을 위한 포츨스트룸 대학에서 발행된 한 국제적인 회지는 1990년과 1991년 각 겨울호를 혼인에 대한 연구에 할애하였다. 이것은 “혼인에 대한 겨울”이라고 불린다.¹⁴⁴⁾

이 겨울호들은 혼인을 깨는 어떤 것에도 반대할 뿐 아니라 이 금지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니일즈 스미트(Niels Smit)의 건전하고 비타협적인 글도 포함하였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만드셨고, 따라서 이것을 깨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혼인에 증인이시며, 따라서 혼인을 깨는 자는 그 혼인식에 하나

남께서 계셨음을 부인하는 자다. 비록 성례는 아니지만, 혼인은 교회와 그리스도 간에 이뤄진 언약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혼인을 깨는 자는 교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경멸함을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은 혼인을 사용하여 자기 자녀들인 미래의 세대들을 낳고 기르신다. 따라서 교회에서 혼인을 깨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을 깨는 것이다. 그는 미래로 뺄어 가는 언약의 끈에 손상을 준다.”¹⁴⁵⁾

그러나 이 호는 거르트 크루거(Gert Cruger)의 글 “이혼한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Marrying a Divorced Person)”란 글도 포함하였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과 혼인한 자는 비록 이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혼인한다. 성경은 그러한 혼인을 음행과 동일시한다.” 이것은 “심지어 이혼한 사람이 이혼을 할 당시 흠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무흠한” 자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재혼한 자가 회개하면 이혼 이유나 재혼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도록 허용한다. “교회는 혼인 자체에 대하여는 아주 굳건한 견해를 가진 반면, 실제 적용할 때는 이 관점은 유연해진다.” 이 적용의 유연성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다. 심지어 이혼한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성경이 금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남자나 여자와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남편 혹은 아내와 혼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한 혼인이 “아주 행복한” 혼인이 되게 하시고 “아주 성공적인” 혼인이 되게 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님의” 자비가 재혼을 선택하고 경건한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¹⁴⁶⁾

기독교 재건 운동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리를 기독교적으로 재건하는 것은 실제 생활의 문제와 함께 그 자체로도 하나의 범주를 형성한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두 번째 기회: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¹⁴⁷⁾를 쓴 레이 썬튼(Ray Sutton)이다. 이 책은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개혁주의 진영에서 나왔던 그 어떤 책보다 음란하다는 명성을 얻었던 마틴 부서(Martin Bucer)의 책에 비견할 만하다. “성경적인” 이혼과 재혼의 이유 가운데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거짓 예언, 마술, 점술, 강신술(降神術), 안식일을 범하는 것, 성직인 죄, 살인, 육체적 학대, 저버림, 그리고 “아버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의무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성경의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정의되는 불순종, 그리고 사악한 거짓 증언이 포함된다.¹⁴⁸⁾ 이 목록에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 원리에 충실한 교회는 실제로 이혼을 원하는 어떤 교인에 대해서도 그 이혼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비성경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재혼하려는 교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썬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혼을 할 당시에 잘못이 있던 사람에게도 재혼의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는 에이즈를 가진 남자이다.

잘못을 범한 자가 재혼을 할 수 있는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치명적인 성적 전염병을 가진 남자의 경우는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하지만 이 외에는 그가 회개한 후 보상을 치르고 새 배우자에게 더 이상 해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잘못을 범한 자에게도 재혼이 허용된다.¹⁴⁹⁾

썬과 그가 대표하는 기독교 재건 운동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경멸한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남편이나 아내의 간음)만 존재한다고 말씀하였다. 물론 이 경우 재혼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법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인 생활을 지배하는 법으로 만드신 것이라 말씀하신다. 이혼이나 재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첨가하는 것은 일종의 방종이다.¹⁵⁰⁾

잘못이 있는 자의 재혼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썬은 반 율법주의자이다. 왜냐하면 재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구속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¹⁵¹⁾ 썬의 복음은 반 율법주의일 뿐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참된 두 번째 기회를 그의 피 속에 있는 두 번째, 혹은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적어도 썬이 제시한 많은 이유 중 한 이유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혼한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혼인할 기회를 제공하신다.¹⁵²⁾ 이것은 바로 이 책 제목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 기독교 재건 운동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혼인 제도를 성도가 순종해야 함을 심각하게 다루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이 “흠이 없어야 하고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썬은 목사나 장로의 이혼과 재혼이 “교회 안

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명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썬의 조언은 무엇일까? 이혼하고 재혼한 목사나 장로는 “모든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직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¹⁵³⁾

이혼과 재혼을 위한 썬의 오류, 혹은 이단적인 논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내였던 이스라엘과 이혼하시고 교회라는 다른 아내와 혼인하였다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난다.¹⁵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패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혼하였다. 그러나 오직 잠시 동안 공식적으로 그와 헤어졌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은혜 가운데 맺은 언약의 끈을 결코 끊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는가? 조건 없는 약속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셨다. 이스라엘과 “재혼”하신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녀를 자신의 온전한 교제 안으로 다시 부르신 것이다. 혼인을 이전보다 더 좋고, 친밀하며 영화로운 끈으로 만드셨다.¹⁵⁵⁾

신약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한 두 번째 아내가 아니다. 그녀야말로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실재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간의 혼인 언약은 교회와의 혼인 언약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이 언약은 선택받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간에 실현되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오직 한 아내만 있을 뿐이다. 비록 그분만이 완전히 무흠하면서 음란한 아내에게 심하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는 재

혼을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혼인, 이혼, 재혼을 바라보는 레리 씨튼과 개혁주의자들을 이 위대한 진리로부터 여러 의미들을 끌어내어야 할 것이다.¹⁵⁶⁾

재혼에 대한 씨튼의 이단적인 논증은 혼인,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논쟁에서 근본적인 어떤 진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바로 혼인에 대한 개념과 증거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개념과 증거에 필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다. 씨튼은 혼인도 깨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가 언약의 “복음”이 깨어질 수 있다는 데 뿌리 박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신실하지 않은 교회의 남편과 아내들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다. 하나님도 이혼하고 재혼한다! 이것은 비록 말로 표현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혼 이후의 재혼을 관용하고 인정하며 축복하는 모든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교회들이 제시한 증거이다.

반면, 꿰을 수 없는 혼인의 끈에 대한 주된 논증과 근거는 혼인이 은혜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이 신실하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혼인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교회 안에서 이뤄진 모든 논쟁의 모든 중심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복음을 시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추한 모습을 지닌 이스라엘과 교회가 신실할 수 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참으로 이것만이 전부다. 즉, 삼위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과 신실함만을 소망하는 죄인들의 구원 말이다.



요약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와 상당수 개혁교회 및 장로교에서는 이혼과 재혼을 설명하는 교리와 실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교회는 스스로도 인정하듯, 그리스도와 사도의 명령엔 정반대로 이혼한 많은 사람들의 재혼을 허용 혹은 인정한다.

교회는 반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복음에 피난처를 찾는다. 거짓 은혜는 비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조차도 재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거짓 은혜는 이미 재혼한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음란한 혼인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허용한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이미 비성경적으로 이혼, 재혼한 사람들을 교회가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와 비슷하게 동성연애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풀러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 폴 쥬웨트(Paul K. Jewett)은 동성연애자에 대해 얘기하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축복과 축하기를 하는 것이 때때로 옳지 않을 때가 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충분히 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음을 제기했다. “축하 없는 용납”을 지지하면서 그는 비성경적 이혼과 재혼에 호소한다. “이혼에 대한 한 비유일 수도 있다.”¹⁵⁷⁾ 이전에 쥬웨트는 비록 “예수께서 주장하신 혼인의 이상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서로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에게도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혼과 이에 뒤따른 재혼을 복음주의자들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거부하면 “혼인과 이혼에 대한 문제에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어떠한 이유든 상관없이 이혼과 재혼을 허용하면서(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복음이 뜻하는 바”이다.¹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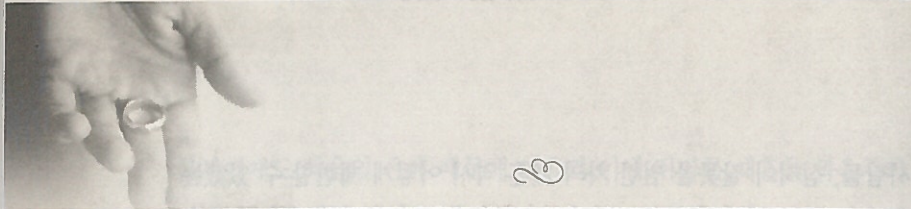
이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은혜는 끝까지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을 환영하여 심판 날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란 오히려 “죄사함 받은 죄인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이혼한 남자는 재혼하지 말아야 한다. 은혜는 그로 하여금 독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은혜는 이미 재혼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음행이라고 연거푸 묘사한 삶을 살기를 멈추라고 요구한다. 은혜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과거 음행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내릴 힘을 준다.

죄인이 그가 슬퍼하고 고백하는 죄와 결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결과를 낳는다. 오직 이 회개만이 참되다. 회개는 교회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현대의 방종, 많은 사람들의 비참, 수많은 어린이의 파멸은 개혁주의로 하여금 혼인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종교개혁가와 개혁주의 전통의 입장을 재점검하도록 한다. 이 혼돈은 혼인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깨어질 수도 있다는 교리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일단 무흠자와 저버림을 당한 자의 재혼 가능성이 허용되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잘못을 범한 자의 재혼 역시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는가? 역사가 이혼 이후 일어날 재혼을 무흠자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지 않은가? 만약 음행이 혼인의 끈을 끊어버린다면, 음행은 “흠이 있는 자나, 없는 자에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의 끈”을 끊어 버릴 것이다. 만약 이 끈이 잘못을 범한 자에게도 끊어졌다면, 그 역시 다른 사람과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혼인할 권리를 주시는 것이다.

혼인의 참 교리는 어떠한 시대가 주는 압력도 견디어 낸다. 이것은 사도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리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 혼인 제도와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혼인은 “죽음이 그들을 나눌 때까지” 평생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는, 하나님이 만드신 끈이다. 사람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



역자 후기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은 혼인예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정말 그러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목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은 이혼이 나눔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혼이 나눔과 동일시된다면, 그 논리적 결과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가 될 것이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버린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이혼한 여자와 혼인하는 것이 간음인가? 여기에 한 가지 답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혼했다라도 그 여자는 여전히 이혼했던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혼인의 끈은 죽음 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혼인예식을 통해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장례식을 통해서 둘을 나누신다. 하나님만이 자신께서 짝지으신 것을 나누신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논지이다.

이 논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자는 고린도전서 7장 10, 11절에 주목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구절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목회자는 또한 얼마나 될까?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을 하라”가 아니라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전 남편과 화합하라”이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혼은 혼인의 끝이 아니라 손상된 혼인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시작이다.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혼이 혼인의 끝이며, 따라서 재혼이 가능하다라는 이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사별의 경우 이외에는, 재혼이 성경적으로 간음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이 책은 오늘날 혼인에 대한 기독교인의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사실, 이 책 저자의 입장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거의 무시되어 왔던 입장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이유 때문에 성경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제2부에서 교회 교부들의 권위에도 호소한다. 저자의 입장이 초대교회 이후 적어도 수백년 동안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실천신학 혹은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 하나는 교회의 역사적인 입장을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쌓는 신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그와 같은 오류를 피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이 책의 단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혼인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 입장을 쓰면서 저자는 지나치게 다른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자는 이 책을 계기로 오히려 교회가 역사 속에서 혼

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실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재혼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고 있다. 재혼을 용납하는 쪽은 재혼으로 인하여 받게 될 어린 자녀들의 엄청난 고통을 도외시한다. 반면, 재혼을 인정하지 않는 쪽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될 지도 모른 아내나 남편의 고통을 도외시한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도대체 왜 혼인을 하려고 하는가? 혼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해서 말을 하기 꺼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권위 있는 입장이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결국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 책은 혼인에 대한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전혀 새로운 입장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인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전통적인 입장을 제대로 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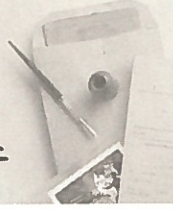
역자는 이 책의 저자가 출석하는 교회(The First Protestant Reformed Church)에 3년 동안 다녔다. 저자는 조그만 교단 신학교의 교수로 가끔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 역자는 미국에 와서 정말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독특한 혼인 교리를 접하게 되었고 마침내 저

자의 책을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와서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 묻혀진 보화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확신한다. 본인은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IMF 시절에는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받아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이 책을 번역함으로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책이 한 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해 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는 번역본을 1차로 교정을 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제수인 정지윤 자매는 2차 교정의 상당 부분을 꼼꼼하게 교정 해 주었으며 교회 선배인 강영택 집사님은 마지막 2장을 정성스럽게 교정해 주셨다. 그분들의 도움 없었다면 이 책이 이와 같이 훌륭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혼인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흐려지고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가정이 무수히 파괴되어 가는 이 시대에 이 책이 한국교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역자 이성호 목사

2000년 9월 6일



- 1) 이 예식서는 개혁 교회에 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표준 예식서이다. 비록 지금은 소수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만 사용되지만 개혁주의의 혼인관을 잘 요약해 주는 문서이다. 이 예식서는 "시편 찬송가 (Psalter)" 뒤에 첨부돼 있다 -역자주.
- 2)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흠정역(King James Version)을 사용한다. 역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 개역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3)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Proskollhqh, setai이며 그 뜻은 "풀", 혹은 "아교"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역자주.
- 4) 바울은 여기서 70역을 따른다. 70역에는 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역자주.
- 5) 한글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다 -역자주.
- 6) 협의 이혼. 혼인의 두 당사자 모두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들이 단순히 원하기만 해도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역자주.
- 7)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저자는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독교학교에 보내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자주.
- 8) 시편 46:9 -역자주.
- 9) 저자는 흠정역을 따른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취"가 원어에 더 가깝다 -역자주.
- 10) 한글 개역 성경은 "임태하는 교통"이라고 되어 있다. 저자는 흠정역의 "임태와 슬픔"을 따른다 -역자주.
- 11) 여기에 사용된 번역은 시편 찬송(Psalter) 238장 3절을 따른 것이다.
- 12) 저자는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해도 되는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곧 이어 밝히겠지만 바울의 관심대상은 둘 다 회심 전에 불신자였다가 한 사람이 신자가 된 부부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 12-14절을 근거로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해도 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역자주.
- 13) 이것은 개혁주의 "세례 서식" 나오는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이다. The Psalter (Grand Rapids : Eerdmans, repr. 1988), 87p를 보라 -역자주.
- 14) 개역 성경은 "화평 중에서 부르셨느니라"고 되어 있다 -역자주.
- 15) 이 둘째 부분은 한글 개역 성경이 채택하지 않다. 저자는 이 부분을 성경본문으로 채택한 흠정역을 따르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문제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넣어서 성경을 읽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역자주.
- 16) 지금 저자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제자도에 대해 예수님이

드신 비용을 염두에 둔다. 여기에 두 비유가 나온다. 건축자는 건축하기 전에 건
물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임금은 싸움에 임하기 전에 그 전쟁을 이
길 수 있을 지 없을 지 미리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친
하에 웃음거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따
르는데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데 드는 비용
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신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
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
역자주.

- 17) Herman Hoeksema, “Unbiblical Divorce and Remarriage,” *Standard Bearer* 33, no. 8 (Jan. 15, 1957): 172. 이것은 이 시리즈의 최종편이다. 이전의 사설들은 다음과 같이 발행되었다. Sept. 15, 1956 (pp. 485-487) ; Oct. 1, 1956 (pp. 5, 6) ; Oct 15, 1956 (pp. 29, 30) ; Nov. 1, 1956 (pp. 52, 53) ; Nov. 15, 1956 (p. 76) ; Dec. 1, 1956 (p. 100) ; Dec. 15, 1956 (p. 125) ; 그리고 Jan. 1, 1957 (pp. 148, 149). 이 일련의 사설들은 작은 책자로 나왔다. “Unbiblical Divorce and Remarriage” (Grand Rapids :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n. d.).
- 18) Herman Hoeksema, “Unbreakable Bond Marriage” (Grand Rapids: Sunday School of the First Protestant Reformed Church, n. d. ; repr. 1969), p. 17.
- 19) *Ibid.*, p. 10.
- 20) *Ibid.*, p. 16.
- 21) *Ibid.*, pp. 12-13 ; 참고, Hoeksema의 “Unbiblical Divorce” pp. 20, 21.
- 22) 혹스마의 답변 전반부는 “Vragen(질문)”이라는 제목으로 *Standard Bearer* 9, no. 16 (6월 1, 1933): 374-377에 나와 있다. 그 후반부는 “Antwoord Op de Vraag van Hudsonville (허드슨빌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Standard Bearer* 9, no.18 (7월 1, 1933): 424-426에 실려있다. 이 논문들에 대한 인용문은 본인이 화란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 23) Herman Hoeksema, “Hertrouwen Van Gescheidenen” *Standard Bearer* 19, no. 16 (May 15, 1943): 364-366. 인용문은 본인이 직접 화란어에서 번역한 것임.
- 24) *Ibid.*, p. 364
- 25) Herman Hoeksema, “En Die Verlatene Dan?” *Standard Bearer* 20, no 3 (Nov. 1, 1943): 50-51 ; “Nog Eens : En De Verlatene Dan?” *Standard Bearer* 20, no 4 (Nov. 15, 1943): 74, 75 ; “Nog Eenmaal : DIE Verlaten?”

Standard Bearer 20, no 5 (Dec. 1, 1943): 96-98.

- 26) Herman Hoeksema, *The Heidelberg Catechism (An Exposition): Love Thy Neighbor for God's Sake* (Grand Rapids: Eerdmans, 1955), pp. 81-107. 이 책은 혹스마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주석의 처음 10권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The Triple Knowledge: An Exposition of the Heidelberg Catechism*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72), pp. 342-367에 나온다.
- 27) Hoeksema, *Love Thy Neighbor*, p. 97.
- 28) J. L. Shaver, *The Polity of the Churches*, 4th rev. ed., vol. 2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56), p. 225. 웨이버는 혼인과 관련된 아주 복잡한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교회의 판결들을 요약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개혁교회가 오랫동안 “잘못이 없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혼을 정죄하고 용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특히 1936년 기독교개혁총회가 내린 몇몇 결정들은 웨이버에 따르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pp. 225-232).
- 29) “Report of the Committee on Marital Problems,” *Acts of the Reformed Ecumenical Synod Edinburgh 1953* (Edinburgh: Lindsay & Co. Ltd., 1953), p. 91. 비록 음행을 이혼의 근거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 없는 자”의 재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보고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위원회는 결론은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혼인은 본질상 평생동안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pp. 91-92).
- 30) *Acts of the Fourth Reformation Ecumenical Synod of Potchefstroom, South Africa 1958* (Potchefstroom: Potchefstroom Herald, 1958), p.98.
- 31) F. W. Grosheide, *Het Heilig Evangelie volgens Mathheus* (Amsterdam: H. A. Van Bottenburg, 1922), p. 229. 화란어 번역은 본인이 직접한 것임. [“er dat is de feitelijke verbreking van het huwelijk ... Jezus noemt dit de eenige reden.”]
- 32) F. W.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74), pp. 166-167.
- 33) H. Bouwman, “Echtscheiding,” in *Christelijke Encyclopaedie voor het Nedelandsche Volk*, ed. F. W. Grosheide, J. H. Landwehr, C. Lindeboom, J. C. Rullmann, vol. 2 (Kampen: J. H. Kok, n. d.), pp. 3-13. 화란어 번역은 본인이 직접한 것임.
- 34) W. Geesink, *Van's Heeren Ordinatie*, vol. 4 (Kampen: J. H. Kok, 1925), p. 226.
- 35) OJ10.0ohn Murray, *Divorc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 1961), p. 43.
- 36) Ibid., pp. 69-78. 이 부분에서 저자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역자주).
- 37) Ibid., pp. 77-78.
- 38) Robert L. Dabney,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repr. 1972), pp. 409, 410.
- 39) John Owen, "Of Marrying After Divorce in Case of Adultery," in The Works of John Owen, ed. William H. Goold, vol. 16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repr. 1968), pp. 254-257.
- 4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5, 6절. The Subordinate Standards and Other Authoritative Documents of the Free Church of Scotland (Edinburgh: William Blackwood & Sons Ltd., 1973).
- 41) Robert Shaw, An Exposition of the Confession of Faith (London: Blackie & Son, n. d.), p. 243.
- 42) Ibid., pp. 243, 244.
- 43)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tr. William Pringle,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49), pp. 382-385.
- 44)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 John Pringle,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48), p. 244.
- 45)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ed. and tr. Philip Edgcumbe Hughes (Grand Rapids: Eerdmans, 1966), p. 77. 이 법령은 아주 공평하게 남편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도 아내에게 적용시킨다.
- 46) Ibid., p. 79.
- 47) Roderick Phillips, Putting Asunder: A History of Divorce in Western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54, 55.
- 48) Martin Luther, "On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in Three Treatises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60), pp. 236, 237. 루터는 여기에서 혼인에 대한 교회의 교리와 실천과 근본적으로 결별했다.
- 49) Martin Luther, Luther's Works, vol. 28, ed. Hilton C. Oswald (Saint Louis: Concordia, 1973), p. 36.
- 50) Martin Luther, Luther's Works, vol. 21, ed.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Concordia, 1956), p. 96.

- 51) Phillips, Putting Asunder, pp. 40, 83.
- 52) William A. Heth and Gordon J. Wenham, Jesus and Divorce: The Problem with the Evangelical Consensus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pp. 73-86.
- 53) Luther, "On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in Three Treatises, pp. 235, 236.
- 54) Luther, Luther's Works, vol. 21, p. 94.
- 55) Calvin, Harmony of the Evangelists, vol. 2, p. 378.
- 56) Calvin, Commentary on ... Corinthians, vol. 1, p. 270.
- 57) Phillips, Putting Asunder, p. 85.
- 58) Bouwman, "Echtscheiding", p. 11.
- 59) Geesink, Van's Heeren Ordinantie, vol. 4, p. 217.
- 60) Acts of the Fourth Reformed Ecumenical Synod, p. 69.
- 61) Murray, Divorce, p. 1.
- 62) 고전 7:39.
- 63) 롬 7:2, 참고, 막 10:11, 12 그리고 눅 16:18.
- 64) Belgic Confession, Art. 7,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New York: Harper & Brothers, 1877), pp 387, 388에서 인용.
- 65)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Massachusetts/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155, 156. 또한 William Monter, Calvin's Geneva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1967), pp. 184-186, 그리고 Bouwman, "Echtscheiding", p. 8을 보라.
- 66)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pp. 89, 90.
- 67) Ibid., p. 180.
- 68) 나는 합의의 기간을 1000년으로 잡는데 혼례가 성례라는 교리로 12세기에 결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고백되었다. Jack Dominian, Christian Marriage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7), p. 32.
- 69) Marriage in the Early Church, David G. Hunter 역 (Minneapolis: Fortress, 1992), p. 29에서 인용.
- 70) 상계서 49쪽에서 인용.
- 71) Oscar D. Watkins, Holy Matrimony: A Treatise on the Divine Laws of Marriage (London: Rivington, Percival and Co., 1895), p. 203. Willy Rordorf, "Marriage in the New Testament and in the Early Church".

-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20 (1969): 204 참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의 혼인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혼은 항상 거부되었다는 사실이다."
- 72) Watkins, *Holy Matrimony*, pp. 212-214. 오리젠은 마태복음 19:8에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정죄 한다고 말한다. 오리젠은 3세기초에 이 글을 썼다.
- 73) Tertullian, "On Monogamy" in *The Anti-Nicene Fathers*, vol. 4 (Edinburgh: T & T Clark, 1885) ; American Repr., Grand Rapids: Eerdmans, n.d.), p. 66. Tertullian은 "On Monogamy"를 주후 217년에 썼다.
- 74) "On Monogamy"를 쓰기 전, 터툴리안은 성경이 과부가 다시 혼인하는 것 (고전 7:39)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후 217년이 되었을 때, 터툴리안은 몬타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Hunter, "Introduction" *Marriage in the Early Church*, pp. 10, 11을 참조하라.
- 75) Watkins, *Holy Matrimony*, p. 212.
- 76) Augustine, *The Good of Marriage*, Charles T. Wilcox 역, *The Father of the Church*, vol. 27 (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5, repr. 1969), p. 12.
- 77) *Ibid.*, p. 18.
- 78) *Ibid.*, p. 31.
- 79) Augustine,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William Findlay, in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Philip Schaff, 편, vol. 6 (Grand Rapids: Eerdmans, repr. 1979), pp. 20, 21.
- 80) *Sermon on the Mount*, p.17에 나와 있는 Augustine의 마태복음 5장 31, 32절에 대한 설교를 참고하라.
- 81) Augustine, *Adulterous Marriage*, Charles T. Huegelmeier, in *Fathers of the Church*, vol. 27, pp. 71-72.
- 82) *Ibid.*, p. 71.
- 83) *Ibid.*, p. 75, 76.
- 84) Watkins, *Holy Matrimony*, p. 335.
- 85) Augustine, *Sermons 392*. Watkins의 *Holy Matrimony*, 332 쪽에서 인용.
- 86) *Ibid.*, p. 226.
- 87) *Ibid.*, p. 346.
- 88) C. Caverno, "Divorce in NT,"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ed. James Orr,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60), pp. 865, 866.
- 89) Watkins, *Holy Matrimony*, pp. 435, 436. 주후 314년에서 527년 동안 "무흠자"의 재혼에 반대한 유일한 예외는 평신도 락탄티우스(Lactantius)와 암브로시 에스터(Ambrosiaster)라고 불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무흠한" 남편은 이혼 이후 재혼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암브로시 에스터는 "무흠한" 아내에게는 이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Watkins, *Ibid.*, pp. 296, 297, 342.
- 90) Heth 와 Wenham, *Jesus and Divorce*, p. 22. 그들이 언급한 저자는 크루젤 (C. Crouzel)이다. 초대교회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의 번역되지 않은 책은 *L'eglise primitive face au divorce du premier au conquieme siecle* (Paris: Beauchesne, 1971)이다.
- 91) Andrew Cornes, *Divorce and Remarriage: Biblical Principles and Pastoral Practice* (Grand Rapids: Eerdmans, 1993), pp. 306, 307.
- 92) Watkins, *Holy Matrimony*, pp. 216, 217.
- 93) *Ibid.*, p. 294.
- 94) *Ibid.*, p. 336.
- 95) Augustine, *Adulterous Marriage*, pp. 72, 73.
- 96) *Ibid.*, p. 72.
- 97) *Ibid.*, p. 73.
- 98) *Ibid.*, pp. 64-70 ; Augustine, *Sermons on the Mount*, pp. 20, 21.
- 99) Augustine, *Adulterous Marriage*, p. 106 ; pp. 102-106, 118, 119, 128.
- 100) *Ibid.*, pp. 102-106.
- 101) *Ibid.*, p. 105.
- 102) *Ibid.*, p. 112.
- 103) *Ibid.*, p.129.
- 104) Craig S. Keener, ... and Marries Another: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1).
- 105) *Ibid.*, p. 49.
- 106) *Ibid.*, p. 105.
- 107) *Ibid.*, p. 110.
- 108) *Ibid.*, p. viii.
- 109) *Ibid.*, p. 21.
- 110) *Ibid.*, pp. 104-110.
- 111) Hermas, *The Shepherd*, p. 30. 허마는 "오직 한 번의 회개만 [허용된다]"는

것을 덧붙인다.

- 112) Augustin, *The Good of Marriage*, p. 14. 참조, Watkins, *Holy Matrimony*, p. 335.
- 113) Augustine, *The Good of Marriage*, p. 18.
- 114) *Ibid.*, p. 31.
- 115) *Ibid.*, p. 35.
- 116) 로마의 "혼례성사"에 관하여, 'The Can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24th Session, in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2 (New York: Harper & Brothers, 1877), pp. 193-198. 세례나 성찬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이며 따라서 혼인이 은혜를 수여한다 것은 로마의 기본적인 교리이다. 어거스틴 당시 일반적인 성경 번역본은 혼인을 에베소서 5:32절에 나와 있듯이 "신성 (sacramentum)" 하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혼인을 "신성" 하다고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혼인을 "비밀(mystery)"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 117) Jack Dominian, *Christian Marriage*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7), p. 29.
- 118) Wilcox, "Introduction", in *The Good of Marriage*, pp. 4, 5.
- 119)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혼이 이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혼인무효는 이미 이혼한 사람들의 혼인을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재혼하는 사람들은 이론상 처음으로 혼인을 하는 것이다. 이 혼인무효는 교회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역자주
- 120) "혼인이 실제로 혼인이 아닐 때", *Newsweek* (1995년 3월 13일 자), p. 58, 9. 1981년에 바티칸의 한 위원회는 "본질적으로 혼인 무효령에 대한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규약을 인준하였다. 이 규약의 핵심적인 조항은 "심각한 정신적 미성숙"을 무효령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Chicago Tribune*, 1981년 10월 29자, p. 8). 이 머리 비상한 교회는 혼인을 손에 갖고 놀면서 "심각한 정신적 미성숙"이란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혼인에 대하여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로마의 비양심적인 조작은 부분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혼인이 평생동안의 끊어질 수 없는 끈이란 가르침을 비롯한 로마의 혼인 교리를 안타깝게도 거부하는 이유가 되었다.
- 121) James G. Emerson, *Divorce, the Church, and Remarriage*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 122) *Ibid.*, p. 51.
- 123) *Ibid.*, p. 166.
- 124) Allan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and

- Schuster, 1987), p. 119-121.
- 125) Francis A. Schaeffer,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1984), p. 63.
- 126) Carl F. H. Henry, *Confession of a Theologian* (Waco, Texas: Word, 1986), p. 388.
- 127) Heth and Wenham, *Jesus and Divorce*. 복음주의자와 개혁주의자들이 이 책을 그다지 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서평에서 알 수 있다. *Christianity Today* (1985년 12월 3일자), 그리고 *Calvin Theological Journal* 22. no. 1 (1987년 4월): 114-120. 또한 웨인 하우스(H. Wayne House)가 편집한 *Divorce and Rearriage: Four Christian View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1990)에 나오는 "Divorce, but No Remarriage" (71-129)를 보라.
- 128) Heth and Wehnam, *Jesus and Divorce*, p. 79.
- 129) Paul E. Steele & Charles C. Ryrie, *Meant to Last: A Christian View of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6), p. 115.
- 130) Cornes, *Divorce and Remarriage* (Grand Rapids: Eerdmans, 1993).
- 131) Norman L. Geisler, *Christian Ethics: Options and Issues* (Grand Rapids: Baker, 1989), pp. 277-292.
- 132) John Jefferson Davis, *Evangelical Ethics: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5), pp. 92-105.
- 133) Larry Richards, "Divorce & Remarriage under a Variety of Circumstances", in *Divorce and Remarriage*, ed. H. Wayne House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1990), pp. 213-248. 혼인에 대한 리처드의 음탕한 교리는 그 책의 부제, "네가지 기독교적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어도 그 견해 중의 하나는 비기독교적이다...에 대한 네가지 기독교적 견해와 비슷한 류의 수많은 책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사악한 상대주의를 고무시킨다. 격렬하게 대립하는 서로 다른 네가지 교리가 모두 '기독교적 견해'라고 할 수 있는가?"
- 134) Keener, ... and Marries Another, p. 105.
- 135) *Ibid.*, p. 200.
- 136) *Ibid.*, p. 49.
- 137) Jay E. Adams,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80), pp. 84-96.

- 138) Minutes of the Twentie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June 15-18, 1992, Roanoke, Virginia (Atlanta, Georgia: The Committee for Christian Education and Publications, 1992), p. 513-636.
- 139) Ibid., pp. 564-565.
- 140) Ibid., pp. 588, 589. 이 총회는 이 지침들을 636쪽(II, 4)에서 피시에이의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권장하였다.
- 141) William P. Brink와 Richard R. De Ridder, 1980 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Board of Publication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1980), p. 268.
- 142) Ibid., pp. 268, 269.
- 143) 기독교개혁교회의 "Guidelines for the Ministry of the Church in Matter of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에 대하여 앞의 상계서 269-274쪽을 보라.
- 144) Orientation (겨울, 1990- 겨울/ 1991). 이 저널은 다음 주소에서 얻을 수 있다. Porchefstroom of University fro Christian Higher Education, Porchefstroom, 2520 Republic of South Africa.
- 145) Neels Smit, "Why May a Marriage Not be Dissolved?" Ibid., pp. 111-117.
- 146) Gert Kruger, "Marrying a Divorced Person?" Ibid., pp. 111-117.
- 147) Ray Sutton, Second Chance: Biblical Principles of Divorce and Remarriage (Fort Worth, Texas: Dominion Press, 1988). 이 책의 부제는 "이혼과 재혼을 위한 성경적 청사진"이다. 이것은 개혁 신앙이 도대체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책은 비록 장려하지는 않지만 이혼과 재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청사진"을 제공한다.
- 148) Ibid., pp. 57ff.
- 149) Ibid., pp. 110, 111.
- 150) 이것이 율법을 증진키는 시켜 신정정치를 꿈꾸는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구약성경에서 신약 성도들을 위하여 이혼에 대한 수많은 근거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 재건운동의 근본적인 실수이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정정치"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적용이 혼인,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교회의 교리와 실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수영장에 울타리를 치고 식사에 관한 법을 준수하는 것), "신정론"은 약대는 삼킨다(어떤 이유에서든 이혼과 재혼은 가능함).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정론"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삶의 결정적인 영역에서 제멋대로이기 때문이다. 레이 써튼은 루사스 러쉬두니

- (Rousas J. Rushdoony)에게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넘겨 받았다. Rushdoony, The Institutes of Biblical Law (n. p.: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3), pp. 401-415를 참고하라.
- 151) Sutton, Second Chance, p. 111.
- 152) Ibid., pp. 105-109.
- 153) Ibid., p. 203.
- 154) Ibid., 112, 113. 총편집인 게리 노오스는 이 그의 "편집자 서문에서" 이 끔직한 신학을 제시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혼하였으나 ... 곧 재혼하셨다. 그는 새 신부, 즉 교회를 얻었다"(p. xii).
- 155)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에 대하여는 예레미야 3:8을 보라. 이혼이 혼인의 끈을 끊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예레미야 3:14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인 속에서 살아 있는 관계로 인도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예레미야 3:11 이하와 에스겔 16:60-63을 보라.
- 156) 이스라엘과 교회의 통일성에 관하여 그리고 두 시대의 언약의 하나됨에 대하여 Oswald T. Allis, Prophecy and the Churc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4)를 보라. 성경적 증거는 사도행전 15:13이하, 갈라디아서 4:1이하와 6:16, 그리고 베드로전서 2:9, 10이다.
- 157) Paul K. Jewett, Who We Are: Our Dignity as Human (A Neo-Evangelical Theology)(Grand Rapids: Eerdmans, 1996), pp. 341, 342.
- 158) Ibid., pp. 283-289.

낮은울타리 추천도서

모라비안 박스
 평신도들로서 생명이 종사하며 경건한 삶, 선교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경건주의자, 진문인 선교사들이 모라비안(Moravian)의 삶을 기리고 본 받자는 뜻을 담아 출간합니다.

하프타임
 피터 드러커가 경건하고 스티븐 코비가 한 수 배운 책 (하프타임). 한 때 실재되어도 만회할 기회는 있다. 인생의 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짜게 하는 강력한 도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호수라기 소리들 듣고 명쾌하다.
 밥버드 지음 / 김승룡 옮김 / 6,000원

서비스의 달인
 최장실 청소에서부터 병원운영까지, 비취빌레 박멸 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구수리에서 경비업무까지, 조정사업에서 발전소 위탁운영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최대의 서비스회사인 서비스마스터, 이 회사 사장이 밝히는 기업운영 철학!
 힐리엄 플라드 지음 / 김승룡 옮김

좋은 세계관
 오래전부터 기독교 세계관 관련 사역을 해온 저자의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 세계관 일문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을 무장하지 않고는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 본서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서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재료를 갖기를 바란다. 이진철 지음 / 4,900원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대중음악 특별보고서. 현강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원인과 문제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심층 진단한다. 대중음악을 기독교세계관으로 걸러낸 대중음악 읽기 최종 결정판! 대중음악 편, 학부도, 목회자, 교사 등 크리스천이라면 꼭 읽어야 할 문화필독서.
 김인준 지음 / 8,000원

아담과 문화를 논할때
 문화 논리의 원리, 성경의 문화, 현대 문화의 동향까지 한 눈에 훑어보는 문화 바로보기의 키 포인트.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문화 현상들을 구체적인 이야기체로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르게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문과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인목을 갖게 해 주는 문화 안내서. 설민집 지음 / 9,000원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내가 피레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순간, 죽어 실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기술을 듣는 안타까움과 타이타닉, 세도우랜드 등 영화 속 죽음의 순간을 저자 특유의 감동적인 터치로 표현한다.
 구원의 확신으로 힘차게 삶을 매진하는 당신을 위한 오늘을 영적진단서.
 정경철 지음 / 5,800원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자들의 소리 소문으로 더 유명해진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변치않는 가치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신선하다. 사랑은 어느날 저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사랑은 배우는 것이 책만 권으로 당신의 사랑은 이미 시작된다.
 정경철 지음 / 4,900원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정경철 교수의 신지침 열기 제 1탄.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지만 읽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보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실제적인 지침서.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독서전략이 숨어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풍수치열법람하는 정보 중역 기스를 사냥하고 요리하는 명쾌한 방법을 제시한다.
 정경철 지음 / 4,500원

하나님 공부하기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신학 신세. 교회학교 교사와 신학생, 하나님을 좀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평신도를 위해 쉽게 쓰여졌다. 삶의 새 지평을 탐색하는 기독교 자생 독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공부하기) 신앙을 점검하고 영도하게 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공부하기) 당신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호소하라! 반박되는 믿음을 발견하라!
 정경철 지음 / 7,000원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신앙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삶이다.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상적 시간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삶은 어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정경철 지음 / 4,900원

당신에게 오늘 행복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신앙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삶이다.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상적 시간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삶은 어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신상원 지음 / 8,000원

원하시는 도서를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권도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문화리더십박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화?
 대중문화를 포기할 것인가? 최후의 것인가? 문화사역을 위한 기본 필독서. 오늘날의 대중문화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신상원 지음 / 9,500원

행복한 문화사역
 신상원, 그가 낮은울타리 문화사역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문화사역을 꿈꾸는 교회와 청년들에게는 생생한 현장의 실천서 역할을 한다. 저자는 '문화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얼굴들, 그 가슴 뜨거울 젊은이들에 대한 작은 사랑의 표시' 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신상원 지음 / 9,500원

문화사역
 신상원 지음 / 9,500원

칼처리더십
 신상원 지음 / 7,000원 / 권승권

N세대를 위한 열가지 교육전략
 문화의 시대, 21세기는 이미 시작됐다. 문화 충돌, 기성세대의 울드 레터 다임과 신세대의 뉴 레터다임 대충돌! '이런 것을 교육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기성세대 앞에 놓인 한 가지 선례, '바뀌어야 한다.' 10대를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를 위한 최신 필독 지침서. 신상원 지음 / 9,500원

교육은 감동이다
 현장사역 전문가인 사랑의교회 이환수목사의 눈물·감성·진학이 아우러진 종교동무 3과와 부흥다이어리, 종교동무사역에 관한 한 결정판이라고 생각하고 년 이 저서에는 그의 사랑의교회 종교동무 8년 사역의 진한 경험과 낮은울타리의 신대 현장 필독 취재기, 교사들이 느낀 현장감있는 질문과 답변이 아우러져 있다.
 이환수 지음 / 9,500원

웨딩큐티
 과연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생활을 위한하는 도전은 무엇일까? 해야 할 말, 피해야 할 말, 계획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영적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커플을 위한 책. 김성용 지음 / 남여용 2,500원 set 5,000원

데이트큐티
 데이트 중인 커플들의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추억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데이트큐티) 근간. 김성용 지음 / 남여용 2,500원 set 5,000원

헤피하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글을 통한 1번 목상급 (헤피하세요?)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만 전하기를 어려워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경쾌하게 울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조태현·유승원 지음 / 6,000원

이혼
 어떤 편견도 없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성경 그 자체에만 바탕을 두고 다룬 책이 계속 읽을 것을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이혼할 사람이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 읽어야 할 소중한 책!
 데이비드 앨리스 지음 / 이영호 옮김 / 7,000원

교회를 위한 교재

신대를 위한 교재 각각 1,800원

청년을 위한 교재 각각 2,500원

낮은울타리 문화사역의 결정판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최원용, 유승로 본사부담

추천도서 신청방법

1.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3개 1집) 2. 뉴에이지와 음악 3. 문화사역자론 4. 끝없는 죽음, 환생 5. UFO의 실제 6. COM 이란 무엇인가?(2개 1집) 7. 만화가 밀려온다 8. 컴퓨터와 사귀어 봅시다 9. 황수와 황기 10. 신대를 위한 패션 11. 슬거진 메시지, 잠적의식 12. Rock음악 13. 굿모닝 마이 프렌드(동영상에)

전화 02)338-6475 / 팩스 02)338-6477
 기업은행 042-004686-01-026 예금주 신상원 (입금 후 전화주세요)

다들 물어봐서...
다들 물어봐서...
다들 물어봐서...

이혼
지은이 데이비드 앵겔스만
윤진이 이성호
퍼낸곳 낮은올타리 미디어사업본부
(120-600) 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5호
전화 02)338-6475, 팩스 02)338-6477
값 7,000원

관
인
721



하프타임
 피터 드러커가 경탄하고 스티븐 코비가 한 수 배운 책 (하프타임). 한 때 실패해도 만회할 기회는 있다. 인생의 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짜게 하는 강력한 도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멈춰라.
 법 버포드 저음 / 김성웅 옮김 / 6,000원



서비스의 달인
 회장실 청소에서부터 병원운영까지, 바퀴벌레 박멸 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까, 가구수리에서 경비업 무까지, 조정사업에서 발전소 위탁운영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계 최고·최대의 서비스회사인 서비스마스터, 이 회사 사장이 밝히는 기업운영 철학!
 윌리엄 폴러드 저음 / 김성웅 옮김



웨딩큐티
 과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도전은 무엇일까? 해야 할 말, 피해야 할 말, 계획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영적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커플을 위한 책.
 김성웅 저음 / 남여용 각각 2,500원

데이트큐티
 데이트 중인 커플들의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추억이 우기를 위한 실재적인 지침서. 근간
 김성웅 저음 / 남여용 각각 2,500원

월간 낮은울타리

매월 발행되는 사랑과 행복, 문화리더십의 전문 교양지
 정기구독 문의 02)338-6475
 한권 값 2,500원 / 1년 정기구독 27,000원



월간 큐

기독교 문화 행사 전문지
 정기구독 문의 02)333-1316
 한권 값 3,500원 / 1년 정기구독 37,000원

‘이혼해버려!’
‘나 같으면 그러고 안 산다!’
‘갈라서!’
‘도장 찍어!’

언제부터인지 심심지 않게 우리의 췌전을 때리는 말들…

과연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가?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이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아주 도발적인 책,
사도시대 이후 천년 동안 내려온 혼인교리의 뿌리를 파헤치고
종교개혁자들의 혼인에 관한 가르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현대교회에 곧 닥쳐올 엄청난 폐해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평신도 가정사역자, 상담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벼랑 끝에 선 부부와 파탄 직전의 가정을 구할 책!

“나는 성령님이 이 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혼인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시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혼인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바란다.”

-저자 서문에서-

값 7,000원



‘이혼해버려!’
‘나 같으면 그러고 안 산다!’
‘갈라서!’
‘도장 찍어!’

언제부터인지 심심지 않게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말들...

과연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가?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이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아주 도발적인 책,
사도시대 이후 천년 동안 내려온 혼인교리의 뿌리를 파헤치고
종교개혁자들의 혼인에 관한 가르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현대교회에 곧 닥쳐올 엄청난 폐해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평신도 가정사역자, 상담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벼랑 끝에 선 부부와 파탄 직전의 가정을 구할 책

“나는 성령님이 이 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혼인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시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혼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결혼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사건은 배우자의 죽음이다”**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값 7,000원

